

科技考古研究

第 2 號

아주대학교 박물관

1997. 2.

目 次

〈논문〉

살포와 鐵鋤를 통해서 본 4 - 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	김재홍 / 5
腰佩飾 連結金具의 製作技法과 地域差異	박보현 / 55
丁若鏞의 技術發展論	조성을 / 83

〈발굴개보〉

평택 원정리 유적 발굴개보	107
----------------------	-----

〈박물관소식〉

연구 조사활동	122
학술강연회	124
특별전시	124
絲田 허동화 寄贈作品	127
受贈圖書目錄	132

살포와 鐵鋤를 통해서 본 4-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

김 재 홍*

目 次

머리말

1. 연구사정리

- 1) 고농서에 보이는 살포와 철서
- 2) 고고학보고서에 보이는 살포와 철서

2. 형식분류와 기능

- 1) 형식분류
- 2) 기능

3. 유물소개

4. 부장양상

- 1) 유구의 성격과 계층성
- 2) 부장위치
- 3) 분포권

5. 살포·철서의 변천

6. 살포·철서 출현의 역사성 맺음말

머리말

4-6세기는 고고학이나 문헌사학의 측면에서 사회변동의 시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4세기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木槨墓는 입지의 우월성, 무덤의 대형화와 副槨의 발생, 무기의 집중, 순장 등을 특징으로 가지며,¹⁾ 이후의 무덤에서는 농공구와 무기 등의 철제품의 질·양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철제농공구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에서 豪民層²⁾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성장하고 이들에 의해 새로운 질서가 생기려 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신라국가는 기존의 지역사회를 해체하고 지방을 촌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호민층의 움직임을 국가질서내로 흡수하여 지역사회를 재편하려고 하였다.³⁾

* 國立中央博物館 學藝研究士

1) 申敬澈, 〈김해 예안리 160호분에 대하여 - 고분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야고고학논총》 1, 1992.

崔鍾圭, 《三韓考古學研究》, 書景文化社, 1995.

2) 호민층에 대한 개념정리는 拙稿, 〈新羅 中古期 村制와 地方社會構造〉, 《韓國史研究》 72, 1991, p.15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변화는 철제농기구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철제농기구는 북쪽에서 기원전 4-3세기, 남쪽에서 기원전 2-1세기경에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원삼국시대를 거치면서이다. 특히 4세기이후에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4세기이후부터는 보습·파비·괭이·쇠스랑 등의 耕器具, 쇠스랑과 같은 摩田具, 살포와 같은 水田具, 철서와 같은 除草具, 철제괭이와 같은 개간용구, 낫과 같은 수확구가 사용되었다.⁴⁾ 이 중에서 쇠스랑, 살포, 철서와 같은 농기구는 4세기이후에 새로이 나타나는 농기구이다. 이러한 새로운 농기구의 출현은 새로운 농사기술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변동의 시발이 되는 것이다. 결국 4세기이후에 새로이 출현하는 농기구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농사기술의 진전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변동의 실체를 추적하는데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살포(본고에서는 살포와 철서⁵⁾로 나누어서 고찰)라고 지칭하는 농기구를 대상으로 정확한 명칭과 그 기능을 검토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1. 연구사 정리

1) 古農書에 보이는 살포와 鐵鋤

농서를 포함한 고문서에서 오늘날의 살포나 호미에 해당하는 농기구를 찾기는 수월하지 않으나 기능적인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정리하고자 한다.⁶⁾

최세진의 《訓蒙字會》에서는 호미에 대해 ‘鋤(호미 서, 小曰鋤), 鑿(호미 확, 大曰鑿, 俗呼鑿頭)’이라고 표현하여 괭이와 구분하고 있다. 최세진이 확을 호미 중에서 큰 것이라고 한 것은 괭이를 호미의 큰 것으로 보았던 듯하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농서의 대부분은 호미의 한자표기로서 鋤를 쓰고 있으나 訓民正音 解例本과 穡經에서만 鉏로 쓰고 있다.

3) 拙稿, 위 논문, 1991.

4) 拙稿, 〈鐵製農器具와 牛耕〉, 《韓國歷史入門》①(원시·고대편), 1994.

5) 철서는 요즘 농촌에서 사용하는 호미를 이르는 한자어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 호미와 형태나 기능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본고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철서의 형태와 기능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6) 金光彦, 《韓國農器具攷》, 1986.

洪萬選의 《增補山林經濟》에 나오는 無纓杓子是 끈이 달리지 않은 가래라는 말로 미루어 종가래나 살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⁷⁾

朴齊家の 《北學議》에 나오는 立鋤는 이랑이 너른 수수밭에서 쓰기 알맞으며 함경도 지방의 양귀호미가 이에 해당한다. 譯語類解의 鋒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살포라는 구체적인 용어는 加藤木保·清水央의 《朝鮮ノ在來農具》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⁸⁾ 살포는 몸과 날이 모두 鍊鐵板(두께 한 푼 내지 두 푼)으로 만들며 이에 자루를 박는다. 1인용으로 주로 논외 물고를 조절하는 따위의 일에 쓴 것으로 종가래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래를 재래농기구 가운데 가장 우수한 利器라고 평가하였다.

홍희유는 한사람이 사용하게 만들어진 손가래[手杓子]를 경기지방에서는 종가래라고 불렀으며 주로 좁은 구덩이를 파는데 이용되었다⁹⁾고 하였다. 한편, 끈이 달리지 않은 작은 가래를 종가래라고도 하지만 이보다 살포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쓴다고 한다.¹⁰⁾

민속에 보이는 살포는 지역에 따라 ‘살포갱이(경남 영산)’, ‘살피(경북)’, ‘논물광이(강원도 도계)’, ‘삽가래(전남 보성)’, ‘살보(전남)’, ‘손가래(경북)’, ‘살보가래(전남 강진)’ 등으로 불린다. 손바닥만한 날에 비해 자루는 2m에 이르는 것도 있다. 날의 형태는 네모난 날끝을 위로 두번 구부리고 괴통을 단 것, 깃잎 모양으로 앞이 뽕족하고 끝이 위로 두번 구부러져서 괴통이 달린 것(오리 살포), 말굽쇠형 따비처럼 직사각형의 몸체에 말굽쇠형의 날을 끼운 것, 켤이의 날처럼 위로 한번 구부리고 괴통을 단 것 등 매우 다양하다. 살포는 논외 물고를 트거나 막을 때 쓰며 논에 나갈 때 지팡이 대신 짚고 다니기도 하였다. 또 모심기 후 뜸모를 손질하거나 쟁기질하기 어려운 자투리 땅을 파거나 고를 때도 쓴다.¹¹⁾

2) 고고학보고서에 보이는 살포와 鐵鋤

고고학 자료를 이용하면서 농기구 항목에서 살포를 다룬 사람은 有光敎一이다. 그는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여러 점 출토된 手斧라고 불려오던 것을 살포라고¹²⁾ 정정하

7) 金光彦, 硯畵, 1986.

8) 加藤木保·清水央, 《朝鮮ノ在來農具》, 1925.

9) 홍희유, 〈15세기이후의 조선농구에 대하여〉, 《문화유산》 5, 1959.

10) 김광언, 앞의 책, 1986.

11) 金光彦, 〈살포〉,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1, 1991.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같이농구 3주년 기념 기획전》, 1996.

12) 有光敎一, 〈朝鮮半島における鐵製農具の變遷について〉, 《末永先生古稀記念古代學論叢》, 1967.

여 농기구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는 《朝鮮ノ在來農具》에 나오는 민속예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살포를 논에 물을 넣고 뺨 때, 논둑을 트거나 막는데 사용했던 농기구라고 정의하였다. 그가 살포라고 인식한 농기구는 형태상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살포와 철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기능상으로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일제시대 이후부터 나온 보고서에서도 살포와 철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에 대한 인식도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기존에 유광교일이 살포라고 인식한 농기구를 살포와 철서로 나누었다.

살포에 해당하는 농구구에 대해서는 각종 보고서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명칭에 비해서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자귀에 해당하는 手斧, 鑿, 무기의 기능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보고된 발굴보고서를 참조하여 살포에 해당하는 철기의 명칭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鐵製鑿形袋穗利器(금령총), 鑿形利器(호우총), 鐵鑿(교동7호), 筭形鐵器(북정리4·14호), 鐵製鑿(식리총)
- 鐵鋒(미추왕릉 7지구 5호, 양동32호, 예안리39호, 옥전 M1·3호, 창원 가음정동3호)
- 手斧(황남동82호서총주곽, 계남리1호주곽), 斧形鐵器(달서51호2곽·55호, 탑리1·2묘곽)
- 살포(학소대 I - 3호, 연당리14호, 화성리)
- 鐵插(대성동1호)
- 鐵製鉞(금성리석곽묘), 쇠끝창(신봉동90A - 4호), 鐵鉞(죽막동유적)
- T字形長柄利器(대리고분1묘곽)
- 異形鐵器(표정리12호)

철서도 각종 보고서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살포라고 부르고 있다.¹³⁾ 다양한 명칭에 비해서 기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괭이에 해당하는 鐵鍬, 鑿, 살포의 기능으로 파악하고 있다.

- 鐵鋤=살포(구의동)
- 鐵製斧頭(황오리14호1곽)
- 鐵鍬(안압지)

13) 千末仙, 〈鐵製農具에 대한 考察〉, 《嶺南考古學》 15, 1994.

- 살포(북천동67호)
- 鐵鏟(예안리138호, 미추왕릉 7지구3호), 鏟形鐵斧(예안리150호)
- 異形鐵器(표정리13호)
- 鐵鈇=자귀(미추왕릉 9지구1·3묘곽)
- 鐵製괭이(공산성)
- 鐵製利器殘片(인왕동19호F곽)

살포와 철서에 해당하는 농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논에 물고를 대는 살포라는 농기구,¹⁴⁾ 자귀에 해당하는 手斧,¹⁵⁾ 무기¹⁶⁾라는 견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살포가 논에 물고를 트거나 막을 때에 사용하는 농기구로 인식하고 있다.¹⁷⁾

2. 형식분류와 기능

1) 형식분류

일반적으로 살포는 방형의 날이 가늘고 긴 굽통이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는 농기구이다. 살포는 유광교일이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여러점 출토된 手斧라고 불려오던 것을 살포라고¹⁸⁾ 정정하여 농구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살포는 논에 물을 넣고 뺄 때, 논둑을 트거나 막는데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살포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철제 농기구 중에서 넓고 네모난 날부분과 긴 굽통을 가진 것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게 되면서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살포라고 다루는 농구를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포와 철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살포와 철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14) 有光教一, 〈朝鮮半島における鐵製農具の變遷について〉, 《末永先生古稀記念古代學論叢》,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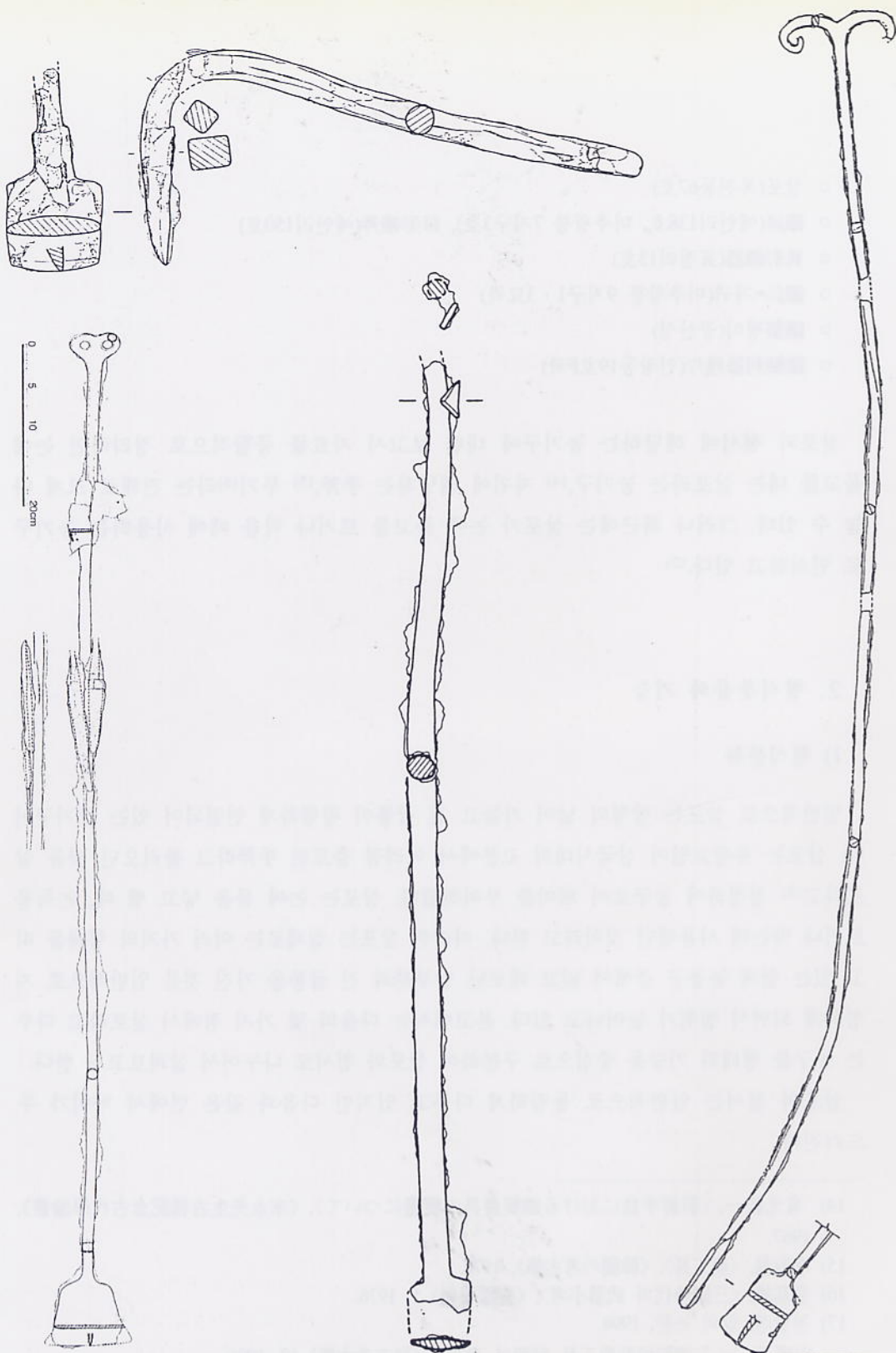
15) 李殷昌, 〈農工具〉, 《韓國の考古學》, 1972.

16) 金基雄, 〈三國時代の 武器小考〉, 《韓國學報》5, 1976.

17) 천말선, 앞의 논문, 1994.

安順天, 〈小形鐵製模型農工具 副葬의 意義〉, 《嶺南考古學》18, 1996.

18) 有光教一, 앞의 논문, 1967.



도면 1. 살포·철서의 자루착장법

上. 교동3호, 下左. 옥전M3호, 下中. 죽막동, 下右. 가음정동3호
(上·下中·右 scale 0 10cm)

- ① 가장 두드러진 형태 차이는 날과 굽통의 길이이다. 살포는 방형의 납작한 날이 가늘고 긴 굽통에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날의 길이가 굽통길이보다 짧다. 이에 비해 철서는 方形이나 抹角方形의 납작한 날부분이 짧은 굽통에 연결되어 있다.
- ② 굽통의 제작방법이다. 살포는 장방형의 철정의 양쪽을 잘라 그대로 구부려 원형의 굽통을 이음매가 벌어지지 않게(鍛接) 만든 것이다. 이에 비해 철서는 장방형의 철정의 양쪽을 잘라 그대로 구부려 원형이나 타원형의 굽통을 약간 벌어지게 붙인(延接) 것으로 양쪽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드려서 구부린 굽통을 가진 鐵斧¹⁹⁾와 구분이 된다.
- ③ 날과 굽통의 형태이다. 살포는 대부분 가늘고 긴 굽통과 날이 평행하게 만들어졌으나 철서는 짧은 굽통과 날이 바깥으로 약간 휘어진 것도 있다.
- ④ 나무자루의 착장방법이다. ③과 같은 형태차이로 인하여 살포는 1 - 2m 정도 되는 긴 나무막대나 장대를 수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였을 것이고 철서는 0.5 - 1m 정도 되는 丿자형의 나무막대를 횡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다. 전자는 합천 옥전 M3호·의성 대리고분·창원 가음정동3호의 쇠자루살포로, 후자는 창녕 교동3호 鐵柄鐵斧²⁰⁾로 보아 그 사용방법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포와 철서를 형식분류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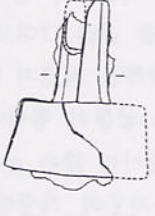
〈表 1〉 살포의 형식분류

종류 내용	살 포		
	I	II	III
도 면			

19) 필자는 前考(拙稿, 앞의 논문, 《한국사연구》 72, 1991)에서 이를 팽이라고 불렀으나 구체적으로 논증을 하지 않아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명칭인 철부라고 한다. 그러나 철부를 도끼의 기능을 가진 농공구로 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 둔다.

20) 이것은 東潮가 분류한 鍛造鐵斧IV c류에 해당하는데, 같은 것이 대구 달서, 경주 4·16호, 강원도 三陟 葛夜山古墳에서 나왔다(東潮, 〈東アジアにおける鐵斧の系譜〉, 《森貞次郎博士古稀記念古文化論集》, 1982). 또한 東潮가 분류한 IV b類 有肩鐵斧도 기능상으로 鐵鋤에 해당하지만 형태상의 차이로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다.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表 2〉 철서의 형식분류

종류 내용	鐵 鋤		
형 식	I	II	III
도 면			

I 류 : 날길리와 날너비가 비슷한 경우이다.

II류 : 날길이보다 너비가 짧은 경우로서 종장방형의 세장한 身部를 가진 형태이다.

III류 : 날길이보다 날너비가 긴 경우로서 身部는 크고 넓적하며 굽통단면은 타원형이다.

이러한 형태의 살포와 철서는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농기구라고 할 수 있다. 철서 I 류는 貴州 淸鎮 출토의 한대 鐵鏟과²¹⁾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아 중국의 한전농법의 영향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고구려의 수도였던 길림성 집안현 동대자건물유적에서는 구의동 출토품과 거의 비슷한 철서가 나와 당시 이러한 형태의 철서가 고구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통일 후에 경주에 영향을 주어 안압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철서가 나오 고 있다.

2) 기능

살포는 자루를 몸통과 직각되게 장치하여 밭농사에서 고랑 또는 이랑의 잡초를 전진하면서 밀었거나 논농사에서 물고를 막을 때에 사용하였다. 특히 柄을 삽입하는 중앙부분이 아래로凸형태로 솟아 있어 입토 후 뒤로 제쳤을 경우에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저습지의 배수나 수전의 개간에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살포는 논농사에서 물고를 틀 때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물을 제어하는 首長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5세기대의 옥전 M3호·의

21) 陳文華, 《中國古代農業科技史圖譜》, 1991, p.182.

성 대리고분의 쇠자루 살포의 등장이다. 합천지역의 수장이 문헌 M3호는 대형분으로 이 지역의 수장급의 무덤이라 할 수 있다. 이 고분은 주·부곽 수혈식 석곽분으로 옥전고분의 조영집단들이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쇠자루 살포는 피장자의 오른쪽에 피장자와 나란히 출토되어 피장자의 성격을 잘 알려준다. 이로 보아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 지역의 수장으로 쇠살포로 짚고 수전농사를 장려하는 수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철서는 자루를 7자형으로 구부려서 몸통에 맞추어 畇田에서 흙을 복돋우는데에 사용하였다. 철서는 민속에서는 호미라고 하는 것으로 鋤, 錢, 鈹, 鏹이라고도 하며 파종 후 묘가 성장할 때 많이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날의 형태가 1자형, 凹자형, 6각사다리형, 半圓形 등 전국 중후기에 다양해지며, 자루의 길이에 따라 長柄, 短柄 등이 있다.²²⁾ 전국시대의 철서는 한대의 것과는 달리 날부분의 폭이 넓기 때문에 苗間을 긁어서 제초하거나 苗를 移種할 때는 적합하지만 묘와 묘사이의 잡초 제거에는 부적합하였다고 한다.²³⁾ 이러한 철서의 모습은 본고에서 다루는 철서의 모습과 비슷하며 기능상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의 철서는 후대의 호미와²⁴⁾ 같이 ‘中耕除草’의 기능보다는 흙을 복돋아 주거나 苗間을 긁어 제초를 하는 기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鐵鋤의 등장은 흙을 복돋아 작물을 튼튼하게 성장시키는데 큰 효능이 있었으며, 또 묘간을 긁어줌으로써 뿌리의 호흡을 촉진시키고 작물을 튼튼하게 성장시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서는 땅속에 묻혀 있는 근채식물을 수확할 때도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 서의 역할은 묘간을 여러 차례 긁어 토양의 彈粒조직을 형성하여 토지 이용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수확 후 곧 後作物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

이러한 철서에 의한 鋤地法은 기능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V지역인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에서는 작물의 생육중에 자주 중경제초에 의한 제초가 행해진

22) 陳文華編繪, 《中國古代農業科技史簡明圖表》, 1978.

23) 崔德卿, 〈全國時代 鐵製農具의 출현과 보급〉, 《中國古代農業史研究》, 1995.

24) 후대와 같이 중경제초에 적합한 호미는 날이 좁고 날카로워야 하였다. 현재의 호미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는 8세기경의 유적인 안압지에서 출토된 호미이다(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雁鴨池》, 1978). 이 호미는 길이가 16.7cm, 날 최대의 길이가 4.5cm로 흔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삼각형의 호미와는 다른 낫형의 소형호미로 19세기초에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널리 사용한 호미이다.

다. 제초를 하지 않으면 잡초때문에 수확에 장애를 받게 된다. 그래서 제초작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도 동아시아에 속하기 때문에 중경제초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한 제초작업을 서유럽에서는 ‘intertill’, 화북내한전 작지대에서는 ‘鋤’, 화중남도작사회에는 ‘薅’, 일본에서는 ‘中耕除草’라고 부르고 있다. 《농사직설》에서도 화북전작지대와 같이 ‘鋤’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鋤’의 내용은 ‘薅’, ‘中耕除草’와도 상당히 달랐다고 한다.²⁵⁾

《齊民要術》에서는 기토를 하기 위한 春鋤와 제초를 하기 위한 夏鋤로 구분하고 있다. 춘서는 화북의 봄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내한·지습보위 등을 목적으로 하고 하서는 강남지방의 다습지에서 여름철의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북에서는 밭아와 양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서를 이용하여 건조한 표층을 분쇄하여 교란층을 형성하여야 하였다. 교란층의 형성은 황토층의 수분을 점차 표층으로 흡수 증발하여 한전의 토양을 건조시켜 수분의 증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토작업에 사용된 서는 자루의 길이가 4-5尺으로 서서 작업을 행하는 立鋤였다. 입서는 壟間의 표토를 끌어내리고 그 날 등으로 흙을 눌러 부수면서 전진작업을 하였다고 한다.²⁶⁾

한편으로 강남지방에서는 묘의 높이가 1m 정도 되었을 여름철인 6월부터 제초와 배토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때에는 흙을 깊이 파는 인력농구인 鋒을 이용하였다.

이와같이 《齊民要術》에서의 서지법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용된 농기구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봄가뭄을 극복하기[耐旱] 위하여 주로 장병서를 사용하여 起土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立鋤는 본고에서 다루는 철서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철서는 후대의 호미와 같이 ‘中耕除草’의 기능보다는 화북지방의 입서와 같이 봄가뭄을 이기기 위해 흙을 부수고 복돋아주는 기능을 하였다고 여겨진다.²⁷⁾

이러한 형태의 철서는 오늘날과 같이 短柄鋤[호미]라기 보다는 장병서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최근에 이호철은 세종실록지리지의 근거로 하여 조선전기 농업지

25) 西山武一, 〈“齊民要術”의 農學〉, 《アジア的農法と農業社會》, 1971.

26) 西山武一, 畧 논문, 1971.

李鎬澈, 〈鋤地法〉, 《朝鮮前期農業史研究》, 1986.

27) 西山武一, 畧 논문, 1971.

李鎬澈, 畧 논문, 1986.

대를 5유형으로 분류하고 山間農業地帶와 旱田農業地帶에서는 長柄鋤가 水·旱田農業地帶에서는 短柄鋤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수한전 농업지대에서 산간농업지대로 갈수록 조방성이 강해지고 그에 따라 호미는 북으로 갈수록 장병서 중심의 분포를 이루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²⁸⁾

이러한 사실은 1930년대 중반의 호미의 유형분포를 조사한 연구성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²⁹⁾ 경기·평안도지방의 발호미가 날이 크고 넓으며 자루가 남쪽 논농사지대의 호미보다 더 길다. 이것은 곧 서서 사용하는 장병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장병서의 전통을 가진 호미가 아난가 한다. 장병서의 전통을 이어받은 호미가 분포하는 지역이 대체로 한전농업지대의 일부를 포함하는 산간농업지대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반해 토지생산성위주의 집약적인 논농사지대에는 호미가 대부분 단병서이면서 날도 매우 적고 뾰족하다.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물의 관리에 집약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논이 많아 자연 많은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투입하므로 호미도 철저한 제조에 보다 적합한 단병서가 많아야 할 것이다.³⁰⁾

이는 최근에 실시한 安東市 豐山邑 素山1洞 素山마을의 민속조사에서 확인된다. 이곳에서는 날의 끝이 넓고 크며 자루가 매우 길어서 서서 두손으로 사용하는 호미를 넓적괘이, 가짓괘이, 긴호미로 부르고 있으며 주로 밭을 매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³¹⁾ 이는 본고에서 언급한 철서의 기능을 이해하는데에 필수적이다. 이에 비해 논호미는 발호미에 비해 날이 크고 무거우며 호미끝이 세장하다.

이로 보아 4-7세기의 鐵鋤는 날의 끝이 넓고 크며 자루가 긴 長柄鋤라고 추정되며, ‘中耕除草’의 기능보다는 흙을 부수고 북돋아주거나 苗間을 긁어 제초를 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유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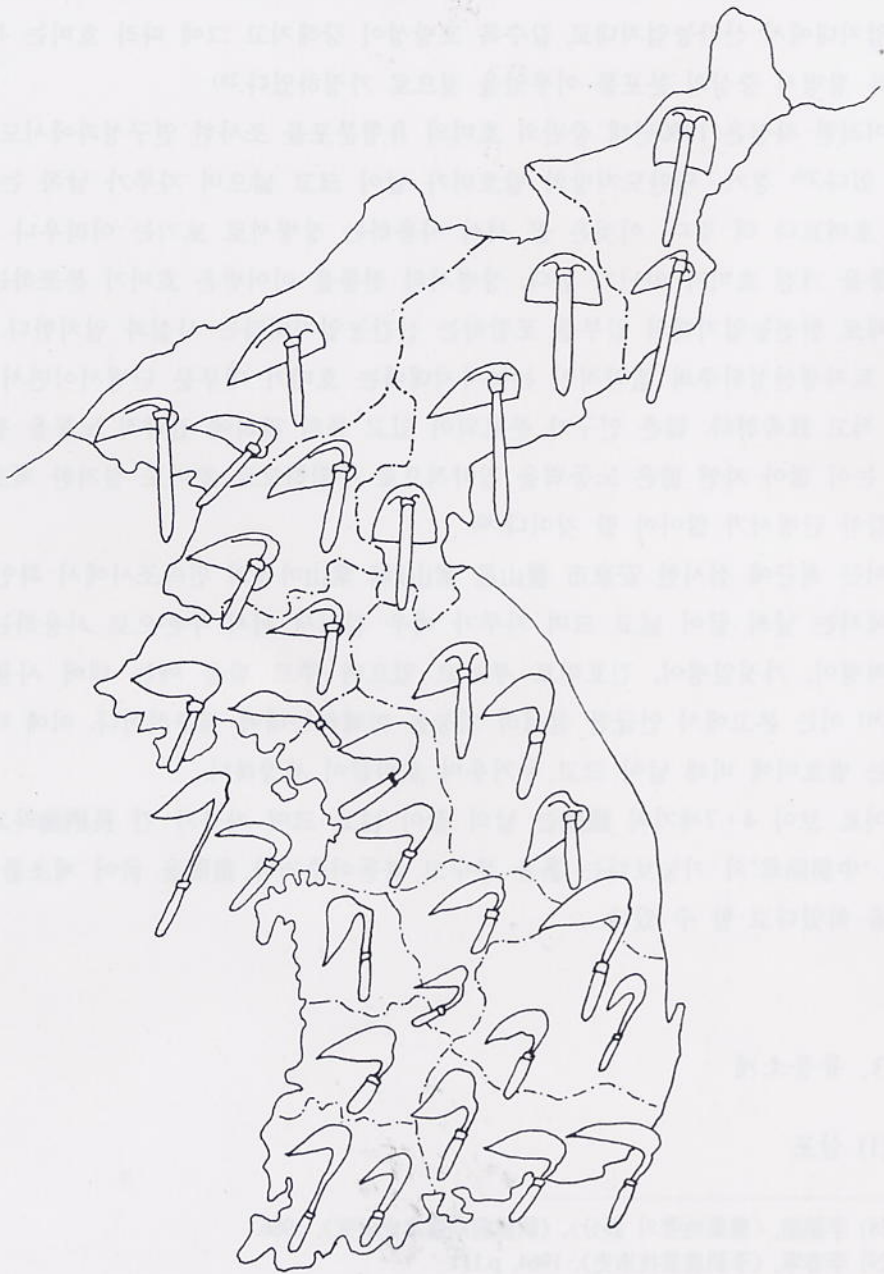
(1) 살포

28) 李鎬澈, 〈農業地帶의 區分〉, 《朝鮮前期農業史研究》,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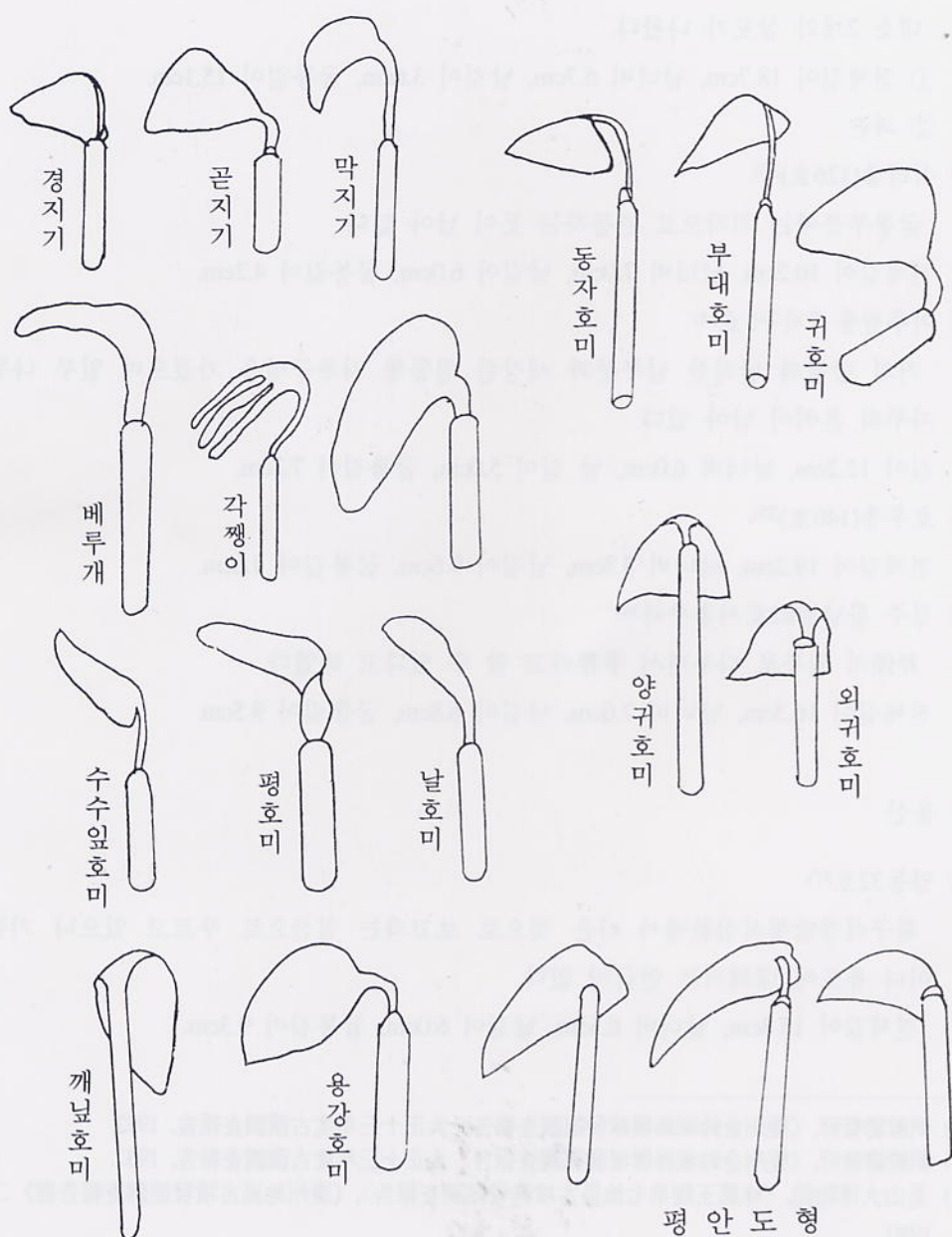
29) 李春寧, 《李朝農業技術史》, 1964, p.111.

30) 裴永東, 〈호미에 관한 연구-그 기능과 관련민속을 중심으로〉(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31) 裴永東, 위 논문, 1987.



도면 2. 호미의 모양과 분포 (이춘녕, 《이조농업기술사》, 1964)



도면 3. 호미의 모양

(정시경, 〈호미의 유형과 그 분포〉, 《문화유산》 60 - 1, 1960)

1) 경주

○ 금령총(127호)³²⁾

대소 2개의 살포가 나왔다.

① 전체길이 18.7cm, 날너비 6.7cm, 날길이 3.6cm, 굽통길이 15.1cm.

② 파손

○ 식리총(126호)³³⁾

굽통부분에는 직각으로 관통하는 못이 남아 있다.

전체길이 10.2cm, 날너비 7.0cm, 날길이 6.0cm, 굽통길이 4.2cm.

○ 미추왕릉 7지구5호³⁴⁾

거의 방형의 납작한 날부분과 세장한 원통형 자루구멍을 가졌으며 일부 나무 자루의 흔적이 남아 있다.

길이 12.2cm, 날너비 6.0cm, 날 길이 5.0cm, 굽통길이 7.2cm.

○ 호우총(140호)³⁵⁾

전체길이 19.2cm, 날너비 8.8cm, 날길이 9.6cm, 굽통길이 9.6cm.

○ 경주 황남동82호서총주곽³⁶⁾

斧頭の 일부로 다루면서 手斧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체길이 16.3cm, 날너비 7.0cm, 날길이 6.8cm, 굽통길이 9.5cm.

2) 울산

○ 양동32호³⁷⁾

횡구식장방형석실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자는 철산으로 부르고 있으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전체길이 15.3cm, 날너비 6.5cm, 날길이 6.0cm, 굽통길이 9.3cm.

32) 朝鮮總督府,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1932.

33) 朝鮮總督府,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1932.

34) 釜山大博物館, 〈味鄒王陵第七地區古墳群發掘調査報告〉,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書》二, 1980.

35) 國立博物館, 《壺杆塚과 銀鈴塚》, 1948.

36) 朝鮮總督府, 《慶州皇南里第八十二號墳第八十三號墳調査報告》昭和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35.

37) 釜山大博物館, 《蔚州良東發掘調査概報》, 1985.

3) 대구

○ 달서51호2곽³⁸⁾

날의 앞부분이 일부 파손되었다.

전체길이 19.5cm, 날너비 7.5cm, 날길이 4.8cm, 굽통길이 14.7cm.

○ 대구 달서55호³⁹⁾

奧壁으로부터 2尺3寸, 左壁으로부터 약 6寸의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굽통의 나무자루를 끼는 부분에는 목질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길이 14.9cm, 날너비 6.9cm, 날길이 5.7cm, 굽통길이 9.2cm.

4) 창녕

○ 계남리1호주곽⁴⁰⁾

모두 2점이 발견되었다.

① 주곽의 부장벽 근처에서 수습된 삼지창 주위에서 출토되었다. 身部の 평면은 횡장방형이고 날은 밖으로灣曲되어 있다. 굽통으로 갈수록 약간씩 좁아지다가 하단에 이르러 급격히 줄어들면서 굽통과 연결된다. 단면은 원형이고 굽통 내에는 목질흔이 남아 있다.

전체길이 12.9cm, 날너비 7.5cm, 날길이 5.3cm, 굽통길이 7.6cm, 굽통지름 2.7×3.0cm, 무게 209.2g.

② 남장벽의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비교적 소형이나 身部の 평면은 종장방형이고 날부분은 밖으로 만곡을 그리고 있다. 신부는 굽통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횡단면은 세장방형이고 종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날부분의 단면은 타원형으로 양쪽으로 접어 올랐으며 굽통 내에는 목질흔이 남아 있다.

파손, 굽통지름 3.0cm, 무게 72.8g.

○ 교동7호⁴¹⁾

38) 朝鮮總督府, 《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大正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1930.

39) 朝鮮總督府, 《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大正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1930.

40) 嶺南大博物館, 《昌寧桂城里古墳群-桂南1·4號墳》, 1991.

41) 穴澤和光·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60-4, 1977.

단면 원형의 굽통을 가지고 날끝은 鈍角으로 폭이 넓다.
전체길이 17.6cm, 날너비 7.6cm, 날길이 7.6cm, 굽통길이 10.0cm.

5) 의성

○ 대리고분 I 묘곽⁴²⁾

쇠자루살포이다. 편평한 方形狀의 날은 날카로우며 T자모양의 손잡이가 鐵棒狀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길이 132.4cm, 손잡이폭 9.2cm, 날너비 8.0cm, 날길이 6.9cm, 굽통길이 125.5cm.

○ 탐리제1묘곽⁴³⁾

네모나고 편평한 身部の 끝이 날부분이고 위에 자루를 끼는 굽통이 달려 있으며 透化가 심하여 한쪽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전체길이 13.6cm, 굽통지름 2.5cm, 날너비 4.6cm, 날길이 5.0cm, 굽통길이 8.7cm.

○ 탐리제2묘곽⁴⁴⁾

2개가 발견되었으며 날부분의 크기는 2개가 비슷하지만 날부분의 너비에서 차이가 난다. 굽통안에는 부러진 나무자루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

① 전체길이 18.7cm, 날너비 10.7cm, 날길이 7.5cm, 굽통길이 11.2cm.

② 전체길이 17.3cm, 날너비 6.5cm, 날길이 6.0cm, 굽통길이 11.3cm.

6) 양산

○ 북정리4호⁴⁵⁾

날길이에 비해 굽통의 길이가 2배 이상 될 정도로 굽통이 발달하였다. 철탁 2점과 함께 나왔다.

전체길이 18.6cm, 날폭 7.1cm, 날길이 6.0cm, 굽통길이 12.6cm, 무게 155g.

○ 북정리14호⁴⁶⁾

42) 金基雄, 〈義城大里古墳發掘調査報告〉, 《史學研究》 20, 1968.

43) 國立博物館, 〈義城塔里古墳〉, 1962.

44) 國立博物館, 〈義城塔里古墳〉, 1962.

45) 沈奉謹, 〈梁山北亭里古墳群〉, 《考古歷史學志》 10, 1994.

46) 沈奉謹, 〈梁山北亭里古墳群〉, 《考古歷史學志》 10, 1994.

날길이에 비해 굽통의 길이가 2배 이상 될 정도로 굽통이 발달하였다. 망치, 집게, 철모루 등의 단야구와 함께 나왔다.

전체길이 23.2cm, 날너비 5.3cm, 날길이 7.5cm, 굽통길이 15.7cm, 무게 170.0g.

7) 부산

○ 학소대 I - 3호⁴⁷⁾

보고서 未刊으로 자세한 형상은 알 수 없으나 전형적인 살포의 형태이다.

전체길이 19.0cm, 날너비 7.0cm, 날길이 8.5cm, 굽통길이 10.5cm.

8) 김해

○ 대성동1호⁴⁸⁾

전체길이 19.2cm, 날너비 12.0cm, 날길이 7.2cm, 굽통길이 12.0cm.

○ 예안리39호⁴⁹⁾

심한 透化로 표면이 박리되거나 갈라진 것으로 날부분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날부분의 횡단면은 세장방형, 굽통부분의 횡단면은 원형이며 굽통내부에는 목질 혼이 조금 남아 있다.

전체길이 14.5cm, 날너비 5.3cm, 날길이 6.8cm, 굽통길이 7.7cm, 굽통지름 2.6×2.8cm, 무게 185.6g.

9) 합천

○ 옥전M1호⁵⁰⁾

2점 모두 피장자의 발치 왼쪽에서 출토되었다.

① 미늘쇠의 윗쪽에서 굽통의 일부가 결실된 채 발견되었다. 身部는 역사다리꼴 이고 굽통은 긴 원통형이며 철판의 단접부분은 벌어져 있다. 身部の 표면에는 布가 부분적으로 투착되어 있으며 전면적으로 옷칠을 했고 굽통 안에는 나무자

47) 釜山大博物館, 《先史와 古代의 文化》, 1996.

48) 李相憲, 〈金海大成洞古墳群第1次發掘調査報告〉, 《제14회 한국고고학대회발표요지문》, 1990.

49) 釜山大博物館, 《金海禮安里古墳群》I, 1985.

50) 慶尙大博物館, 《陝川玉田古墳群》III(M1・M2號墳), 1992.

루의 흔적이 있다.

전체길이 14.5cm, 날너비 6.7cm, 날길이 5.5cm, 굽통길이 9.0cm, 두께 0.5cm, 굽통지름 2.1cm.

② 마갑쪽에서 발견되었는데 반파되었다. 身部는 방형일 것으로 추정되며 굽통은 원통형이고 안에는 나무자루의 흔적이 남아 있다.

파손, 굽통지름 $2.2 \times 2.4\text{cm}$, 굽통길이 8.1cm.

○ 옥전M3호⁵¹⁾

쇠자루 살포이다. 피장자의 머리 오른쪽에서 異形有刺利器와 나란히 발견되었는데, 투화로 인하여 층상으로 갈라지며 극히 일부 결실되었다. 표면에는 3점의 小刀와 이형유자이기편이 투착되어 있었다.

身部는 얇은 철판(두께 0.3cm)으로 평면사다리꼴이며 날은 直刀이다. 자루는 단면 원형(지름 1.3cm)의 긴 철봉으로 만들었는데 신부 가까이는 두들겨서 단면 방형(지름 $1.4 \times 1.1\text{cm}$)이 되게 하였다. 손잡이의 끝은 8자와 같이 양쪽으로 원공이 하나씩 들어 있어서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의 제작방법은 녹이 두껍게 덮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로 볼 때에 일종의 의기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원래는 실용적인 농공구라 여겨진다.

전체길이 124.4cm, 날너비 5.5 - 10.5cm, 날길이 8.5cm, 굽통길이 115.9cm.

10) 창원

○ 가음정동3호⁵²⁾

쇠자루 살포이다. 동장벽에 가까이 자루부분은 1차 屍床의 자갈돌 밑에서 날부분은 2차 시상의 판석위에서 나타났다. 날부분에는 길이 5.2cm, 너비 3.3cm 정도의 장방형의 板으로 단조되었으며 자루부분의 끝은 2개의 가지로 나뉘어져 각각 안으로 말리듯이 굽어져 있다. 한쪽가지는 결실되었고 透化가 심하여 녹혹과 균열이 생겼다.

전체길이 83.0cm, 날너비 3.3cm, 날길이 5.2cm, 굽통길이 77.8cm, 날폭 0.9cm, 무게 203g.

51) 慶尙大博物館, 《陝川玉田古墳群》Ⅱ(M3號墳), 1990.

52) 昌原文化財研究所, 《昌原加音丁洞遺蹟》, 1994.

11) 고성

○ 연당리14호⁵³⁾

사다리꼴의 몸체에 긴 굽통이 연결되어 있고 날부분은 弧狀이다. 굽통은 양쪽을 접어서 말아 붙인 형태이며, 끝부분에는 자루를 고정시키기 위한 못이 옆으로 관통되어 있다. 굽통 윗부분의 단면은 말각사다리꼴이고 아래는 원형이다.

전체길이 15.8cm, 날너비 5.7cm, 날길이 6.9cm, 굽통길이 8.9cm, 굽통최대폭 2.7cm.

12) 임실

○ 금성리석곽묘⁵⁴⁾

날부분은 길이 7.8cm, 너비 6.5 - 7.5cm로서 아래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고 두께는 0.7cm로서 날부분뿐만 아니라 양옆에도 날이 서 있다. 나무자루를 끼웠던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길이 22.0cm, 날너비 7.5cm, 날길이 7.8cm, 굽통길이 14.2cm.

13) 청주

○ 신봉동90A - 4호⁵⁵⁾

무덤 구덩이 중앙부 도굴갱에서 출토되었다. 자루를 꽂는 부분은 철판을 양쪽에서 접어 만들었으며 단면은 타원형이다. 자루부분에서 날끝쪽으로 갈수록 점점 바라져 날쪽 부분에서 최대지름을 갖는다.

전체길이 18.5cm, 날너비 7.5cm, 날길이 7.1cm, 굽통길이 11.4cm, 굽통지름 1.9cm.

53) 慶南大博物館, 《固城蓮塘里古墳群》, 1994.

54) 全羅北道博物館, 〈任實 金城里石槨墓群〉, 《全北遺蹟調查報告》3, 1974.

55) 忠北大博物館, 〈清州新鳳洞A地區土壙墓群發掘調查報告〉, 《清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 1990年度調査》, 1990.

14) 논산

○ 표정리12호⁵⁶⁾

날길이에 비해 굽통의 길이가 3배 이상 될 정도로 굽통이 발달하였으나 5세기의 살포에 비해 실용성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네모나고 납작하게 생긴 身部에 원통형의 굽통이 달린 것으로 보고서에는 불명철기라고 하고 있으나 형태가 살포에 해당한다. 내부에 나무자루를 고정하기 위하여 박은 쇠못 2개가 남아 있다고 한다. 동벽에서 75cm, 남벽에서 80cm되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전체길이 21.2cm, 날너비 4.0cm, 날길이 4.8cm, 굽통길이 15.8cm, 굽통지름 3.1cm.

15) 천안

○ 화성리⁵⁷⁾

전체길이 16.5cm, 날너비 5.4cm, 날길이 4.8cm, 굽통길이 11.7cm, 두께 3mm, 굽통지름 1.2 - 1.9cm.

16) 부안

○ 죽막동⁵⁸⁾

나지구 남쪽 평탄면의 표토층에 흩어진 채로 출토되었다. 신부는 대부분 결실되었고 쇠자루부분이 남아 있다.
쇠자루길이 59.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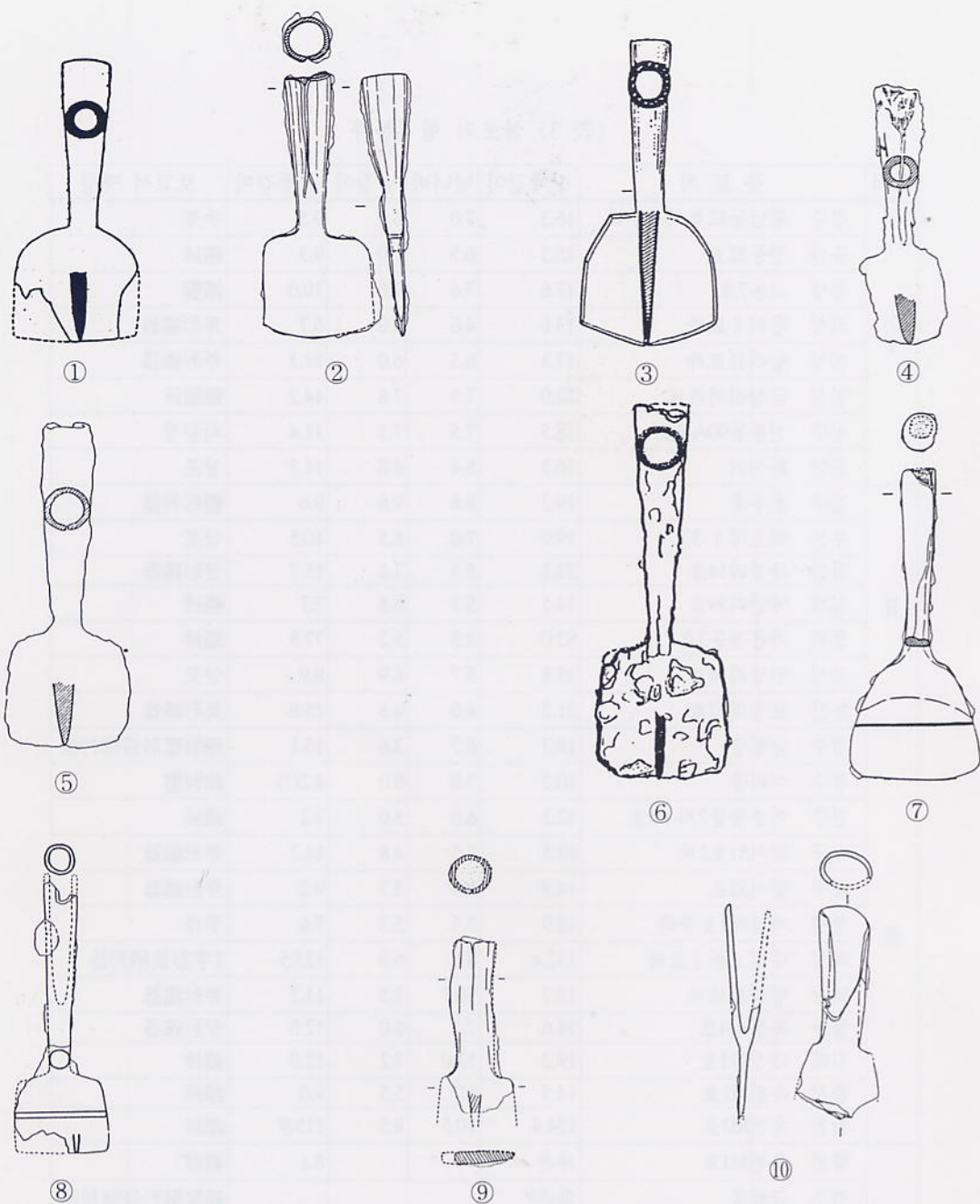
56) 尹武炳, 〈連山地方 百濟土器의 研究〉, 《百濟研究》 10, 1979.

57) 小田富士雄, 〈越州窯青磁를 伴出한 忠南의 百濟土器〉, 《百濟研究》 특집호, 1982.

58) 國立全州博物館, 《扶安竹幕洞祭祀遺蹟》, 1994.

〈表 3〉 살포의 형식분류

형식	출 토 지	전체길이	날너비	날길이	굽통길이	보고서 명칭
I	경주 황남동82호서총주곽	16.3	7.0	6.8	9.5	手斧
	울산 양동32호	15.3	6.5	6.0	9.3	鐵鋒
	창녕 교동7호	17.6	7.6	7.6	10.0	鐵鑿
	의성 탑리 I 묘곽	13.6	4.6	5.0	8.7	斧形鐵器
	의성 탑리 II 묘곽	17.3	6.5	6.0	11.3	斧形鐵器
	임실 금성리석곽묘	22.0	7.5	7.8	14.2	鐵製鉞
	청주 신봉동90A-4호	18.5	7.5	7.1	11.4	쇠갈창
	천안 화성리	16.5	5.4	4.8	11.7	살포
II	경주 호우총	19.2	8.8	9.6	9.6	鑿形利器
	부산 학소대 I-3호	19.0	7.0	8.5	10.5	살포
	양산 북정리14호	23.2	5.3	7.5	15.7	鉞形鐵器
	김해 예안리39호	14.5	5.3	6.8	7.7	鐵鋒
	창원 가음정동3호	83.0	3.3	5.2	77.8	鐵鋒
	고성 연당리14호	15.8	5.7	6.9	8.9	살포
	논산 표정리12호	21.2	4.0	4.8	15.8	異形鐵器
III	경주 금령총	18.7	6.7	3.6	15.1	鐵製鑿形袋穗利器
	경주 식리총	10.2	7.0	6.0	4.2(?)	鐵製鑿
	경주 미추왕릉7지구5호	12.2	6.0	5.0	7.2	鐵鋒
	대구 달서51호2곽	19.5	7.5	4.8	14.7	斧形鐵器
	대구 달서55호	14.9	6.9	5.7	9.2	斧形鐵器
	창녕 계남리1호주곽	12.9	7.5	5.3	7.6	手斧
	의성 대리고분 I 묘곽	132.4	8.0	6.9	125.5	T字形長柄利器
	의성 탑리 II 묘곽	18.7	10.7	7.5	11.2	斧形鐵器
	양산 북정리4호	18.6	7.1	6.0	12.6	鉞形鐵器
	김해 대성동1호	19.2	12.0	7.2	12.0	鐵插
	합천 옥전M1호	14.5	6.7	5.5	9.0	鐵鋒
	합천 옥전M3호	124.4	10.5	8.5	115.9	鐵鋒
	합천 옥전M1호	파손			8.1	鐵鋒
	경주 금령총	파손				鐵製鑿形袋穗利器
	창녕 계남리1호주곽	파손			8.0	手斧
	부안 죽막동	파손	파손	파손	59.8(파손)	鐵鉞



0 10cm

살포 I ① 황남동82호서총 ② 양동32호 ③ 교동7호 ④ 탑리 I 묘곽
 ⑤ 탑리 II 묘곽 ⑥ 금성리석곽묘 ⑦ 신봉동90A-4호 ⑧ 화성리
 살포파손 ⑨ 옥전M1호 ⑩ 계남리1호

도면 4. 살포 I · 살포파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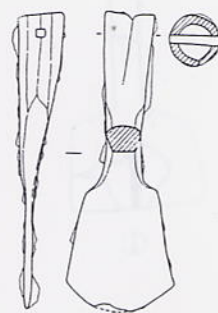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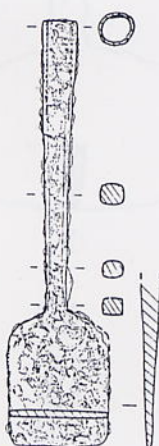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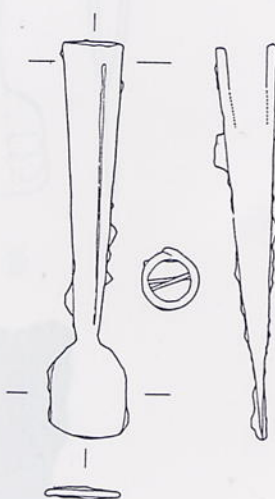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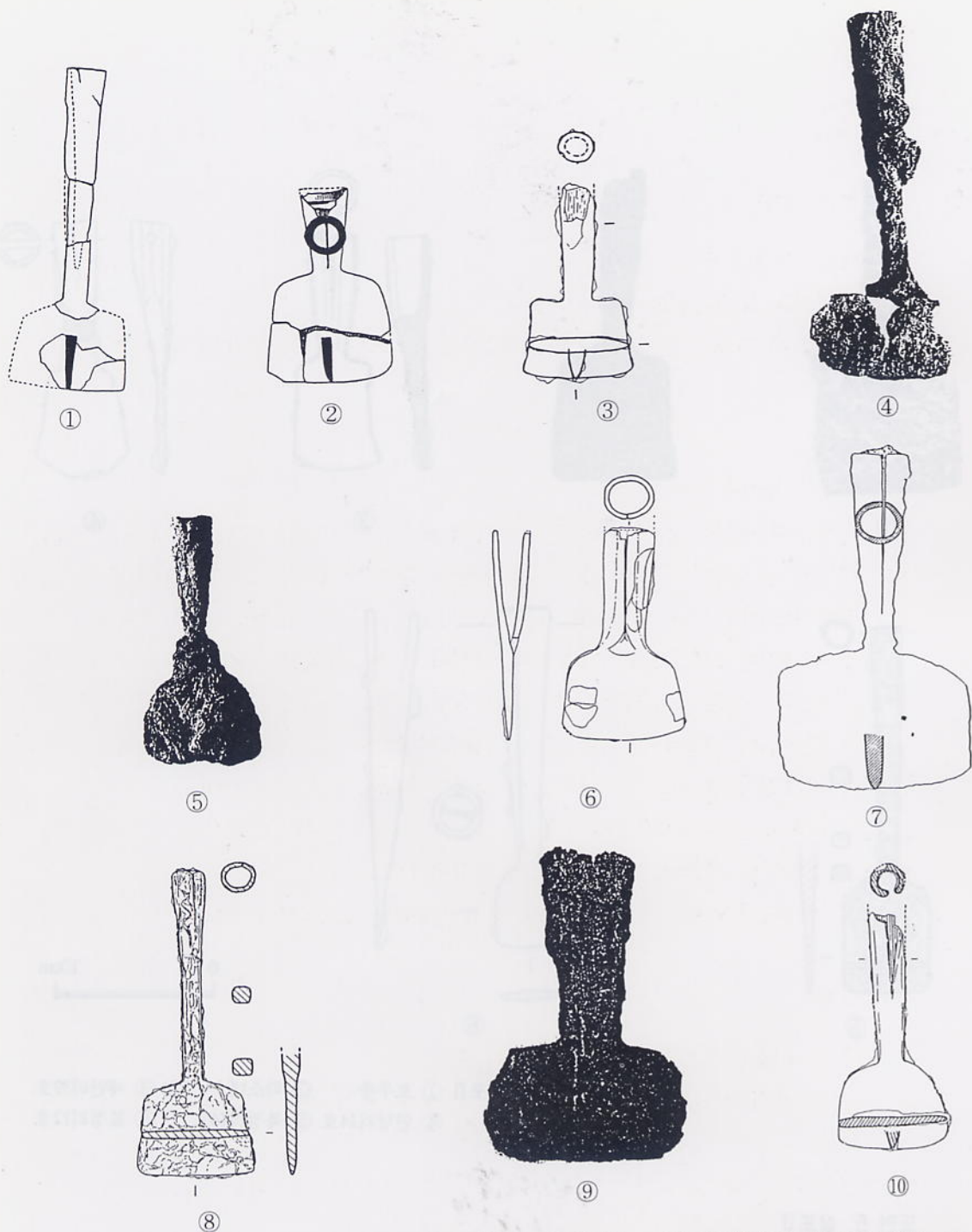


⑥

0 10cm

살포Ⅱ ① 호우총 ② 학소대 I - 3호 ③ 예안리39호
④ 연당리14호 ⑤ 북정리14호 ⑥ 표정리12호

도면 5. 살포Ⅱ



살포Ⅲ ① 금령총 ② 식리총 ③ 미추왕릉7지구5호 ④ 달서51-2곽
 ⑤ 달서55호 ⑥ 계남리1호 ⑦ 탐리Ⅱ묘곽 ⑧ 북정리4호
 ⑨ 대성동1호 ⑩ 옥전M1호

도면 6. 살포Ⅲ

(2) 鐵鋤

1) 吉林 集安

○ 東台子건물유적⁵⁹⁾

집안의 동대자건물지에서 나왔다.

전체길이 10.0cm, 날너비 7.0cm, 날길이 6.3cm, 굽통길이 3.7cm.

2) 서울

○ 구의동 방어유적⁶⁰⁾

신부의 양옆을 접어 단면 원형의 굽통을 만든 것으로 원보고서에는 철서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후 철기만을 모아 새로이 보고하면서는 철서라고 이름하고 기능상으로는 살포라고 하고 있다.

① 전체길이 13.7cm, 날너비 9.4cm, 날길이 9.2cm, 굽통길이 4.5cm.

② 전체길이 14.7cm, 날너비 8.5cm, 날길이 9.3cm, 굽통길이 5.4cm.

③ 전체길이 15.2cm, 날너비 10.3cm, 날길이 9.5cm, 굽통길이 5.7cm.

④ 전체길이 11.2cm, 날너비 7.1cm, 날길이 6.8cm, 굽통길이 4.4cm.

⑤ 전체길이 14.8cm, 날너비 10.6cm, 날길이 9.2cm, 굽통길이 5.5cm.

⑥ 전체길이 12.7cm, 날너비 8.2cm, 날길이 7.9cm, 굽통길이 4.8cm.

⑦ 전체길이 9.9cm, 날너비 6.5cm, 날길이 5.2cm, 굽통길이 4.7cm.

3) 경주

○ 황오리14호1부곽⁶¹⁾

날부분의 철판은 매우 얇고 굽통의 일부와 날의 일부에 布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길이 14.6cm, 날너비 9.3cm, 날길이 8.3cm, 굽통길이 6.3cm.

59) 吉林省博物館, 〈吉林集安高句麗建築遺跡의 考察〉, 《考古》 61 - 1, 1961.

60) 華陽地區遺蹟發掘調查團, 《華陽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 1977.

崔鍾澤, 〈九宜洞遺蹟出土 鐵器에 對하여〉, 《서울大學校博物館年報》 3, 1991.

61) 朝鮮總督府, 《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吾里第十四號墳調查報告》 昭和九年度古蹟調查報告, 1937.

○ 미추왕릉7지구3호⁶²⁾

2개가 발견되었다.

① 전체길이 11.5cm, 날너비 5.8cm, 날길이 7.5cm, 굽통길이 4.0cm.

② 전체길이 12.0cm, 날너비 4.9cm, 날길이 7.8cm, 굽통길이 4.2cm.

○ 미추왕릉9지구1묘곽⁶³⁾

피장자의 발치에서 출토되었으며 5mm 정도의 앞뒤가 편평한 鍛鐵板(4.5×8.5mm)의 짧은 한쪽을 안쪽으로 말아서 원형을 만들어 자루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부식이 심하여 날부분은 확실하지 않다.

전체길이 8.5cm, 날너비 4.5cm, 날길이 5.5cm, 굽통길이 3.0cm.

○ 미추왕릉9지구3묘곽⁶⁴⁾

장방형의 짧은 한쪽을 안으로 말아 원형의 굽통을 만들고 앞뒤가 편평한 얇은 단철판의 철서로서 피장자의 머리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전체길이 9.5cm, 날너비 5.0cm, 날길이 6.1cm, 굽통길이 3.4cm.

○ 인왕동19호F곽⁶⁵⁾

전체길이 12.0cm, 날너비 5.0cm, 날길이 8.0cm, 굽통길이 4.0cm.

○ 안압지⁶⁶⁾

모두 2점이 나왔다.

① J17구의 갯벌층에서 출토되었으며 부식이 심하고 일부 결실되었다. 단철을 사용하여 身部는 원형에 가깝고 날부분은 안으로 약간 접혀 있다. 자루를 끼우는 부분은 꺾어 접어서 원통상으로 했으며 긴 자루를 끼워서 사용하였을 것이다.

전체길이 25.0cm, 날너비 12.6cm, 날길이 17.3cm, 굽통길이 7.7cm, 굽통지름 4.8cm.

62)釜山大博物館,〈味鄒王陵第七地區古墳群發掘調查報告〉,《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書》二, 1980.

63)高麗大博物館,〈味鄒王陵地區第九區域(A號破壞古墳)發掘調查報告〉,《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書》一, 1975.

64)高麗大博物館,〈味鄒王陵地區第九區域(A號破壞古墳)發掘調查報告〉,《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書》一, 1975.

65)慶熙大博物館,《慶州仁旺洞(19·20號)古墳發掘調查報告》, 1974.

66)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雁鴨池》, 1978.

② 身部는 원형에 가깝고 날부분은 안으로 약간 접혀 있다. 자루를 끼우는 부분은 꺾어 접어서 원통상으로 했으며 긴 자루를 끼워서 사용하였을 것이다. 몸체는 완만한 곡선을 주어 날폭을 넓게 하였으나 날은 마모되어 무디어져 있다.

전체길이 18.7cm, 날너비 13.4cm, 날길이 11.9cm, 굽통길이 6.8cm, 굽통지름 3.6cm.

4) 부산

○ 복천동67호⁶⁷⁾

4세기 중엽 피장자의 허리부분에서 부장되었다. 身部는 크고 넓적하며 굽통의 길이는 신부의 1/2에 못 미칠 정도로 매우 짧고 단면은 타원형이나 날을 세우지 않았으며 두께는 날부분 2mm, 어깨부분 3mm로 날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얇아진다.

전체길이 14.8cm, 날너비 11.3cm, 날길이 10.4cm, 굽통길이 4.4cm, 무게 250g.

5) 창녕

○ 계남리1호주곽

동남벽의 철기군에서 나왔다. 출토된 철기중에서 가장 소형으로 날부분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신부의 평면은 횡장방형이고 날부분은 밖으로 만곡하고 있다. 굽통부분은 양쪽에서 말아 올린 관계로 타원형이고 하단부에는 자루를 고정시킬 때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길이 2.4cm, 지름 0.5cm의 못이 남아 있다.

전체길이 7.7cm, 날너비 5.0cm, 날길이 2.4cm, 굽통길이 5.3cm, 굽통지름 2.0×2.4cm, 무게 74.4g.

6) 김해

○ 예안리138호⁶⁸⁾

굽통부분에 목질흔이 남아 있다.

67) 安順天, 〈小形鐵製模型農工具 副葬의 意義 - 大伽耶古墳의 埋葬儀禮와 관련하여〉, 《嶺南考古學》 18, 1996.

68) 釜山大博物館, 《金海禮安里古墳群》 II, 1993.

전체길이 7.7cm, 날너비 6.2cm, 날길이 3.2cm, 굽통길이 4.5cm, 굽통지름 1.6cm, 무게 30.4g.

○ 예안리150호⁶⁹⁾

거의 동일한 폭의 철판을 접어서 굽통을 제작하였다. 굽통은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에는 목질의 흔적이 없다.

전체길이 20.9cm, 날너비 6.8cm, 날길이 15.0cm, 굽통길이 5.9cm, 굽통지름 1.8×1.9cm, 무게 82.0g.

7) 논산

○ 표정리13호⁷⁰⁾

황혈식석실분에서 발견된 단조제로서 보고서에서는 이형철기라고 하고 있다.

전체길이 13.4cm, 날너비 10.5cm, 날길이 8.1cm, 굽통길이 5.4cm, 굽통지름 2.2 - 2.7cm, 굽통두께 4mm.

8) 공주

○ 공산성⁷¹⁾

굽통은 자루를 끼울 수 있도록 말아 처리하였고 자루는 날과 수평으로 끼우게 되어 있다.

전체길이 24.5cm, 날너비 10.0cm, 날길이 21.0cm, 굽통길이 3.5cm, 두께 0.3cm, 굽통지름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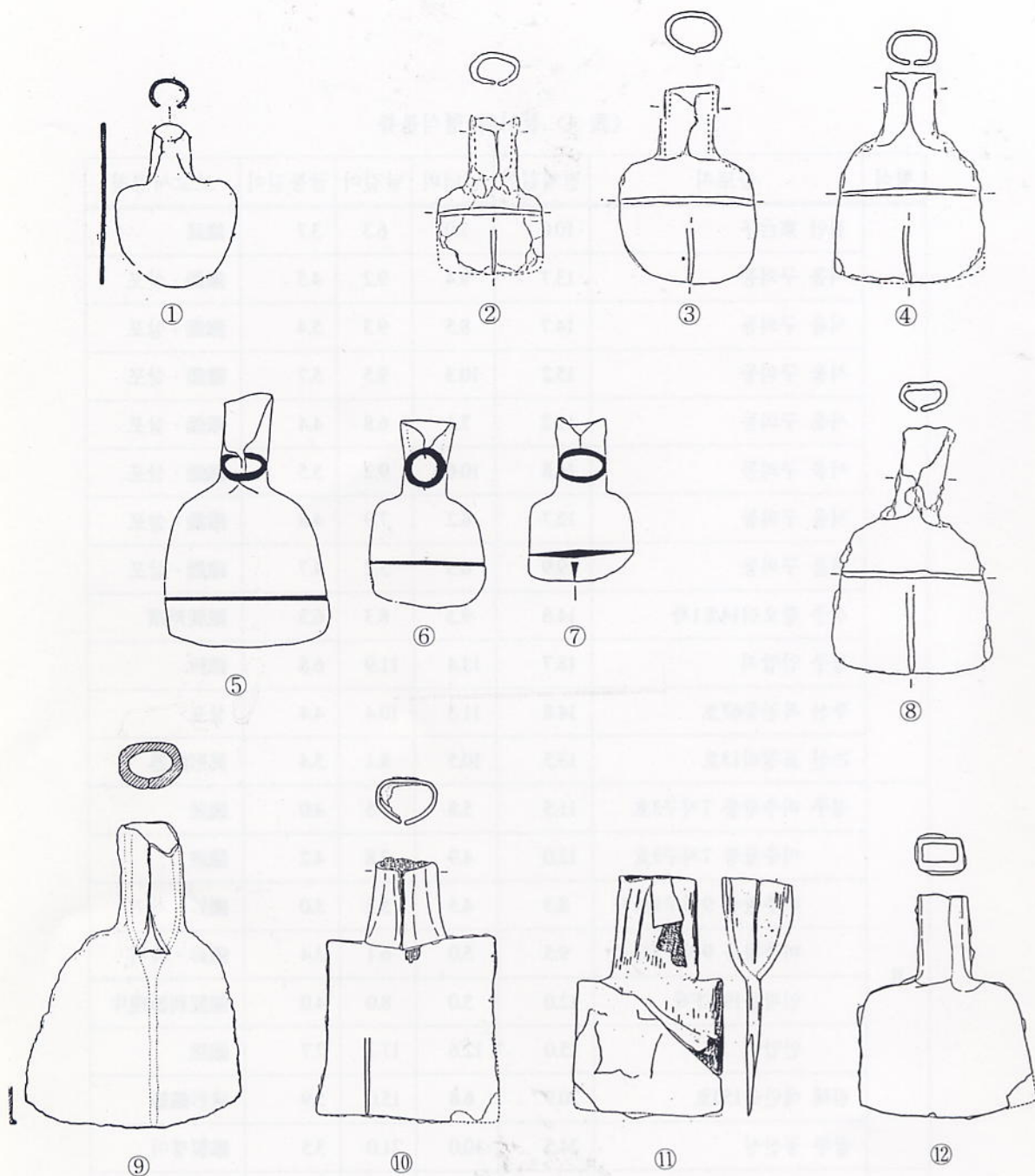
69)釜山大博物館,《金海禮安里古墳群》Ⅱ, 1993.

70)尹武炳,〈連山地方 百濟土器의 研究〉,《百濟研究》10, 1979.

71)公州大博物館,《公山城建物址》,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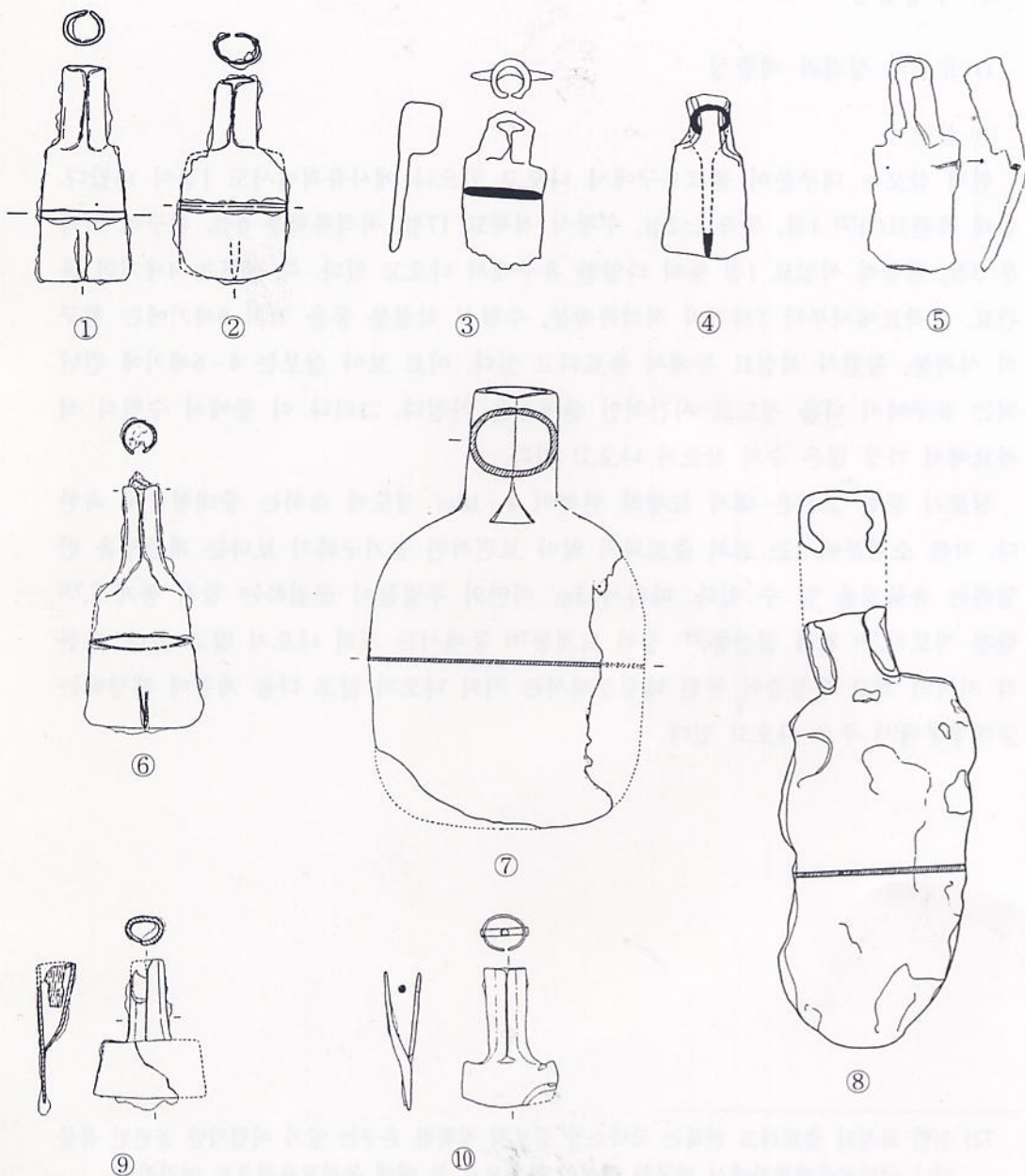
〈表 4〉 철서의 형식분류

형식	출토지	전체길이	날너비	날길이	굽통길이	보고서명칭
I	집안 東台子	10.0	7.0	6.3	3.7	鐵鏟
	서울 구의동	13.7	9.4	9.2	4.5	鐵鋤·살포
	서울 구의동	14.7	8.5	9.3	5.4	鐵鋤·살포
	서울 구의동	15.2	10.3	9.5	5.7	鐵鋤·살포
	서울 구의동	11.2	7.1	6.8	4.4	鐵鋤·살포
	서울 구의동	14.8	10.6	9.2	5.5	鐵鋤·살포
	서울 구의동	12.7	8.2	7.9	4.8	鐵鋤·살포
	서울 구의동	9.9	6.5	5.2	4.7	鐵鋤·살포
	경주 황오리14호1곽	14.6	9.3	8.3	6.3	鐵製斧頭
	경주 안압지	18.7	13.4	11.9	6.8	鐵鍬
	부산 북천동67호	14.8	11.3	10.4	4.4	살포
	논산 표정리13호	13.5	10.5	8.1	5.4	異形鐵器
II	경주 미추왕릉 7지구3호	11.5	5.8	7.5	4.0	鐵鏟
	미추왕릉 7지구3호	12.0	4.9	7.8	4.2	鐵鏟
	미추왕릉 9지구1묘곽	8.5	4.5	5.5	3.0	鐵鈇·자귀
	미추왕릉 9지구3묘곽	9.5	5.0	6.1	3.4	鐵鈇·자귀
	인왕동19호F곽	12.0	5.0	8.0	4.0	鐵製利器殘片
	안압지	25.0	12.6	17.3	7.7	鐵鍬
	김해 예안리150호	20.9	6.8	15.0	5.9	鏟形鐵器
	공주 공산성	24.5	10.0	21.0	3.5	鐵製戥이
III	창녕 계남리1호주곽	7.7	5.0	2.4	5.3	手斧
	김해 예안리138호	7.7	6.2	3.2	4.5	鐵鏟



철서 I ① 동대자 ②-⑧ 구의동 ⑨ 안압지
⑩ 복천동67호 ⑪ 황오리14호1곽 ⑫ 표정리13호

도면 7. 철서 I



0 10cm 철서Ⅱ ①② 미추왕릉7지구3호 ③ 미추왕릉9지구1묘곽 ④ 미추왕릉9지구3묘곽
 ⑤ 인왕동19호F곽 ⑥ 예안리150호 ⑦ 안압지 ⑧ 공산성
 철서Ⅲ ⑨ 예안리138호 ⑩ 계남리1호주곽

도면 8. 철서Ⅱ · 철서Ⅲ

4. 부장양상

1) 유구의 성격과 계층성

(ㄱ) 살포

현재 살포는 대부분이 분묘유구에서 나오고 있으나 제사유적에서도 1점이 나왔다. 현재 목관묘(?)⁷²⁾ 1점, 목곽묘 2점, 수혈식 석곽묘 17점, 적석목곽분 6점, 횡구식 석곽분 3점, 횡혈식 석실묘 1점 등의 다양한 유구에서 나오고 있다. 즉 살포는 4세기의 목관묘, 목곽묘에서부터 5세기의 적석목곽분, 수혈식 석실분 등을 거쳐 6세기에는 횡구식 석곽분, 횡혈식 석실묘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로 보아 살포는 4-6세기에 편년되는 유구에서 나올 정도로 시간적인 한정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중에서 수혈식 석곽묘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살포가 나오고 있다.

살포가 묻힌 고분은 대개 묘광의 면적이 4-10m² 정도에 속하는 중대형급에 속한다. 작은 소형분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아 보편적인 농기구라기 보다는 계층성을 반영하는 유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m² 미만의 무덤들이 군집하는 합천 봉계리,⁷³⁾ 합천 저포리,⁷⁴⁾ 김해 칠산동,⁷⁵⁾ 창원 도계동⁷⁶⁾ 등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최고 수장층이 묻힌 대형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다음 계층에 해당하는 중대형분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72) 천안 화성리 출토라고 전하는 국박소장 살포의 정확한 유구는 알기 어렵지만 공반된 유물이나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발굴한 화성리 목관묘로 볼 때에 목관묘유적으로 여겨진다.

73) 東亞大博物館, 《陝川鳳溪里古墳群》, 1986.

74) 釜山大博物館, 《陝川苧浦里E地區遺蹟調查報告》, 1987.

75) 慶星大博物館, 《金海七山古墳群》 I, 1989.

76) 昌原大博物館, 《昌原道溪洞古墳群》 I, 1987.

東義大博物館, 《昌原道溪洞古墳群》, 1996.

〈表 5〉 살포출토 유적일람표

번호	고 분 명	유구성격	규 모		공반 농공구
			길이	너비	
1	경주 금령총	積石木槨墳	480	350	鐵斧8 도자4 집게 가위
2	금령총	積石木槨墳	480	350	
3	식리총	積石木槨墳	5250	330	낮1 도자27
4	미추왕릉7지구5호	積石木槨墳	300 이상	150	낮1 철정8
5	호우총	積石木槨墳	420	140	철부4 도자6 착1
6	황남동82호서총주곽	積石木槨墳	310	100	철부2 낮1 착2
7	울산 양동32호	橫口式石槨墓	290	115	도자2
8	대구 달서51호2곽	豎穴式石槨墓	462	103	도자6 낮2
9	달서55호	豎穴式石槨墓	497	182	철부20 도자22 낮3
10	창녕 계남리1호주곽	豎穴式石槨墓	600	260	철부2 낮1 착1
11	창녕 계남리1호주곽	豎穴式石槨墓	600	260	
12	교동 7호	豎穴式石槨墓	?	?	낮(보고서 未刊)
13	의성 대리고분1묘곽	豎穴式石槨墓	497	184	도자1
14	탐리제1묘곽	豎穴式石槨墓	357	172	낮1 도자2
15	탐리제2묘곽	豎穴式石槨墓	390	150	도자3 착1
16	탐리제2묘곽	豎穴式石槨墓	390	150	
17	양산 북정리4호	橫口式石室墓	390	120	철부2 도자2 철탁2
18	북정리14호	橫口式石室墓	330	130	철부3 낮1 집게 망치 모루
19	부산 학소대 I - 3호	豎穴式石槨墓	?	?	보고서 未刊
20	김해 대성동1호	木槨墓	806	410	U자형철기2 낮3 끝51 도자6
21	예안리39호	豎穴式石槨墓	335	70	철부2 낮2 도자6 착1
22	창원 가음정동3호	橫穴式石室墓	257	183	도자6 낮1
23	합천 옥전M1호	豎穴式石槨墓	420	185	철부 낮 망치 집게
24	옥전M1호	豎穴式石槨墓	420	185	
25	옥전M3호	豎穴式石槨墓	520	270	
26	고성 연당리14호	豎穴式石槨墓	295	94	철부1 낮1 철착1
27	임실 금성리석곽묘	豎穴式石槨墓	?	?	철부5 낮3
28	청주 신봉동90A4호	木槨墓	270	116	
29	논산 표정리12호	橫穴式石室墓	265	130	철부1 도자3
30	천안 화성리	木棺墓(?)	?	?	철부1
31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L) 鐵鋤

철서는 분묘유적뿐만 아니라 생활유적인 건물지, 방어시설, 못 등에서도 나오고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건물지 2점, 방어시설 7점, 못 2점, 적석목곽분 6점, 목곽묘 3점, 수혈식 석곽묘 1점으로 총 21점이 출토되었다. 살포와는 달리 생활유적에서 11점이나 나와 50%를 넘고 있다. 이는 철서가 실생활용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철서가 출토된 분묘는 살포가 나온 분묘보다도 작은 2-6m² 정도의 중소형무덤에 해당한다. 이는 철서를 사용하는 계층이 살포와 관련된 계층보다도 한단계 낮다는 사실과 함께 철서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보아 살포와 철서는 사용이나 부장하는 계층의 성격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농기구와 비교할 때에 차이는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곧 살포와 철서를 사용하는 계층은 각 지역의 최고 지배층이나 하층의 농민층이라기 보다는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다. 이는 필자가 4-6세기 농업생산력의 주도적인 계층으로 설정한 호민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철제농기구의 사용에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기구를 도입하여 선진적인 농법을 농사에 이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살포와 철서가 출토되는 양상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아 새로운 농사법은 보급상의 제한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전의 개발과 이에 따른 제초의 필요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계속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表 6〉 철서출토 유적일람표

번호	고 분 명	유구 성격	규 모		공반 농공구
			길이	너비	
1	길림 집안 동대자	건물지			U자형철기1철부1
2	서울 구의동	방어시설			보습날4 U자형철기4 쇠스랑 2 철부4 斫2 닛4 도자3 착1
3					
4					
5					
6					
7					
8					
9	황오리14호1곽	積石木槨墳	440	240	철부6 닛3 도자11
10	안압지	池			
11	부산 복천동67호	木槨墓	?	?	보고서 未刊
12	논산 표정리13호	橫穴式石室墓	320	215	철부1
13	경주 미추왕릉7지구3호	積石木槨墳	206	90	닛2 철부1
14	경주 미추왕릉7지구3호	積石木槨墳	206	90	
15	경주 미추왕릉9지구1묘곽	積石木槨墳	280	103	닛1 철부1
16	경주 미추왕릉9지구3묘곽	積石木槨墳	290	105	끝1 도자1
17	인왕동19호F곽	積石木槨墳	350	180	도자6
18	안압지	池			
19	김해 예안리150호	木槨墓	421	218	닛1 철부1 도자2 착1
20	공주 공산성	건물지			U자형철기1 도자1
21	계남리1호주곽	豎穴式石槨墓	600	260	철부2 닛1 착1
22	김해 예안리138호	木槨墓	400	215	닛1 철부1

2) 부장위치

살포와 철서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한 철기여서 그러한지 기능에 대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출토위치에 위치에 대한 기술도 흔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 부장위치의 정형성을 추출하기 곤란하지만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발치, 허리, 머리부분에 골고루 부장하고 있다.

부장위치가 가진 의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쇠자루 살포의 부장위치이다. 쇠자루 살포는 옥전M3호와 대리고분에서 피장자가 생전에 누린 지위를 알려주고 있다. 이들 고분들은 모두 5세기 경에 축조된 것으로 이 지역의 수장급의 무덤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 지역의 수장으로 쇠살포를 짚고 수전농사를 장려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살포가 가진 의례적인 모습은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잘 알 수 있다. 전북 부안의 바닷가에 위치한 이 유적에서 출토된 쇠자루 살포는 제사의례에 사용된 살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6세기 이후에 살포는 벽의 한쪽으로 치우쳐 부장되고 있다. 창원 가음정동의 횡혈식석실분에서 나온 살포의 부장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쇠자루 살포는 부장된 무덤의 등급이나 부장위치에서 한단계 떨어지고 있다. 이는 살포가 아래 등급의 소유자에게까지 사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상징하는 의미가 그만큼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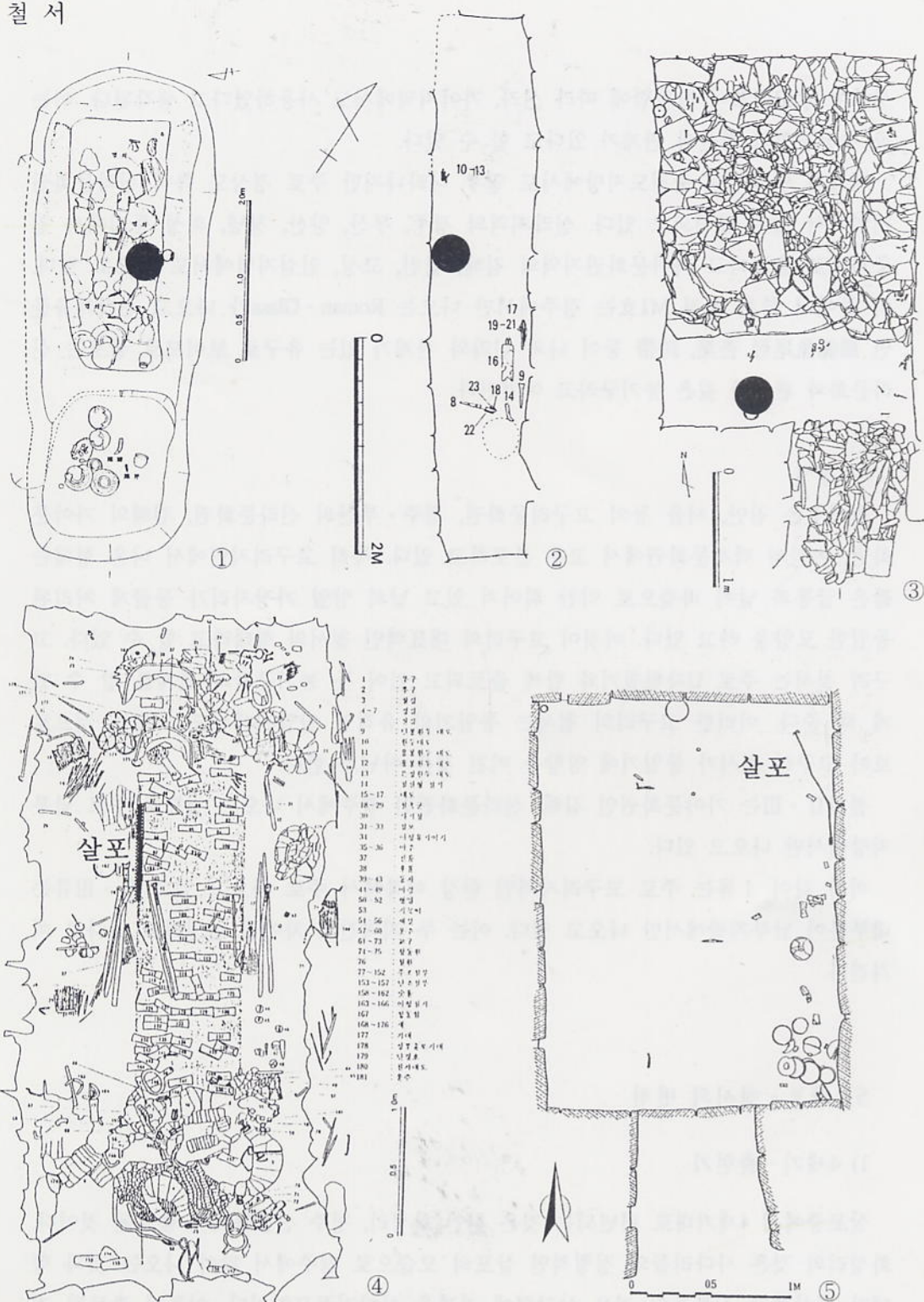
3) 분포권

(ㄱ) 살포

현재 살포가 확인되는 지역은 충청도의 천안·청주·논산, 전라도의 임실, 경북의 경주·대구·의성, 경남의 울산·창녕·부산·김해·합천·양산·고성으로 경상도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주로 충청도 이남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남부지방의 독특한 농기구로 여겨진다. 당시 이들 지역은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던 곳이며 고구려지역이던 한강이북의 유적에서 발견된 예는 아직 없다. 이는 살포가 수전이 많았던 남부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농기구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백제영역이었던 충청도지역의 천안 화성리, 청주 신봉동의 살포는 모두 4세기대로 경상도지역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다. 따라서 살포는 4세기대에 백제지역에서 발

철 서



도면 9. 부장위치

- ① 예안리138호 ② 연당리14호 ③ 표정리13호
④ 옥전M3호 ⑤ 가음정동3호 (철서 삭제)

생하여 水田農業이 발달함에 따라 신라, 가야지역에서도 사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곧 수전농업의 확산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제의 영역이던 충청도지방에서도 일부 나타나지만 주로 경상도 특히 신라문화권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신라지역의 경주, 부산, 양산, 창녕, 의성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가야문화권지역의 김해, 합천, 고성, 임실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 합천 옥전 M1호는 경주에서만 나오는 Roman - Glass가 나오고 신라계유물인 扁圓魚尾形 杏葉, 鈐帶 등이 나와 신라와 관계가 있는 유구로 보이므로 살포는 신라문화와 관계가 깊은 농기구라고 여겨진다.

(L) 철서

철서Ⅰ은 집안, 서울 등의 고구려문화권, 경주·부산의 신라문화권, 김해의 가야문화권, 논산의 백제문화권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지역에서 나온 형태는 짧은 굽통과 날이 바깥으로 약간 휘어져 있고 날의 양옆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된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철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철서는 주로 U자형철기와 함께 출토되고 있어 두 농기구간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고구려의 철서는 통일기의 유적인 안압지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철서가 통일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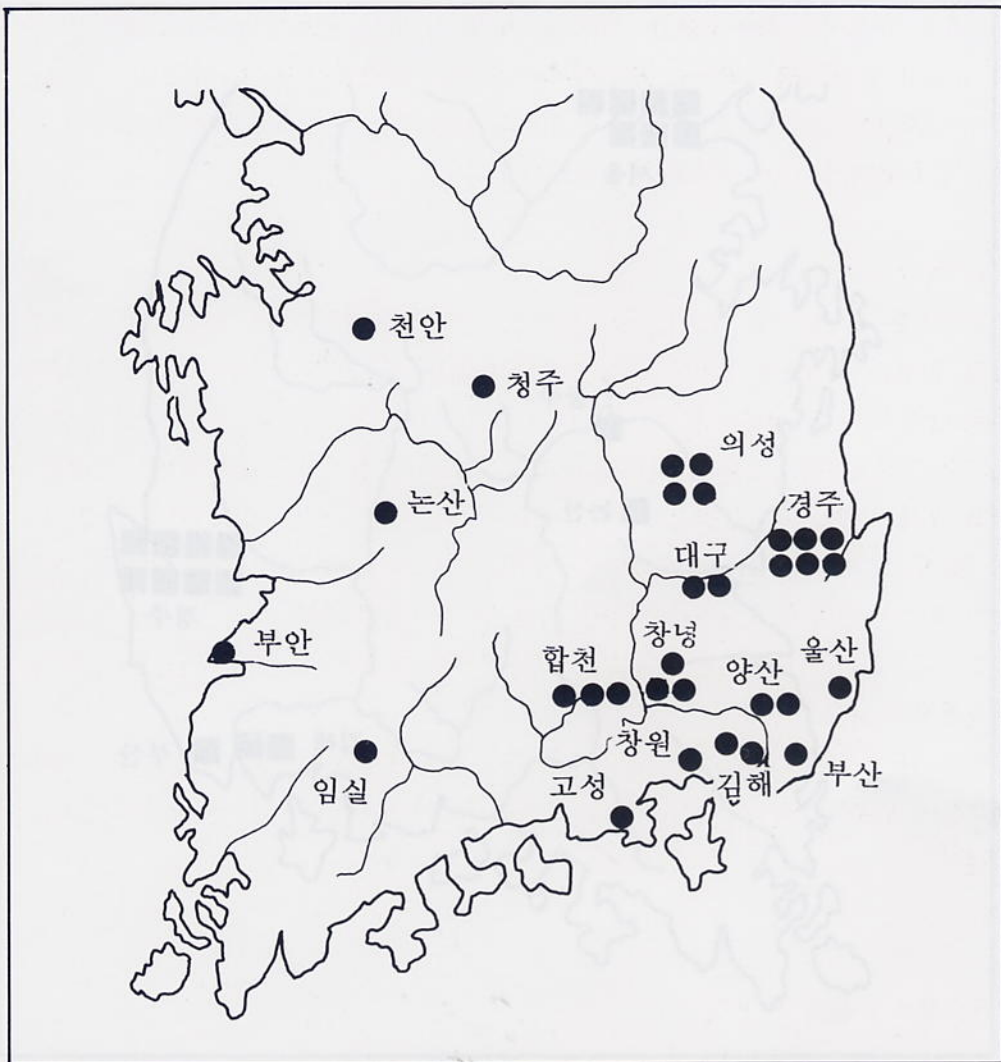
철서Ⅱ·Ⅲ는 가야문화권인 김해, 신라문화권인 경주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로 남부지방에서만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Ⅰ류는 주로 고구려지역인 한강 이북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 Ⅱ·Ⅲ류는 대부분이 남부지방에서만 나오고 있다. 이는 두 지역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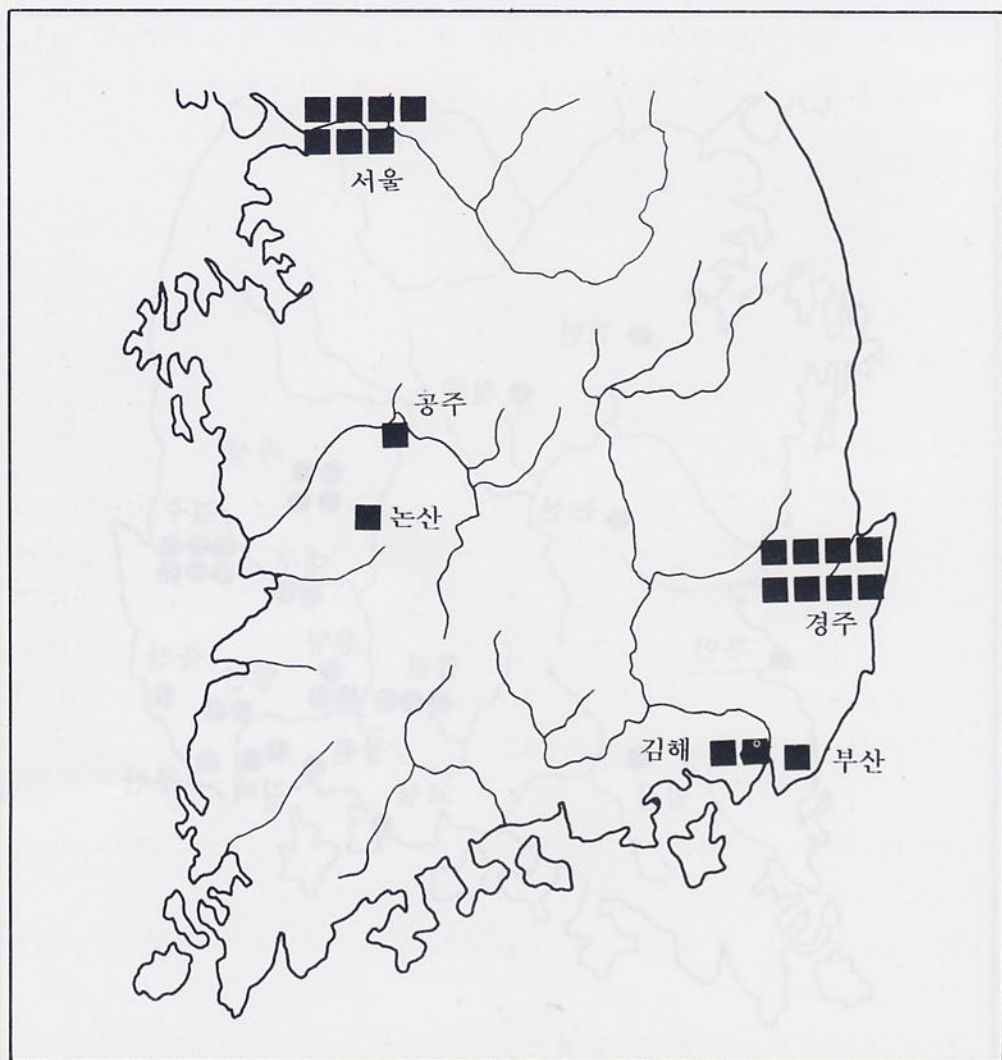
5. 살포·철서의 변천

1) 4세기 - 출현기

살포중에서 4세기대로 편년되는 것은 천안 화성리, 청주 신봉동에서 출토된 것이다. 화성리의 것은 사다리꼴의 정형적인 살포의 모습으로 경주에서 많이 나오는 것과 형태가 흡사하고 신봉동의 것은 삼각형에 가까운 사다리꼴모양이다. 이들이 출토된 지



도면 10. 살포 분포도



도면 11. 철서 분포도

역은 모두 백제문화권에 속하는 곳으로 살포의 초기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살포는 백제지역에서 발생하여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문화권으로 퍼져 나간 농기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수전의 확대와 관련있을 것이다.

철서로는 부산 복천동67호, 김해 예안리138호, 김해 예안리150호에서 나온 것이 있다. 철서중에서 발생기의 전형적인 모습은 복천동 67호의 철서 I 류와 예안리150호의 철서II류를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5세기대의 철서 I · II류가 생겼을 것이다.

2) 5세기에서 6세기 중엽 - 완성기

(ㄱ) 살포

경주 금령총 · 미추왕릉7지구5호 · 호우총 · 황남동82호서총주곽, 대구 달서51호2곽 · 달서55호, 창녕 계남리1호주곽 · 교동7호, 의성 대리고분 I 묘곽 · 탑리 I 묘곽 · 탑리 II 묘곽, 부산 학소대 I - 3호, 김해 대성동1호, 합천 옥전M1호, M3호, 임실 금성리석곽묘,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4세기 백제지역에서 출토되던 살포는 5세기이후 지역적 · 계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지역적으로 5 - 6세기 중엽에는 신라문화권인 경주, 대구, 창녕, 의성, 부산 등지와 가야문화권인 김해, 합천, 임실 등지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4세기에 비해 형태상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합천 옥전 M3호 · 의성 대리고분,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에서는 쇠자루살포가 발견되어 살포에 나무자루를 착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는 주로 중대형분에서 나오고 있다.

(ㄴ) 철서

집안 東台子, 서울 구의동, 경주 황오리14호1곽, 경주 미추왕릉 7지구3호 · 9지구1묘곽 · 9지구3묘곽 · 인왕동19호F곽

경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철서는 모두 4세기대의 철서 I · II류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집안과 서울에서 나온 고구려계의 철서는 4세기대의 철서 I · II류와는 별개로 고구려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고구려 철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통일기의 안압지에서 나온 철서로 연결되고 있다. 신라지역의 살포와 철서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집중하고 있다.

3) 6세기 중엽이후 - 발전기

(ㄱ) 살포

울산 양동32호, 양산 북정리4호·14호, 고성 연당리14호, 창원 가음정동3호, 논산 표정리12호.

이 시기 살포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날부분에 비해 굽통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날부분이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양산 북정리4·14호, 논산 표정리 12호의 살포이다. 특히 표정리 12호의 살포는 굽통에 비해 날이 극히 작아져 실용적인 농기구의 모습을 많이 잃고 있다. 이제 살포는 실용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제 작은 무덤에서도 출토되어 6세기 이후 살포가 계층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

(ㄴ) 철서

논산 표정리13호.

철서는 굽통에 비해 날부분이 발달하여 더 넓어지거나 길어지고 있다. 안압지에서 나온 철서 1류는 고구려계통의 철서와 비슷하다.

이와 같이 6세기에 살포와 철서는 계층적으로 확대되는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는 수전농업과 한전농업의 확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수전과 한전이 경지로 이용되는 모습은 '新羅 田甚良沃 水陸兼種(《隋書》新羅傳)'과 '白田畚(창녕 진흥왕척경비)'에서 잘 알 수 있다.

'수륙겸종'에 대하여는 논과 밭에서 모두 농사를 짓는다는 정도로 해석하기도 하고⁷⁷⁾ 한치윤의 견해를 받아들여 보리와 벼의 이모작(二毛作)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⁷⁸⁾ 또 한 패기의 땅에서 벼농사도 하며 밭농사도 한다고 하거나⁷⁹⁾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의 농지를 논과 밭으로 교대로 사용하는 회환농법(回換農法)으로 보아 이 시기의 일반민이 경작하는 논농사의 특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⁸⁰⁾ 이를 어떻게 해석하던지 수전과 한전농사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살포와 철서라고 할 수 있다.

77) 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세제의 연구 -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1991.

_____, 〈신라의 '水陸兼種' 농업에 대한 고찰〉, 《한국사연구》 94, 1996.

78)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1933 : 하일식 역, 《朝鮮社會經濟史》, 이론과 실천, 1994.

7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4, 1979.

80) 李仁在, 〈新羅 統一期 烟戶의 土地所有〉, 《東方學誌》 77·78·79合, 1993.

4) 통일기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살포의 출토예는 아직 없으나 실용구로서 널리 보급되었을 지도 모른다. 또는 현재의 자료만으로 살포는 4-6세기에 제한된 시기에 水田농업에 이용된 듯하며, 이후에는 U자형 철기나 가래 등에 의해 그 기능이 대신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비해 철서는 생활유적인 안압지와 공산성에서 출토되었다. 이전 시기에 비해 형태상으로 세련되면서 날부분이 발달하고 있다.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생활용구로서 자리를 잡은 듯하다. 또한 날이 넓직한 철서에서 날이 좁고 날카로운 호미[낮형 호미]가 등장하고 있다. 이 호미의 등장은 철서의 기능중에서 ‘中耕除草’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⁸¹⁾

6. 살포·철서 출현의 역사성

4세기 경에 살포와 철서가 출현하여 5-6세기를 거치면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농사기술상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할 수 있다. 이는 곧 수전·한전농업의 확산과 새로운 토지의 개발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삼국시대 초기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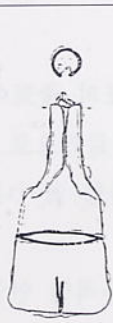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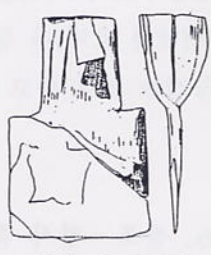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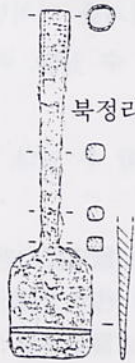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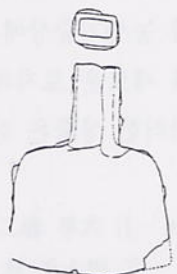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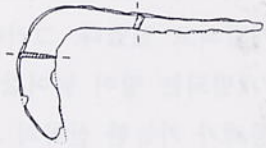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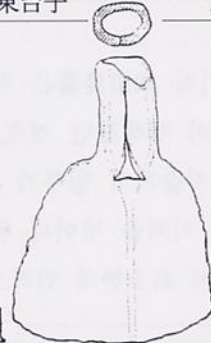
A-① 六年 春二月 下令國南州郡 始作稻田(《三國史記》권23, 多婁王 6年 : 33년)

② 四十年 秋七月 命有司 補水損之田 (윗책 권23, 己婁王 40 : 116년)

③ 九年 命國人 開稻田於南澤 (윗책 권24, 古爾王 9年 : 242년)

삼국시대 초기의 水田農業은 처음에 하천유역의 델타지역이나 소택지 등에서 별다른 수리시설 없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A-②, ③으로 보아 당시에 ‘澤’ 즉 소택지인 자연 저습지의 일부가 농경지로 개발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 인공적으로 개발되는 땅이 늘어갔다. 이런 곳에서 먼저 개발된 지역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물의 통제가 가능한 산곡의 계류 주변이었다.

81) 魏恩淑, 〈高麗時代 農業技術과 生産力研究〉, 《國史館論叢》 17, 1993.

	살 포	철 서		
4세기	 화성리	 신봉동90A - 4호	 예안리150호	 복천동67호
5-6세기	 황남동82호서총주곽	 옥전M1호	 구의동	 황오리14호1곽
6-7세기	 연당리14호	 북정리14호	 東台子	 표정리13호
통일기	 안압지	 안압지		



도면 12. 살포·철서의 변화

한편으로 별다른 구릉지대나 산간에서는 旱田農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B - ① 二十八年 夏七月 隕霜害麥(《三國史記》 권23, 溫祚王 28년 : 10년)

② 十四年 春三月 大旱 無麥 (윗책 권23, 己婁王 14년 : 90년)

③ 二十三年 秋八月 隕霜殺菽 (윗책 권23, 己婁王 23년 : 99년)

④ 十三年 夏 大旱 無麥 (윗책 권23, 古尔王 13년 : 246년)

1 - 3세기에 주로 보리 농사의 피해에 대한 기사가 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수전농업보다는 한전농업이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주로 보리를 심었고 국가에서는 보리를 세금으로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보리농사가 장려되었을 것이다. 당시 농사의 장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⁸²⁾

이러한 상황은 3 - 4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

C - ① 九年 春二月 命有司修堤防(《三國史記》 권24, 仇首王 9년 : 222년)

② 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 (윗책 권2, 訖解尼師今 21년 : 330년)

③ 己丑始築碧骨堤 周□萬七千二十六步 □□百六十六步 水田一萬四千七十□(《三國遺事》 권1, 乞解尼叱今 20년 : 330년)

④ 新築矢堤 岸長二千一百七十步 (《三國史記》 권3, 訥祗麻立干 13년 : 430년)

3 - 4세기이후가 되면 池와 堤堰에 대한 언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사료 B - ②, ③은 신라의 기록으로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벽골제가 위치한 김제 지역이 4세기 당시에 백제지역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기록으로 본다. 池는 흘러내리는 물을 가두어두는 수리시설이고 堤는 산간 계류를 막아두는 저수지로서, 자연적으로 고여 있는澤인 자연저습지와는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3 - 4세기에 삼국 중에서 남쪽의 백제와 신라에서는 이전의 자연저습지 뿐만 아니라 제언이나 池를 이용하여 새로운 토지를 개척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기 이후의 금석문이지만, 유명한 〈開仙寺石燈記〉에 渚畚과 奧畚이란 표현에 잘 나타난다. 여기에 나오는 渚畚은 川邊이나 소

82) ① 三十八年 春三月發使勸農桑 其以不急之事擾民者 皆除之(《三國史記》 권23, 溫祚王 38년 : 20년)

② 十四年 二月 王巡撫部落 務勸農事(윗책 권23, 溫祚王 14년)

③ 九年 春三月 下令勸農事(윗책 권24, 仇首王 9년 : 223년)

택지에 있는 토지, 奥畝는 산곡에 가까운 토지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기 이전부터 수전개발은 주로 오답 즉 산곡의 계류 주변에서 이루어졌고, 중고기 금석문에서는 영천 청제의 축조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산곡의 계류 주변은 적은 인력을 들이고도 물의 통제가 보다 용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람과 가뭄의 피해가 적어 농경에 보다 유리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전이 低地의 이용 가능한 자연 소택지에서 산곡의 계류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백제와 신라국가는 6세기대를 기점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D - ① 十年 春正月 下令完固堤防(《三國史記》 권26, 武寧王 10年 : 510년)

② 春三月 命有司修理堤防 (윗책 권4, 法興王 18年 : 531년)

D - ①의 기사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최초로 나타나는 기사이다. 이는 백제가 한강유역을 상실한 이후의 축소된 경제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기도 하였으나 신라의 예와 같이⁸³⁾ 새로운 토지의 개발에 수반하여 일어난 현상이었다. 즉 수리시설의 확충과 완비를 통하여 금강유역을 개발하여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수전농업의 증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농기구가 바로 살포이고 旱田에서 새로운 제초농법을 시도한 것이 철서라고 할 수 있다. 곧 살포와 철서는 4세기 이후 水田과 旱田에서 새로운 농사법이 시도되면서 등장하였던 농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살포와 철서가 가진 농기구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4세기 이후 새로이 나타나는 살포와 철서의 형식분류와 기능을 중심으로 4 - 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4 - 6세기는 사회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흐르던 시기로서 여러 가지의

83) 拙稿, 〈신라 중고기의 低濕地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 《韓國古代史論叢》 7, 1995.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철제농기구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관계를 잉태한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올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었다. 4세기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살포, 철서, 쇠스랑 등의 새로운 농기구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살포와 철서는 2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명칭상 살포, 鐵鋒, 鐵鑿, 手斧 등으로 부르거나 기능상 논에 물꼬를 대는 살포, 자귀에 해당하는 수부, 무기 등으로 분류하여 개념상 혼란을 주어 왔다.

그러나 살포와 철서는 형태나 기능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형태상으로는 ①날과 굽통의 길이, ②제작방법, ③날과 굽통의 형태, ④나무자루의 착장방법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상의 차이로 인하여 기능상으로도 구분 할 수 있다. 살포는 논에 물꼬를 대거나 고랑이나 이랑의 잡초를 전진하면서 미는 농구로서 주로 水田農事에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철서는 날의 끝이 넓고 크며 자루가 긴 長柄鋤로서 한전에서 흙을 복돋우거나 묘간을 긁어 제초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농구였다. 이러한 철서의 기능은 후대의 호미가 주로 ‘中耕除草’의 기능을 가진 短柄鋤라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농구가 서로 다른 계통의 농구로서 각기 발전하게 하였다. 살포는 주로 4 - 10m 정도의 중대형고분에 부장되었고 주로 수전농사지대인 남부지방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에 비해 철서는 살포보다 한 단계 낮은 2 - 6m 정도의 무덤에 부장되었고 旱田地帶인 북부지방에서도 사용되었다.

두 농구는 출토되는 시기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살포는 4세기에 출현하여 5세기에 많이 출토되다가 6세기 이후에는 보기 드문 농기구가 되었다. 이에 비해 철서는 4세기에 출현하여 통일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두 농구는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농기구였다. 4세기 이후 수전과 한전에서 새로운 농사법이 시도되면서 수전에서 살포가 사용되었고 한전에서는 새로운 제초기술에 철서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살포와 철서가 가진 역사적인 의의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살포와 철서의 형식분류와 기능을 중심으로 4 - 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므로 당시 전반적인 농업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자료를 축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朝鮮總督府,《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查報告》大正十三年度古蹟調查報告, 1932.
- 釜山大博物館,〈味鄒王陵第七地區古墳群發掘調查報告〉,《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書》二, 1980.
- 國立博物館,《壺杆塚斗 銀鈴塚》, 1948.
- 朝鮮總督府,《慶州皇南里第八十二號墳第八十三號墳調查報告》昭和六年度古蹟調查報告, 1935.
- 釜山大博物館,《蔚州良東發掘調查概報》, 1985.
- 朝鮮總督府,《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墳調查報告》大正十二年度古蹟調查報告, 1930.
- 嶺南大博物館,《昌寧桂城里古墳群 - 桂南1・4號墳》, 1991.
- 穴澤和光・馬目順一,〈昌寧校洞古墳群〉,《考古學雜誌》60 - 4, 1971.
- 金基雄,〈義城大里古墳發掘調查報告〉,《史學研究》20, 1968.
- 國立博物館,《義城塔里古墳》, 1962.
- 釜山大博物館,《先史와 古代의 文化》, 1996.
- 釜山大博物館,《金海禮安里古墳群》I, 1985.
- 李相憲,〈金海大成洞古墳群第1次發掘調查報告〉,《제14회 한국고고학회발표요지문》, 1990.
- 慶尙大博物館,《陝川玉田古墳群》II (M3號墳), 1990.
- 慶尙大博物館,《陝川玉田古墳群》III (M1・M2號墳), 1992.
- 沈奉謹,〈梁山北亭里古墳群〉,《考古歷史學志》10, 1994.
- 昌原文化財研究所,《昌原加音丁洞遺蹟》, 1994.
- 慶南大博物館,《固城蓮塘里古墳群》, 1994.
- 忠北大博物館,〈清州新鳳洞A地區土墳墓群發掘調查報告〉,《清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 1990年度調查》, 1990.
- 尹武炳,〈連山地方 百濟土器의 研究〉,《百濟研究》10, 1979.

- 小田富士雄,〈越州窯青磁을 伴出한 忠南의 百濟土器〉,《百濟研究》특집호, 1982.
- 全羅北道博物館,〈任實 金城里石槨墓群〉,《全北遺蹟調查報告》3, 1974.
- 國立全州博物館,《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1994
- 吉林省博物館,〈吉林集安高句麗建築遺跡的考察〉,《考古》61-1, 1961.
- 華陽地區遺蹟發掘調查團,《華陽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 1977.
- 崔鍾澤,〈九宜洞遺蹟出土 鐵器에 對하여〉,《서울大學校博物館年報》3, 1991.
- 朝鮮總督府,《慶州皇南里第百九號墳皇吾里第十四號墳調查報告》昭和九年度古蹟調查報告, 1937.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雁鴨池》, 1978.
- 釜山大博物館,《金海禮安里古墳群》II, 1993.
- 高麗大博物館,〈味鄒王陵地區第九區域(A號破壞古墳)發掘調查報告〉,《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書》一, 1975.
- 安順天,〈小形鐵製模型農工具 副葬의 意義 - 大伽耶古墳의 埋葬儀禮와 관련하여〉,《嶺南考古學》18, 1996.
- 公州大博物館,《公山城建物址》, 1992.
- 釜山大博物館,〈味鄒王陵地區第七區域發掘調查報告〉,《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書》二, 1980.
- 慶熙大博物館,《慶州仁旺洞(19・20號)古墳發掘調查報告》, 1974.

腰佩飾 連結金具의 製作技法과 地域差異

朴 普 鉉*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連結金具의 地域差異 |
| 2. 研究史的 檢討 | 5. 맺음말 |
| 3. 屬性의 先後關係와 多樣性 | |
| 1) 屬性의 共伴關係에서 본 先後關係 | |
| 2) 連結金具의 꼴과 分布에 보이는 多樣性 | |

1. 머리말

삼국시대의 허리띠는 잠금장치인 교구와 타미, 대¹⁾와 대를 장식하는 금구인 과판과 수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때로는 허리 이하를 장식하는 요패식²⁾을 갖춘 것도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방형으로 이루어진 과판은 대체로 과판 금구의 아래쪽에 종장방형의 혀를 방형 과판과 함께 오려 내어서 심엽형 수하식의 상단에 만들어진 횡장방형 현수공에 끼워서 둥글게 만 후, 한 개의 못으로 고정³⁾시키게 되어 있다.

* 大田保健專門大學 博物館科

- 1) 삼국시대의 대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지, 직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직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직물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98호북분의 은제 대금구는 마심을 견포로 짠 포대로 추정(朴永福, 〈裝身具類〉,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p.92)하고 있는 정도이다.帶有 직물로 만들어진 布일 경우에 대금구의 재질은 계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 2) 요패식을 요패와 패식으로 구분하고 요패는 대형이며 장규형 금판이 하단에 달린 것, 패식은 소형으로 지석, 침통 등 여러가지 물건을 상징하는 금구가 달린 것으로 구분하여 부르자는 제안(尹善姬, 〈三國時代 鈐帶의 起源과 變遷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1987, pp.3~5와 사진1 참조)도 있으나, 여기서는 대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은 단순히 허리 아래를 장식한다는 의미에서 요패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 3) 황남동110호분의 피장자 허리부분에서 발견된 금박투조의 방형과판과 심엽형 수하식은 각각 아래쪽과 위쪽에 각각 세장방형의 현수공을 만들어서(嶺南大學校博物館, 〈味鄒王陵地區 第10

반면에 요패식은 5~10개의 황타원형⁴⁾ 금속판들을 □꼴로 만든 금구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하고 윗쪽에는 현수용 고리를 붙여서 대에 걸 수 있도록 하고, 아래쪽에는 지석, 어, 곡옥, 족집게, 침통, 향낭, 장도와 같이 용도가 비교적 명확한 실물모형의 금속판과 단(양)각형, 규형, 통형 등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금속판⁵⁾들을 매달고 있다.

이러한 요패식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⁶⁾ 착장방법(도면1의 ①, ②)은 방형의 과관에 매달도록 한 것⁷⁾과 심엽형 수하식의 투조문에 단 것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은 매다는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경주지역에서 허리 이하를 장식하는 요패식을 갖춘 대금구의 발생은 현재까지의 예로 보아 황남동98호 남분부터로 판단⁹⁾된다. 98호 남분의 연

區域 皇南洞 第110號古墳 發掘調查報告》,《慶州地區 古墳發掘調查報告書》1, 1975. 12, p365, 도판 제17-①과 대북원실측도 참조) 종장방형의 판을 연결금구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신라지역의 대금구에서는 특이한 예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朴普鉉, 〈積石木槨墳文化地域의 帶金具 - 三葉文 透彫帶金具를 中心으로 -〉, 《古文化》38, 1991, 6, p.3, 주6) 참조)되었다.

4) 요패식의 타원형판을 낙랑칠기 가운데 양쪽에 손잡이를 가진 평면타원형의 기물인 耳杯가 있는데서 이배형판으로 부르고 있으나, 음식을 담는 도구가 장식물로의 전환과정에서는 논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추상적 용어(尹善姬, 앞의 논문, p.61)이며, 타원형판에는 짧은 변쪽에 연결판이 달려 있어서 짧은 변쪽에 손잡이가 달린 이배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히 그 형태에 의하여 명칭을 붙여 두기로 한다.

5) 尹善姬, 〈앞의 논문〉, p.67, 〈表16〉金製腰佩의 種類 참조.

6) 이러한 요소는 중국에는 남북조~수대에 걸쳐 胡服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대에 일시 제도화되었다가 폐지된 것으로 이해(尹善姬, 앞의 논문, p.23)되고 있어서 신라와는 일정한 시기차이를 보이고 있다.

7)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查報告書(圖版·圖面)》, 1993, 圖面 43의 ①과 44의 ②.

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 1993, 圖面 37.

9) 경주지역에서 비교적 빠른 무덤 가운데서 대금구를 부장한 황오동14호분, 황남동110호분 등에서는 요패식의 유무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황오동14호분1곽의 경우 短冊狀을 띠는 얇은 판으로 넓은 한쪽 끝에 3개의 못을 나란히 박고, 다른 끝에도 1개의 못을 박은 것을 銀製垂飾斷片으로 문장보고(朝鮮總督府, 〈後篇 皇吾里第十四號墳〉, 《1934年度古蹟調查報告》1, p.74, (七)銀製垂飾片)만하였으나, 帶先金具로 생각되어서 제외한다. 그리고 황남동110호분에서 발견된 지석은 머리말의 주부장군 토기속에서 발견(嶺南大學校博物館, 앞의 보고서, 앞의 책, 1975, p.305)되었기 때문에 요패식과 관련되는 자료는 아니다. 또한 월성로가 지구13호분은 북2호인의 허리에서 발치에 해당하는 곳에서 대도와 함께 두부에 은제장식이 씌워지고, 상단에 구멍이 뚫린 지석이 발견(慶州市·國立慶州博物館, 《慶州市月城路古墳群》, 1990, p.142, p.168)되어 패식의 존재는 상정되나, 대금구가 부장되지 않아서 대금구와 요패식을 갖춘 의장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형요패의 부장위치에 의하여

대는 여러가지안¹⁰⁾이 제시되어 있지만 부곽에 부장된 고배류 가운데는 신식의 토기¹¹⁾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부가구연 장경호를 공반하지는 않는 금관총, 식리총과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5세기의 말~6세기대의 초반 정도로 비정해 두고자 한다.

또한 심엽형 과판을 특징으로 하는 6세기대의 대금구¹²⁾와 방형과 말각오각형 과판을 특징으로 하는 7세기대의 대금구¹³⁾에는 요패식을 달기 위한 고리나 현수공은 마련되어 있으나(도면3의 ③, ④), 요패식의 보고예는 없다. 그런데 이들 대금구는 대체로 단각고배와 퇴화형식의 고배를 공반하고 있는데 경주지역에서는 황룡사폐토기문¹⁴⁾이 있다. 이는 생활면의 토기이기 때문에 황룡사가 창건되고 난 후의 일정한 시기인 6세기의 중기~말기의 한 시점¹⁵⁾으로 파악해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대관을 고려하면 신라지역에서 요패식의 성용은 아주 짧은 시기(50년?)동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研究史的 檢討

이러한 요패식에 대한 관심은 기마유목민 → 중국 → 우리나라¹⁶⁾라는 인식에서 북

요패식이 정형화되는 시점을 황남대총북분으로 설정하려는 안(尹善禧, 앞의 논문, pp.69~70)이 있으나 이는 부장의 정형화이지 발생학적 관점은 아니어서 따르지 않는다. 연도 또한 신라·가야의 대금구와 요패를 시원형(3세기후반)→전형적 양식 - 고식형(4세기) - 정제형(5세기)→발전적 양식(6세기)으로 나누고, 황남동C지구1호분→북사동1호분 - 양산부부총→금관총, 황남대총 등의 무덤을 해당시기에 소속(이은창, <삼국시대의 요대와 신>, <한국복식의 역사 - 고대편>, 197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326~342)시켰으나, 그 후 토기 등에 의한 경주지역 고분의 상대편년(早汝雅博, <新羅の土器編年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報> 54, 1979)에 의하면 발전적 양식으로 분류된 요패를 부장한 무덤들이 시원형~정제형을 부장한 무덤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고분으로 편년되어서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다.

- 10) 李鍾宣, <積石木郭墳의 編年에 대한 諸論議>, <韓國古代史論叢> 3, 1992, 積石木郭墳編年對比表 참조.
- 1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 1993, 圖面 141~146과 152~153.
- 12) 李漢祥, <六世紀代 新羅의 帶金具 - '樓巖里型' 帶金具의 設定 ->, <韓國考古學報> 35, 1996, 9.
- 13) 朴普鉉, <積石木郭墳文化地域의 帶金具>, <古文化> 38, 1991, p.40, 註) 28.
- 1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發掘調査報告書> 2, 1984.
- 15) 黃龍寺 강당지 동북편의 폐토기문에서 발견된 단각고배의 연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지만 황룡사가 창건되고 난 일정한 시점에서 생활용으로 이용되다가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 연대는 6세기중엽~후엽으로 비정(朴普鉉, <積石木郭墳文化의 斷絶과 社會變化>, <芝芭金甲周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1994, p.94)될 수 있다.

방기마족 → 중국 → 고구려 → 남쪽¹⁷⁾이라는 커다란 도식을 제시하면서 요패 발견의 초기에 나타났던 계통론적 인식¹⁸⁾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금구와 요패에 대한 계통론적 인식과 함께 시기적 변천상을 제시하려는 노력¹⁹⁾이 나타났으나 각 시기의 요패에 대한 구체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로는 이러한 인식조차도 지속되지 못하고²⁰⁾ 단순히 대형요패의 부장위치에 의한 성별판정 또는 장속문제로 옮겨가게 되었다. 예컨대 황남동98호분의 조사를 통하여 대형 요패의 위치가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²¹⁾든가 성별이나 신분, 또 다른 뜻의 존재 가능성²²⁾으로 유보했는데, 양산 북정리10호분의 남자시상과 여자시상에서는 대형 요패를 같은 곳에 부장²³⁾하고 있어서 여전히 문제로 남겨 두었다.

대형요패의 위치에 의한 피장자의 성 구분론에서 탈피하여, 대형요패의 각 타원형 판을 연결하는 연결금구에 착목하여, 우선 그 모양에 의하여 방형 소판식과 타원형 소판식으로 나누고 전자는 타원형판의 종·횡단면에 의하여 평탄한 것(A종)과 가운데가 오목한 것(B종)으로 세분하였다.

후자인 타원형 소판식은 따로 만든 혀 2매를 2개의 금속판 사이에 끼워서 12개의 못을 사용하여 고정시킨 것(A종), 따로 만든 혀 2매를 중앙 1개소에서 고정시킨 것(B종), 금판 상하에 혀를 달아 내어 한개의 못으로 고정시킨 것(C종)으로 세분하고 방형 소금판에서 타원형 소금판으로의 변천²⁴⁾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횡타원형 소판식의 A종은 천마총에서 발견된 은제품 1점 뿐이어서 하나의 형식으로 분류하는데는 의문의 여지를 남겼으며, 적석목곽분의 종말기에 가까운 호수총²⁵⁾에서는 여전히 방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점을 남겼다. 하지만 요패식에서 횡타원형 금판의 연결방법에 착목한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16) 金元龍, 〈三國時代墓制〉, 《改訂新版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77, p184.

17) 金元龍, 〈鈐帶〉, 《第三版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7, pp.238~239.

18) 朝鮮總督府, 〈慶州金冠塚と其遺寶(本文上冊)〉, 《古蹟調査特別報告》3, 1924, pp.122~168.

19) 이은창, 앞의 글, 《한국복식의 역사 - 고대 편》, 197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326~342.

20) 그 원인을 보고서에서 생략된 것 또는 복잡화의 우려를 표명(尹善禧, 앞의 논문, p.62)하고 있다.

21) 崔秉鉉, 〈遺物の 出土狀態〉,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8, p.70.

22) 金正基·金東賢, 〈考察〉, 앞의 보고서, 1985. 9, p.175.

23) 朝鮮總督府, 〈梁山夫婦塚と其遺物〉, 《古蹟調査特別報告》, 1926.

24) 毛利光俊彦, 〈新羅積石木槨墳考〉, 《文化財論叢 -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三十周年記念論文集 - 》, 同朋舍, 1983, pp.999~1006.

25) 國立博物館, 〈壺杆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1, 1948.

그 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형판은 경주 - 대구²⁶⁾ - 창녕, 소타원형판은 (경주) - 경산 - 양산이라는 도식을 만들면서 지역적 차이가 지적되었고, 요패의 착장위치는 피장자의 성과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서봉총, 98호북분과 천마총, 금관총, 의성 탑리고분2곽, 양산 북정리10호분의 대형요패 부장상태를 비교하면서 논증했다. 나아가서는 과대, 요패, 패식의 구성요소는 98호 북분 이후부터 정형화되고 있음을 지적²⁷⁾하였으나 자료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요패의 역사성은 사상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선 요패식에 필수적 요소인 연결금구에 나타나는 현수공과 못의 위치가 연결방법을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결금구의 제작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형식을 분류해 보고, 대형분에 보이는 속성의 공존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속성의 발생사적 관점에서 선후관계를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각 형식의 지역적 분포를 시기별로 정리함으로써 연결금구에 보이는 지역성에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금공품을 통한 적석목곽분시기의 사회상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면 다행이겠다.

3. 屬性의 先後關係와 多樣性

1) 屬性의 共伴關係에서 본 先後關係

대의 구성요소 가운데서 작은 방형 또는 횡타원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커다란 횡타원형의 금속판들이 서로 연결된 요패식은 5~6개 정도의 소형 횡타원형판으로 이루어진 수식 6 - 13조와 7~10개의 대형 횡타원형판으로 구성된 한 조의 수식이 세트를 이루어 대의 아래쪽을 꾸미고 있다. 현재까지도 전자는 소형 요패, 후자는 대형 요패로 불리어지고²⁸⁾ 있다. 하나의 요패에는 금제의 경우 반드시 한 조의 대형 요패와 수 조의 소형 요패를 세트로 장식하고 있으며 대·소형요패의 기본꼴은 현수공이 상하로 돌출된 횡타원형의 소판들로 구성된 점에서 요패식의 기본적 공통사항으로 분류된다.

26) 조사당시는 달성군 달서면 고분이었지만 현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당동, 비산동 일대 이므로 대구로 표기해 둔다.

27) 尹善禧, 앞의 논문, p.65.

28) 李鍾宣, 〈裝身具類〉,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p.89.

그런데 현수공이 만들어진 횡타원형의 중심판을 서로 연결하는데 사용된 연결금구는 (장)방형 또는 횡타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대형 요패에 사용된 연결금구의 제작기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종류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째로 서로 다른 금판을 $\square$ 꼴²⁹⁾로 2개 만들어서 상하에 종장방형의 혀가 오도록 배치시키면서 횡타원형의 현수공에 혀를 말아 끼우도록 연결금구를 만든 것과, 서로 다른 금판을 $\square$ 꼴로 2개 만들고, 다시 종장방형의 금판을 오려서 연결금구를 별도로 만든 것인데 2장의 판을 고정시키는데는 4~6개의 못을 사용하였다. 다음 두번째로는 금판을 $\square$ 꼴로 만든 후, 그 상하의 가장자리에 옆으로 세장방형의 현수공을 뚫고, 횡타원형의 상하에 만들어진 현수공과는 따로 만든 장방형판으로 연결시킨 예인데 1~2개의 못을 사용한 것에서부터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형 요패의 연결금구는 2개의 못을 사용한 것에서부터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예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판의 크기가 사용된 못의 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연결금구의 제작방법이 다른 것은 아니다. 곧 소형요패의 연결금구도 기본적으로 대형요패의 연결금구와 똑같은 기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³⁰⁾은 매우 높다. 다만 두개의 못을 사용할 경우 소형판 위에 못을 가로로 2개 배치시키는 방법과 세로로 두개 배치시키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연결금구의 속성 가운데서 시기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결판의 꼴³¹⁾과 제작방법³²⁾, 현수공의 유무에 따른 못의 유무, 못의 배치방법, 못의 수 등을 요패 제작에 보이는 속성으로 파악해 둔다.

29) 연결판은 횡타원형판도 존재하기 때문에 $\square$ 꼴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으나 여기서는 제작 기법을 우선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쪽의 꼴은 횡타원형을 의미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30) 다만 2개의 못을 사용한 소형요패의 연결금구는 못을 상하 수직으로 배치한 것과 좌우 수평으로 배치한 예가 있다. 또한 한개의 못을 사용한 것은 타원형판에 많이 보이는 기법인데 반드시 타원형판의 중앙에 못을 박고 있다.

31) 설명의 편의상 방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방형에 가까운 것과 장방형으로 된 두 종류가 있음을 황남동98호 남분의 은제 대형 요패에서 확인된다. 소형 요패도 장방형과 방형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후술하기로 한다.

32) 연결판이 1매의 판인지, 2매의 판인지, 3매의 판인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금제는 이러한 제작방법이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부식이 심한 은제는 이러한 점들이 명쾌하게 제시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들에 관해서는 자료의 축적을 통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못의 수와 배치방법을 주요 기준으로 설정했다.

〈表 1〉 속성의 공존관계

	가 군								나 군							
	1개	수2개	횡2개	4개	6개	8개	무	공	1개	수2개	횡2개	4개	6개	8개	무	공
98남분금제			○			○										
98남분은제			○			○										
98남분은제		○				○										
금관총금제		○				○										
교동12호은		○				○										
호우총도는						○										
내당51-2은						○										
경북대장은						○										
소창수집은						○										
소창수집은						○										
전창녕은						○										
탐리Ⅱ곽은						○										
국은수집은						○										
식리총은제						○										
금관총은제						○										
138호 은제						○										
98북분은제						○										
98남분금동		○														
98북분금제		○			○											
서봉총금제		○			○											
파괴분은제					○											
천마총은제					○											
교동89호은					○											
교동89금동					○											
98북분은제					○											
금관총은제					○											
금척1-A호								○								
4호분 은제								○								
비산34-1은								○								
내당55호은								○								
국은수집은									○							
북사리1은									○							
임당6-A은		○							○							
천마총금제		○							○							
금관총은제															○	
북정리남자		○													○	
금령총금제		○								○						
내당59금동										○						
전임당은									○	○						
북정리여자															○	

보기: 수는 못의 세로배치 횡은 못의 가로배치, ()안의 기호는 각 속성을 문자로 표시한 것임.

△의 속성은 세장방현 현수공을 뚫은 것임. B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임.

그런데 연결금구는 한 개의 요패에 대체로 두가지 정도의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형 요패의 연결금구에는 6개이상의 못을 사용하며, 소형요패에는 못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서 2개의 못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결금구에 사용된 못의 배치방법은 소형 패식의 연결금구에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 요패의 경우에는 못의 수와 그 배치방법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서 아래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앞의 <表 1> 과 같다.

<表 1>에서 볼 때 요패식의 연결금구는 (장)방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는 결쇠가 함께 만들어진 것과 장방형 상하변에 현수공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장방형과 횡타원형으로 구성된 것, 횡타원형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제작기법과 관련되는 못의 배치방법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패식 연결금구 속성의 공존관계를 도식적으로 보면 소방형판만으로 대소형요패를 연결하는 I 류, 소방형판과 타원형판을 세트로 사용하는 II 류, 타원형판만을 사용하는 III류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들은 일정한 시기차이³³⁾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한 개의 요패식에 사용된 연결금구는 대체로 2가지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고분에 따라서는 주곽의 유해부에는 반드시 한 벌을 착장³⁴⁾시키고, 주부장군에는 수벌의 요패식을 각각 부장하고 있다. 이 때 유해부에서 발견되는 것은 비교적 완전한 세트를 유지하지만, 주부장군에서 많이 발견되는 은제, 금동제의 것들은 부속품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들은 유해부의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속성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하나의 무덤에 복수세트의 요패를 부장한 경주지역 요패식을 고분별로 정리하면 <表 2>과 같다.

33) 지금까지 연결금구의 꼴이 (장)방형판에서 타원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毛利光俊彦, 앞의 논문, p.1004), 여기서는 대형요패와 소형요패의 연결금구는 하나의 요패에 반드시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횡타원형 연결금구의 발생사적 관점에서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요패 전체에 횡타원형의 연결금구를 사용한 요패는 현재까지 적석목곽분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 따라서 연결금구의 꼴이 시기적인 면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시기의 일정한 면을 나타낸다고 판단해 둔다.

34) 이러한 요패식을 갖춘 대금구의 착장이 염습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시신의 납관때에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대금구와 요패의 부장상태가 발굴조사시에는 앞뒤가 서로 뒤바뀌어서 출토(崔秉鉉, 앞의 글,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p.60)되기 때문에 망자의 염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2〉 경주지역 고분별 연결금구의 공반관계

	가 군								나 군							
	1개	수2개	횡2개	4개	6개	8개	무	공	1개	수2개	횡2개	4개	6개	8개	무	공
98남분		○	○			○										
98북분		○			○	○										
서봉총		○			○											
금관총		○			○	○									○	
천마총		○			○				○						○	
금령총		○								○						

여기서 보면 98호 남분³⁵⁾에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소형 횡장방형의 연결금구에 매우 이질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 유해부에서 발견된 횡으로 2개의 고정못을 사용한 금제(도면1의 ①)는 유사한 예가 현재 없다. 다만 주 부장군에서 발견된 은제는 금제를 모방한 것(도면1의 ③)과 못을 수직으로 2개 사용한 것(도면1의 ④)이 있다. 대형 요패의 연결금구는 금제와 은제(도면1의 ⑤) 사이에 연결금구의 꼴을 제외하면 커다란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98호 북분³⁶⁾에서는 대형 요패의 연결금구에서 두가지 양상이 보이고 있다. 곧 유해부의 금제(도면2의 ①)는 남분과는 다르게 4개의 못으로 허가 달린 판을 서로 붙이고 현수공에 허를 감아서 상하에 각각 한개씩의 못을 사용하여 6개의 못이 박혀 있다. 반면에 은제의 제작기법은 금제와 같은 것(도면2의 ②)과 98호 남분의 금제와 같이 우선 6개의 못으로 허가 달린 밑판을 고정시키고 현수공에 끼운 후 판의 상하에 1개씩의 못을 사용하여 모두 8개의 못을 사용한 것(도면2의 ③)이 있다. 98호 북분 금제와 같이 6개의 못을 사용하는 기법의 동일한 자료는 서봉총의 금제 요패에 보인다.

금관총³⁷⁾에는 4가지의 속성을 보이고 있는데 유해부의 것으로 보이는 금제는 98호 남분의 은제, 98호 북분의 금제와 같은 속성을 보이고 있지만 98호 북분의 은제, 서봉

35)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圖版·圖面)》, 1993.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本文)》, 1994.

36)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37) 朝鮮總督府, 〈慶州金冠塚和其遺寶(本文上冊)〉, 《古蹟調査特別報告》3, 1924.

朝鮮總督府, 〈慶州金冠塚和其遺寶(圖版上冊)〉, 《古蹟調査特別報告》3, 1924.

朝鮮總督府, 〈慶州金冠塚和其遺寶(圖版下冊)〉, 《古蹟調査特別報告》3, 1927.

濱田青陵, 《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1932.

총의 금제에 보이는 6개의 못을 사용한 은제품이 대형 요패에 나타나며, 특별한 것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횡타원형의 연결금구(도면3의 ①)가 1조 확인된다는 점이다. 98호분에서는 연결금구로 소형 (장)방형판만이 사용되는데 비하여 금관총에서는 횡타원형판이 연결금구로 사용된 점이 새로운 요소로 보인다.

천마총³⁸⁾과 금령총³⁹⁾의 공반관계를 보면 대형 요패는 횡타원형 연결금구를 사용하고, 소형 요패에는 방형판 연결금구를 사용한 점에서 두 고분은 공통성을 보인다. 그러나 천마총의 주 부장군에서 발견된 은제는 6개의 못을 사용한 연결금구가 존재하는 점에서 금관총의 은제, 98호북분의 은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함께 보이고 있다. 또한 금제 횡타원형 연결금구를 보면 못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금관총의 은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반면에 금령총의 금제 횡타원형 연결금구는 상하에 각각 못을 한개씩 박은 것으로 경주지역에서는 예가 없다.

이상에서 본 경주지역 대형분에 보이는 요패의 연결금구에 나타나는 양상은 98호 남분 은제, 98호 북분 금제, 금관총 금제로 이어지는 제작방법과 98호 북분 은제, 서봉총 금제, 금관총 은제, 천마총 은제로 이어지는 제작방법, 금관총 은제, 천마총, 금령총으로 이어지는 제작방법의 세개로 축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인 면과 제작법의 두요소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의 발생사적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곧, 98호 남분의 금제 요패가 만들어진 시기는 경주지역에서 요패 제작의 과도기⁴⁰⁾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98호 남분의 유해부에 부장된 금제가 새로운 형식의 것이라면 이를 만들었을 공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속성의 연결금구에 의한 요패식을 제작하였을 것인데 98호 남분 이후의 무덤에서 발견된 요패식에는 동일기법의 연결금구가 발견된 적이 없다. 동시에 98호 남분 이전의 무덤에서는 요패식이 세트를 이루는 예도 조사된 바 없다.

따라서 98호 남분의 부장군에서 발견된 8개의 못을 사용한 대형 요패 연결금구와 상하수직으로 2개의 못을 사용한 소형 요패 연결금구를 가진 은제 요패가 만들어지는

3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天馬塚 發掘調査報告書》, 1974.

39) 朝鮮總督府,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1924年度古蹟調査報告》, 1932.

40) 신라요패의 제작에서 과도기로 설정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98호 남분의 금제와 같은 연결판의 제작기법이 어디서 온 것인지가 당연히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관련자료가 없다. 또한 이러한 요패가 경주지역에서 제작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시점⁴¹⁾이 하나의 획기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98호 복분의 금제 요패나 금관총의 금제 요패, 금관총 은제 요패, 호우총 은제 요패 등의 연결금구 제작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획기는 98호 복분의 은제 요패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다. 곧 제작과정에 있어서 혀를 단 두 개의 금판을 서로 반대로 한판의 혀는 위로 다른 한판의 혀는 아래로 가도록 겹쳐서 고정시키는데, 이 때 사용하는 못의 수를 8개에서 6개로 줄여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제2의 획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금관총 은제, 천마총 은제, 서봉총 금제의 연결금구에서 확인된다.

세번째의 획기는 금관총의 은제 요패에 사용된 횡타원형 연결금구가 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발생기로 설정될 수 있다. 금관총의 금제는 이미 앞 시기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제작되었지만 타원형 연결금구를 갖춘 은제 1점은 요패의 형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끝은 천마총 금제 요패의 제작으로 이어지면서 상식적으로는 보편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⁴²⁾이다.

네번째의 획기는 대소형 요패의 연결금구를 모두 횡타원형으로 제작하는 방법인데 경주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예가 없고 다만 경주의 주변지역인 경산과 양산지역에서 비교적 완전한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부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상 요패식에 사용된 연결금구의 상대서열에서 주목되는 두가지 현상은 유해부에 부장된 요패보다는 주 부장군에 부장된 요패가 더 새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획기를 뛰어 넘어서 빠른 시기부터 적석목곽분이 소멸하는 시기까지 두 종류의 속성, 예컨대 8개의 못을 사용하는 방법과 6개의 못을 사용하는 방법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 連結金具의 꼴과 分布에 보이는 多様性

현재 완전한 요패가 남아 있는 예는 경주지방의 금제 뿐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패를

41) 은제요패의 경우 연결금구의 꼴이 방형과 장방형의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어서 서로 간의 세트 관계는 분명하지 않아서 일단 통괄적으로 서술해 둔다.

42) 요패가 발견된 경주지역 무덤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로 볼 수 있는 호우총의 경우 유해부의 요패는 형태를 알 수 없어서 유감이지만 주 부장군의 것은 방형연결금구를 부착하고 있는 점에서 요패 제작에 있어서 시기를 뛰어 넘는 무언가의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부장한 황남동98호 남분의 금제 대금구를 보기로 하자. 금제 대형 요패⁴³⁾는 2매의凸자형판을 돌출부가 상하로 오도록 겹치면서 장방형으로 만들어진 판의 가장자리 좌우에 세로로 3개씩의 못으로 연결판을 만들고 상하로 만들어진 걸쇠를 타원형판의 현수공에 감고 현수공에서 빠져나온 걸쇠를 중간판 사이에 밀어 넣어서 상하 수직으로 두개의 못을 이용하여 연결시켰다. 그래서 연결금구의 표면에는 모두 8개의 못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크기나 재질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기법으로 판단된다. 은제 요패는 금제요패와 같이 장방형판을 사용한 것⁴⁴⁾과 방형의 판을 사용한 것⁴⁵⁾이 공존하고 있다.

금제 소형 횡장방형 연결금구와 은제 소형 연결금구 가운데 일부⁴⁶⁾도 대형 연결판과 똑같이 2개의 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⁴⁷⁾되는데 98호 남분에서만 이러한 제작 기법이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런데 98호 남분 은제 요패의 대부분⁴⁸⁾은 소형의 방형 금판 2매를 2개의 못을 상하로 고정시켜 횡타원형의 판들을 세로로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서 98호 남분의 요패를 기준으로 보면 유해부에 놓여진 금제 1벌은 한꺼번에 제작되어 피장자의 유해부에 놓여진 것이 분명한데 목관내나 수장부에 부장된 은제 요패는 부장을 위하여 제작되었다기 보다는 의식의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98호남분에는 대형과 소형 요패식의 연결금구에 의하여 두벌 이상의 서로 다른 요패가 부장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형요패 2점, 소형요패 7점이어서 이들이 서로 어떻게 조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같이 금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은제 대형 요패 1조와 소형 요패 2조

43)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 1993, 도면 37.

44) 李鍾宣, 앞의 보고문, 앞의 보고서(본문), 1994, p.93과 앞의 보고서(도판·도면), 1993, 도면 46의 오른쪽 요패.

45) 李鍾宣, 앞의 보고문, 앞의 보고서(본문), 1994, p.93과 앞의 보고서(도판·도면), 1993, 도면 46의 왼쪽 요패.

46) 李鍾宣, 앞의 보고문, p.93.

47) 이 소형 요패의 연결금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李鍾宣, 앞의 보고문, 앞의 보고서(본문), 1994, pp.89~90) 은제소형 요패식에 못을 가로로 두개 배치한 것(李鍾宣, 앞의 보고문, 앞의 책(본문), pp.89~90, 앞의 책(도판·도면), 1993, 도면 43의 ①, 도면 45의 ②)이 있어서 금제도 은제와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48) 李鍾宣, 앞의 보고문, 《皇南大塚南墳發掘調査報告書(圖版·圖面)》, 1993, 圖面45의 ⑥, ⑦, ⑧, ⑨.

가 있으며 또 다른 1종류는 수직으로 못을 박은 4줄의 소형 요패와 방형판을 사용한 1조의 대형 요패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직으로 두개의 못을 박은 것과 8개의 못을 박은 방형판의 연결금구를 하나의 세트로 간주하여 이를 98호 남분 은제식으로 하고, 수평못과 장방형 연결금구를 특징으로 하는 금제는 98호 남분 금제식으로 설정해 두기로 한다.

98호 남분에서 출토된 방형 연결금구를 가진 은제식의 대형 요패는 금관총출토 은제 요패⁴⁹⁾, 창녕교동 12호분출토 은제⁵⁰⁾, 전 창녕출토 은제⁵¹⁾, 호우총 주 부장군출토 은제품⁵²⁾, 식리총출토 은제⁵³⁾, 경북대박물관장 은제⁵⁴⁾, 소창수집 은제⁵⁵⁾, 국은수집 은제⁵⁶⁾, 138호분출토 은제⁵⁷⁾의 요패가 있어서 연결금구 제작기법의 공통성을 보인다.

그런데 8개의 못을 사용한 점에서는 98호 남분 은제식과 동일하지만 연결판이 98호 남분의 금제와 같이 장방형인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제작기법은 대구 내당동51호분 2곽출토 은제⁵⁸⁾, 의성탑리 II곽출토 은제⁵⁹⁾, 금관총출토 금제⁶⁰⁾, 98호 북분출토 은제⁶¹⁾, 국은수집 은제⁶²⁾ 등에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과는 다르게 98호 북분 금제식은 대형 요패의 연결금구를 만들

49) 朝鮮總督府, 앞의 보고문, 《古蹟調査特別報告》3, 1924, p.156, 第42圖의 (イ), (ロ).

50) 穴澤咏光・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 - 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 -〉, 《考古學雜誌》60-4, 1975, p.55 제36도, 제38도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1984, pp.17, 26 은제허리띠 및 허리띠드리개, pp.59, 90 은제허리띠 및 허리띠드리개 가운데 드리개 5조만 교동12호 출토품임.

51) 穴澤咏光・馬目順一, 앞의 논문, p37, 제9도의 1.

52) 國立博物館, 앞의 보고서,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1, 1948, 圖版 第26의 (1).

53) 朝鮮總督府, 앞의 보고문, 《1929年度古蹟調査報告》, 1932, pp.2, 20, 第78圖.

54)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도록》, 1988, pp.140, 126. 은제과대요패.

55) 東京國立博物館, 《寄贈 小倉コレクション目録》, 1982, pp.206, 202 銀製腰佩와 203 銀製腰佩殘缺.

56) 國立慶州博物館, 《菊隱 李養瑨 蒐集文化財》, 1987, pp.110, 168 은제요패.

57) 金元龍, 〈138號墳調査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2, 1955, 圖版 31의 a.

58) 朝鮮總督府, 〈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1923年度古蹟調査報告》1, 1931, 圖版 77의 ④.

59) 國立博物館, 〈義城塔里古墳〉,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3, 1962, p.39, 第6圖.

60) 朝鮮總督府, 앞의 보고서, 第39圖의 (1).

61) 李鍾宣, 앞의 보고문,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圖版・圖面)》, 1993, 圖面16의 오른쪽 요패. 이 유물은 8개의 못을 사용한 장방형 연결판인 점은 동일하지만 결쇠를 따로 만들어서 2매의 장방형판 사이에 끼워서 고정시킨 점에서 세부적인 제작 기법은 매우 다르다.

62)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책, pp.110, 168 銀製腰佩裝飾과 圖面 70의 ②.

때, 2매의 장방형판과 결쇠로 이용할 2매의 세장방형판을 따로 만들어서 우선 횡타원형의 상하에 마련된 현수공에 세장방형판을 끼워서 둥글게 만든 후, 결쇠의 앞뒤로 장방형판을 대고 6개의 못으로 고정⁶³⁾시켰다. 소형 요패의 연결금구는 상하로 허를 낸 금판 1매를 사용한 점(도면2의 ①, ③)에서 98호 남분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세부적인 기법을 일단 무시하고 6개의 못을 사용한 장방형 연결판식인 98호 북분 금제식에 속하는 것은 서봉총출토 금제⁶⁴⁾, 155호분 은제⁶⁵⁾, 창녕 교동89호분 은제⁶⁶⁾, 금관총출토 은제⁶⁷⁾가 있으며, 못 수는 6개로 서로 같지만 연결판이 방형인 것으로 황남동과괴고분 2곽출토 은제⁶⁸⁾, 창녕 교동89호분출토 금동제⁶⁹⁾, 98호 북분출토 은제⁷⁰⁾가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98호북분의 대형 금제 요패와 155호분의 은제 대형 요패의 연결금구는 기본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연결판과 결쇠를 따로 만든 점에서 제작방법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소방형판과 횡타원형판이 한개의 요패에 공존하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 155호분 금제식은 소형 연결금구에서는 작은 방형판에 두 개의 못을 상하로 박은 점에서 다른 형식과의 공통성을 보이나 대형 요패식은 두 개의 작은 횡타원형판을 중공으로 만든 후 그 사이에 세장방형의 연결금구를 큰 타원형 상하에 만들어진 현수공에 끼운 후 중앙에 한 개의 못으로 고정시킨 것⁷¹⁾이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금관총의 은제 대형 요패⁷²⁾에 보인다.

소방형판과 횡타원형판이 연결금구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155호분금제식은 대형요패의 연결금구에 횡타원형판을 이용하여 상하로 두개의 못을 박은 금령총 금제식, 중앙에 한 개의 못을 박은 155호 금제식,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양산북정리10호분⁷³⁾

63)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 1993, 圖面 15.

64) 韓炳三 編, 《國寶1 - 古墳金屬》藝耕, 1983, pp.74, 64 금제과대 및 요패.

65)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天馬塚 發掘調査報告書》, 1974, 圖面 22.

66) 穴澤咏光・馬目順一, 앞의 논문, p.60 第44圖의 1조와 第45圖의 2가 있는데 연결판의 제작 기법은 서로 다른 것 같다. 후자는 98호남분식인데 전자는 98호북분의 금제와 같은 기법으로 판단된다.

67) 朝鮮總督府, 앞의 보고서(本文上冊), p.157 第40圖의 (二).

68) 朴日薰, 〈皇南里破壞古墳發掘調査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5, 1964, p.41 挿圖 12.

69) 穴澤咏光・馬目順一, 앞의 논문, p.61 第45圖의 1.

70) 李鍾宣, 앞의 글,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圖版・圖面)》, 1993 圖面 16의 왼쪽.

7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1974, 圖面 19.

72) 朝鮮總督府, 앞의 책(本文上冊), p.157, 第40圖의 (ノ).

73) 이 무덤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경우 은제 대형 요패 1조, 은제 소형 요패 4조, 금동제 소형

남자시상출토 은제식⁷⁴)으로 세분될 수 있다.

한 세트로 출토되지 않아서 공반관계는 불명확하나 155호분 금제식과 같은 대형 요패의 연결금구를 사용한 예로는 경산 임당6호분 A곽출토 은제 요패⁷⁵), 경산 북사리1호분출토 은제(도면4의 ④)⁷⁶), 국은수집품 은제의 중단⁷⁷)이 있으며, 두 개의 못을 사용한 금령총 금제식에는 대구 내당동59호분출토 금동제⁷⁸), 국은수집품 은제의 하단⁷⁹)이 있다. 그리고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양산북정리10호분 남자시상출토 은제식은 금관총출토 은제⁸⁰), 국은수집 은제 요패의 상단⁸¹)이 있다.

그리고 대·소형 요패에 모두 타원형 연결금구만을 사용한 공통성을 보이는 것으로 대소형 연결금구에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형식으로 양산 북정리10호분 여자시상출토⁸²) 은제식이 있고, 대형 요패에는 한개의 못을 사용하고 소형 요패에는 상하로 두개의 못을 사용한 대구박물관 소장 전임당출토 은제식⁸³)이 있다.

연결방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연결판이 방형인 점에서는 보편적인 형식이

요패 1조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朝鮮總督府, 〈梁山夫婦塚と其遺物(本文)〉, 《古蹟調査特別報告》, 1927, p.56) 보고된 그림상(朝鮮總督府, 〈梁山夫婦塚と其遺物(圖版)〉, 《古蹟調査特別報告》, 1927, 圖版 第19의 36)으로는 어느 것이 금동제인지는 불명확하다. 그 후 재보고된 자료(東亞大學校博物館, 〈梁山金鳥塚・夫婦塚〉, 1991, pp.96~99)에도 이 점은 누락된 것 같다. 하나의 요패식에 은제와 금동제를 사용한 공식적인 자료는 이것이 처음인 것 같다.

74) 東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1, p.97, 圖面 37의 ①, ②.

75) 국립중앙박물관·부산시립박물관, 《신비의 고대왕국 - 가야특별전》, 1991, pp.58, 143 은제과대와 요패장식.

76) 嶺南大學校博物館, 《慶山 北四里 古墳群》, 1991, pp.57~58과 p.58, 圖面 10.

77) 국립경주박물관, 앞의 책, 1987, p.222 도면70의 ①은 세 종류의 요패를 조합시킨 것인지 아니면 제작 당시에 세 종류의 연결판을 사용했는지는 의문이나, 그림상으로 볼 때, 위에서 첫번째 연결판(상단)은 못을 사용하지 않은 금관총 은제식이지만 2~5번째까지 연결판(중단)은 1개의 못을 사용한 천마총식이며, 6~8번째 연결판(하단)은 상하에 2개의 못을 사용한 금령총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78) 朝鮮總督府, 앞의 보고문, 《1923年度古蹟調査報告》1, 1931, 圖版 第128의 1.

79) 주 77 참조.

80) 朝鮮總督府, 앞의 보고문(本文上冊), 《古蹟調査特別報告》3, p.157, 第40圖의 八.

81) 국립경주박물관, 앞의 책, 1987, p.222 도면 70의 ①.

82) 東亞大學校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1, p.97 圖面37의 ③, ④가 있으나 원보고서의 도판(朝鮮總督府, 앞의 보고서(圖版), 圖版 第20의 37)에 의하면 소형 요패 가운데 가장 왼쪽 것은 1개의 못을 가운데 박은 것이 있으나 못이 없는 고리가 대부분이어서 여기에 해당시켰다.

83)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1994, p.31.

지만 방형 연결판의 상하 가장자리에 옆으로 세장방형의 현수공이 뚫린 판 1매와 횡타원형의 상하에 돌출된 혀를 작은 장방형판으로 2개의 못을 수평으로 박아서 결합시킨 금척리1-A호출토 은제⁸⁴⁾가 대표적인 예이다. 못의 수나 배치방법은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예는 대구 비산동34호분 I곽출토 은제⁸⁵⁾, 대구 내당동55호분출토 은제⁸⁶⁾가 있다. 이외 경주지역의 황오동 4호분에서 출토된 은제 요패도 이러한 형식에 포함되는 것인데 세부적인 특징⁸⁷⁾은 알 수 없다(도면3의 ②).

연결판의 모양과 못의 배치방법이 단순한 시기적 변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곧 제작기법의 차이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곧 방형과 장방형 연결판, 6개의 못과 8개의 못을 사용하는 것은 기법의 차이는 제작소의 차이로 치환할 수 있겠다. 이 제작소가 경주지역에 있는 것인지, 지방에 소재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⁸⁸⁾ 반드시 경주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논리는 위험⁸⁹⁾할 것 같다.

84)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인의 무덤 - 新羅陵墓의 形成과 展開 - 》, 1996, pp.85, 127 은제허리띠 · 드리개.

85) 朝鮮總督府, 앞의 보고문, 《1923年度古蹟調査報告》, 1931, 圖版 第138.

86) 朝鮮總督府, 앞의 보고문, 《1923年度古蹟調査報告》, 1931, 圖版 第96의 (二).

87) 도면(洪思俊 · 金正基, 〈皇菩里4·5號古墳發掘調査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5, 1964, pp.13~14, 삽도 4)에 의하면 이것은 상하로 세장방형의 혀를 낸 횡타원형판 1매 상하 가장자리에 옆으로 세장방형의 현수공을 뚫은 방형연결판 1매로 구성된 것처럼 제시되어 있으나, 횡타원형 상하에는 어미형 금구를 부가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예와는 차별성을 보이지만, 방형금구와 연결금구, 어미형 판의 중복관계가 도면상으로 분명하지 않다.

88) 6세기대 경주지역의 지구분할은 반월성쪽을 중심으로 하는 도성구역(朴方龍, 〈新羅都城의 宮闕配置와 古道〉, 《東北아시아의 古代都城》, 東亞大學校博物館, 1996. 11. 5)과 공동무덤구역(朴普鉉, 〈積石木槨墳에 보이는 多葬墓〉, 《大丘史學》39, 1990, pp.27~28)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기생산지는 경주분지의 외곽인 천북면과 내남면에 분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曉星女子大學校博物館, 〈新羅伽耶土器窯址〉, 1982, pp.29~30와 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競馬場豫定敷地 試掘調査報告書〉, 1996, 도면 98) 적석목곽분에서 발견되는 다량의 금공품을 만들었을 생산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도성제가 완비되는 7세기대에는 생산유적인 유리와 구리를 녹힌 공방은 의외로 황남동376번지에 위치(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황남동 376 유적 현장설명회자료〉, 1994. 5. 26)하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앞서는 3세기대에는 철기제작유적(國立慶州博物館 · 大韓住宅公社, 〈慶州皇城洞遺蹟 第1次發掘調査 概要〉, 1990)과 무덤유적(황성동 고분군 발굴조사단, 〈경주 황성동 고분군현장설명회 자료〉, 1994. 10. 8)이 세트를 이루어 조사되었지만 중심지는 어디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황오동 추정목관묘유적(金元龍, 〈新羅の土器と土偶〉, 《世界陶磁全集》17, 韓國古代, 1979)과 인왕동 169의 4번지에 위치한 대형분 아래의 목관묘 내지 석곽묘 출토품(嶺南大學校博物館, 〈仁旺洞古墳發掘調査略報告〉, 1978. 5와 嶺南大學校博物館, 〈慶山地表調査報告〉, 1988, p.143, 삽

이와같이 경주지역의 갑유형 무덤⁹⁰⁾에서 인지되는 요패식의 연결금구에 보이는 다양성과 경주를 제외한 신라지역⁹¹⁾의 준갑유형무덤에서 확인되는 단순성⁹²⁾은 지역단위 지배자의 사망과 무덤축조에 즈음하여 공급된 부장품,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요패식을 보면 부장된 물량이나 재질 또는 부장위치⁹³⁾와 더불어 서로 다른 몇가지의 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품들이 경주지역 갑유형무덤에는 공존하고 있는 점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경주지역의 대형분 피장자에게 이와같이 다양한 제작방법으로 만들어진 요패식이 부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힘의 우월성이 경주지역 지배자에게는 존재하고 있었다⁹⁴⁾는 것이다. 반면에 지역에 산재하는 지배자들에게는 한가지 방법에 의

도 6) 그리고 월성의 서쪽문터로 추정되는 성벽기저부의 흑색재층 출토유물(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査團, 《月城垓字發掘調査報告書》 I, 1990, p.252, 삼도 52의 ③, ④, ⑦)을 고려하면 4세기대에는 월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요 물품의 생산공방은 도성제의 성립과 관계없이 경주분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89) 신라사회를 유지시킨 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상식적 논리로 본다면 지방사회에 분산적으로 산포하는 위세품들이 중앙에서 만들어져서 지방지배를 위하여 지방으로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 같으나, 지방고분의 상대연대와 더불어서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으며 지방고분에서 출토된 금공품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90) 朴普鉉, 〈積石木槨墳의 階層性 試論〉, 《古代研究》 3, 1992.

91) 朴普鉉,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構造〉,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6.

- 92) 경주 이외의 신라지역에서 조사된 대형분은 대부분이 도굴되었기 때문인지 요패의 발견은 매우 드물다. 지방의 대금구가 대부분 은제이기 때문에 부식의 상황도 고려해야겠지만 파괴로 인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현재까지 완전한 요패가 조사된 예는 양산북정리10호분(朝鮮總督府, 앞의 보고문, 《古蹟調査特別報告》 5, 1927)이 유일한 예에 속하는데 남자와 여자 피장자는 각각 한벌씩의 한 종류 요패만 부장하고 있다. 그런데 창녕 교동89호분(穴澤味光・馬目順一, 앞의 논문, 《考古學雜誌》 60-4, 1975)에서는 기법은 같지만 재질이 서로 다른 대형 요패가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이 지방에서는 대형분이라도 대체로 한 종류의 제작방법에 의한 것들 뿐이어서 획일성으로 표현했다.

93) 朴普鉉, 〈앞의 논문〉, 《古文化》 38, 1991.

朴普鉉, 〈冠帽前立飾金具의 副葬樣相에 보이는 地域差〉, 《古代研究》 4, 1995.

- 94) 이러한 힘은 결국 어려운 제작지능의 문제를 떠나 최소한 몇 개의 분업화된 공방으로부터 부장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라의 발전사에서 98호남분 이전단계와 이후단계의 차별성을 부여해 두고자 한다. 이 시점이 신라가 고대국가로 도약하는 단계가 아닌가 한다.

한 제품의 부장은 그 만큼 힘의 약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라가 고대국가로 탈바꿈하는 하나의 획기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다.

4. 連結金具의 地域差異

현재까지 요패식으로 불리는 대금구의 수하식이 발견되는 곳은 앞의 <表 1>에서 보듯이 경주분지내 고분군을 비롯하여 건천 금척리고분군, 대구 비산·내당동고분군, 창녕 교동고분군, 의성 탑리고분군, 경산 임당동고분군, 자인 북사리고분군, 양산 북정리고분군 등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연결금구의 속성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지역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정리해 보면 <表 3>과 같다.

<表 3> 금관총금제식 연결금구의 분포

경 주			창녕	대구	의성
98호남분은제	98호남분금동	금관총금제	교동 12호	내당동51호분2곽	탑리Ⅱ곽
98호남분은제	98호북분은제	138호분은제			
금관총은제	식리총은제	호우총은제			

<表 3>에서 보면 금관총 금제식은 금관총의 것을 제외하면 모두 은제라는 공통성을 띠고 있는데, 경주지역에서는 98호남분, 98호북분, 138호분, 식리총, 호우총에서 같은 형식에 속하는 연결금구가 확인되고 있으며, 경주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으로는 창녕 교동12호분⁹⁵⁾에서 한 세트분이 조사되었고, 그 외에 대구 내당동51호분 2곽이나 의성 탑리 Ⅱ곽에서는 대형 요패만이 같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경상도 출토라고 할 수 있는 자료로 경북대장, 국은수집품, 소창수집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구 내당동51호분 2곽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당·비산동고분군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시기의 무덤으로 편년될 수 있는 토기자료⁹⁶⁾를 부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후기적 속성을 가지는 토기⁹⁷⁾도 부장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점에서는

95) 穴澤咏光·馬目順一, 앞의 보고문, 《考古學雜誌》60-5, 1975.

96) 朴光烈, 〈大邱地域의 古墳編年〉, 慶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7.

97) 朝鮮總督府, 앞의 보고문, 《1933年度古蹟調査報告》1, 圖版 第80, 제51호분 제2석곽출토 토

황남동98호 남분과 유사한 부장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같은 시기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지역이 경주지역보다 더 빠를 가능성⁹⁸⁾도 있다.

〈表 4〉 98호북분금제식 연결금구의 분포

경주		창녕
98호북분 은제	98호 북분 금제	교동89호
파괴고분 은제	서봉총 금제	
155호분 은제		
금관총 은제		

한편 98호 북분 금제식은 98호 북분, 서봉총에서 발견되며 은제로서는 황남동파괴고분2곽, 천마총, 금관총 그리고 창녕 교동89호분에서 각각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창녕 교동89호분은 일부 알려진 토기자료⁹⁹⁾에 의하면 부가구연 장경호를 공반하지 않는 시기의 무덤임을 알 수 있으며, 고배류의 경우에도 고식과 신식의 요소를 모두 보이고 있어서 묘곽형태에 그 원인을 두면서도 동일 시기로 일단 파악하고 절대연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5세기중엽~5세기후엽이라는 커다란 연대폭에 비정¹⁰⁰⁾하였다.

그런데 98호 북분의 토기류는 우선 봉토 축조시에 마구와 일괄로 부장된 이단투창고배¹⁰¹⁾는 5세기의 특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부장품 수장부 서단부에 부장된 대부장경호¹⁰²⁾도 구연부가 2중으로 처리된 부가구연의 기법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이단투창고배와 더불어 천마총의 주곽에 부장된 토기류와 유사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98호 북분은 5세기대의 토기가 유행하던 시점에 축조되었다기 보다는 6세기대의 토기가 제작되던 시점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기의 4.

- 98) 예컨대, 98호남분과 내당동51호분2곽의 신식토기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전형적인 2단투창고배인데 비하여, 후자는 들림식 각단을 가진 인왕동149호분의 것과 유사한 점에서 추론하였다.
- 99) 金元龍, 〈新羅土器의 研究〉, 《國立博物館叢書》甲 4, 乙酉文化社, 1960, pl.13, fig.5, fig.6 참조.
- 100) 定森秀夫, 〈韓國慶尙南道昌寧地域出土陶質土器の檢討 - 陶質土器に關する一私見 -〉, 《古代文化》33 - 4, 1981.
- 101) 申昌秀, 〈封土內出土遺物〉,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pp.142~143.
- 102) 申昌秀, 〈容器類〉, 앞의 책, pp.133~134.

이러한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지방고분으로 존재하는 창녕 교동의 연결금구는 98호남분과 북분의 일정한 중간단계에 그것도 시기적으로 98호 남분쪽에 가까운 무덤 가운데서 유사한 예가 찾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자료가 없다. 또한 98호 남분의 단계에 제작된 것은 8개의 못을 사용하는 점에서 제작방법이 다르다. 그렇다면 6개의 못을 사용하는 연결금구의 제작은 지방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결론이 되어서 기왕의 견해¹⁰³⁾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表 5〉 황오동4호분식 연결금구의 분포

경주	대구
황오동4호분 은제 금척1호A곽 은제	비산동34호 1곽 내당동55호분

신라의 요패금구 가운데서는 가장 이질적인 요소를 보이는 방형판의 상하에 장방형 현수공을 만든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설정된 황오동4호분식은 금척리1-A호고분, 대구 비산동34호1분곽, 내당동55호분에서 발견되었는데 모두 은제이다. 이 가운데서 황오동4호분과 비산동34호분의 연결금구는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지만 내당동55호분과는 다른 것 같다. 신라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이러한 속성을 보이는 것은 무녕왕릉의 왕유해부에 부장된 은제 요패¹⁰⁴⁾에 보인다.

이것은 타원형 연결판의 상하에 현수공을 만든 것으로 혀가 달린 조금 큰 타원형판의 혀를 연결판의 현수공에 끼워서 서로 연결한 후, 2개의 못을 수평으로 박아서 고정시킨 것인데 금척리1호분A곽 출토품과 못의 배치방법은 동일하지만 혀를 만드는 방법에 차이를 보인다.

〈表 6〉 북정리10호분 남자요패 연결금구의 분포

경주	양산
금관총 은제	북정리10호남자

103) 李熙濬, 〈낙동강 以東 지방 4, 5세기 고분 자료의 定型性과 그 해석〉,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2회 합동고고학 대회 - 4·5세기 한일고고학》, 1996. 7, p.12.

10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武寧王陵》, 1974, p.22, 삽도 11.

횡타원형 연결금구에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걸쇠만을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관총 은제식은 양산북정리10호분의 남자시상에서 세트를 이루어 발견되었다. 두 고분의 상대연대는 금관총이 북정리10호분 보다는 빠른 시기의 무덤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¹⁰⁵⁾이지만 금관총의 것은 세트를 이루고 있지 않는 부속품이어서 양산지역과 비교하기에는 문제이다.

다만 이와 요패세트로 보아서 북정리10호분 남자시상 것과 유사한 것은 금령총의 금제요패 연결금구가 있으나 금령총의 것은 대형 요패의 연결금구에 두개의 못을 상하로 사용하는 방법이어서 서로 다르다. 그런데 양산 북정리10호분의 연대는 남자가 쓴 금동관을 보면 입식의 시문 구성이 두 줄의 송곳무늬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금관총 금관보다는 신식이며 천마총, 서봉총의 금관과 같은 제작기법이지만 대륜의 시문 기법은 금령총보다 고식¹⁰⁶⁾으로 나타나며, 반출된 토기는 금령총 다음 단계로 비정¹⁰⁷⁾되고 있으나 부가구연장경호가 없는 점에서 천마총~금령총단계로 비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정리10호분보다 더 빠른 경주지역 고분에서 이와 동일한 한 세트의 요패식이 조사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부부총의 요패식이 경주로부터의 일방적 금공품의 분배라는 도식은 성립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表 7〉 155호분 금제식 연결금구의 분포

경주	자인	경산	비고
155호금제	북사리1호주변 ¹⁰⁸⁾	임당6-A호	국은수집품

155호분식의 대형 금제요패에 사용된 연결금구와 같은 것으로 경산 자인 북사리1호분주변의 흙더미에서 발견된 은제 요패가 있다. 요패는 다소 원위치에 불안정한 느낌을 주지만 대금구는 원위치일 가능성이 높은 자인 북사리1호분은 암반을 굴착한 단독곽식의 수혈식 석곽으로 유구 속에서 확인된 토기류는 고식¹⁰⁹⁾의 토기(도면4의 ①)와 신식¹¹⁰⁾의 토기(도면4의 ②, ③)가 공반되었으며, 같은 연결금구의 속성을 가진 155

105) 藤井和夫,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 - 出土新羅土器を中心として -〉, 《神奈川考古》 6, 1979.

106) 朴普鉉, 〈樹枝形立華飾冠 型式分類 追補〉, 《大丘史學》 32, 1987, p.3, 〈表1〉 참조.

107) 藤井和夫, 〈梁山夫婦塚出土陶質土器の編年に就いて〉, 《神奈川考古》 3, 1978.

108) 嶺南大學校博物館, 《慶山 北四里 古墳群》, 1991, p.41.

109) 嶺南大學校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1, p.45, 圖面 5의 ⑤.

110) 嶺南大學校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1, p.43 圖面 4의 ①.

호분의 토기자료¹¹¹⁾는 복사리 신식의 토기자료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횡타원형의 연결금구는 현재의 자료로 보는 한 경주지역보다는 자인지역에서 먼저 발생하였다는 논리가 되며 추정되는 상한 연대는 황남동98호 남분 정도가 되므로 그 다음 단계로 비정되는 금관총의 은제 연결금구도 제작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각¹¹²⁾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당6호분A곽의 자료는 현재 미보고여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는 단계이다.

〈表 8〉 금령총 금제식 연결금구의 분포

경주	대구
금령총 금제	내당동59호

금령총 금제식은 금령총에서 발견된 금제 요패¹¹³⁾와 대구내당동59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후자의 것은 횡타원형의 가장자리에 한줄의 원점문을 돌려 놓아서 특징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내당동59호분의 토기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금령총과의 상대연대를 논할 처지는 못된다.

이상 동일 속성의 연결금구를 지역간의 대비 속에서 고찰한 결과 일부 속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일 속성일 경우 경주지역보다는 경주 이외지역의 연결금구가 경주보다 빠른 시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관모전립식의 경우¹¹⁴⁾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되는데, 지금까지는 경주를 막연히 정치 내지는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하고 지방은 경주로부터의 일방적인 문화의 파급이라는 도식 속에서 위세품을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었다.

11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 1974, 挿圖 126, 127.

112) 곧 지방에서 제작되어 장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하지는 못하는 것이 된다. 중앙의 王者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역지배자들의 조문상품이 무엇이었을까 대두되며, 특히 수릉제가 아니고 빈제인 신라의 경우, 대형분에 부장된 막대한 물량의 일시적 제작이라는 점은 고분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113) 黃泓根, 《韓國裝身具美術研究》, 一志社, 1978, p.228, v-127. 과대 및 요패의 스케치도면을 고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보고서의 사진(朝鮮總督府, 앞의 보고문, 圖版第68)에 확인되는 기법을 따랐다.

114) 관모전립식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반대로 나타나서 선경주, 후지방이라는 도식으로 묶여지고 있는 것(朴普鉉, 앞의 논문, 《古代研究》 4, 1995)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볼 때, 신라지역에서 발견되는 요패식은 대형 요패와 소형 요패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대금구를 장식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 다만 6세기 대의 늦은 단계에 출현하는 방형과 말각오각형을 세트로 하는 이른바 당대복식이라고 하는 대금구에는 요패금구가 공반하지 않는 점만은 분명하다.

신라의 대금구에 부속된 이러한 요패식은 신라 고유의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제작기법에서는 시기와 지역에 따른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경주지역에 한정해서 보면 신고식의 것이 공존할 경우 고식은 피장자의 유해부에 부장되며, 신식은 주곽내의 주 부장군에 부장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이러한 신식은 수도였던 경주를 제외한 주변의 중심부에서 경주지역보다는 약간 앞선 시기에 부장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경주지역 안에서도 2~3개의 제작기법이 다른 연결금구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호우총 요패식과 98호남분의 요패식에 보이는 제작기법의 동일성, 98호북분에서 발견된 은제요패식과 서봉총에서 발견된 금제요패식의 동일한 제작기법은 이러한 금공품을 만드는 제작소의 차이를 설정케 한다. 또한 155호분에서 발견되는 연결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방형판 사이에 끼워 넣어 고정시키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사용된 기법은 아니었던 것이 그 후의 예가 지속되지 않음으로써 확인되었다.

곧 경주의 갑유형무덤에서는 2~3종류의 요패식이 부장되는데 비하여 지방에서는 1종류의 요패만이 부장되고 있어서 지역단위의 힘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힘의 보유는 신라의 국가적 출발이며, 그 대체적 시기는 황남동98호 남분기부터임이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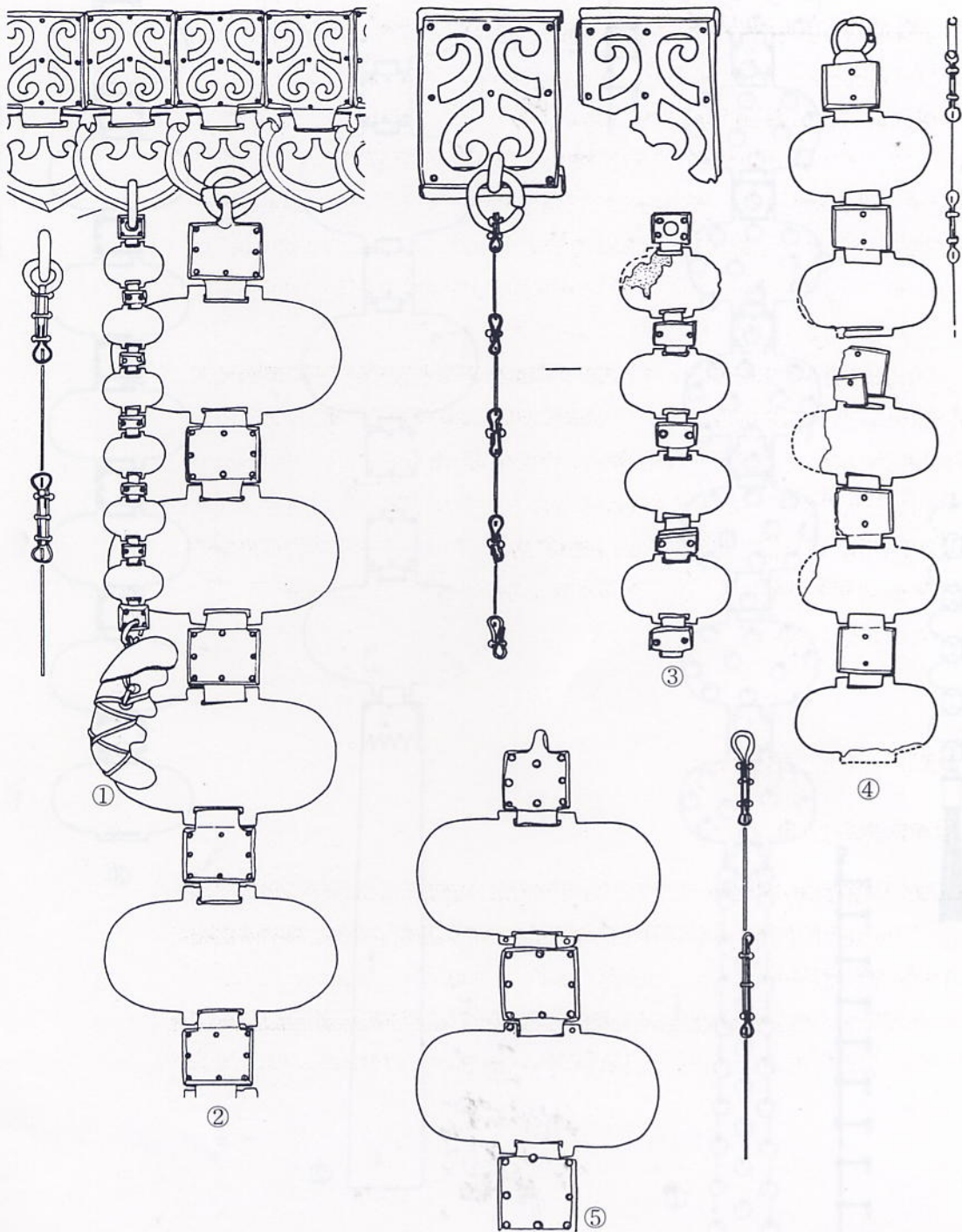
문제는 경주지역에서 발견된 이러한 요패금구들이 모두 경주에서 제작되어 무덤에 부장되었었느냐의 것이다. 강력한 王者의 죽음과 대형봉토분의 축조¹¹⁵⁾는 경주인만에 의하여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당시의 무덤축조는 殯制가 중심¹¹⁶⁾이었을 것

115) 대형분의 피장자가 왕이라면 조묘활동이 왕위계승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여타의 세력 예컨대 왕자, 망자의 배우자 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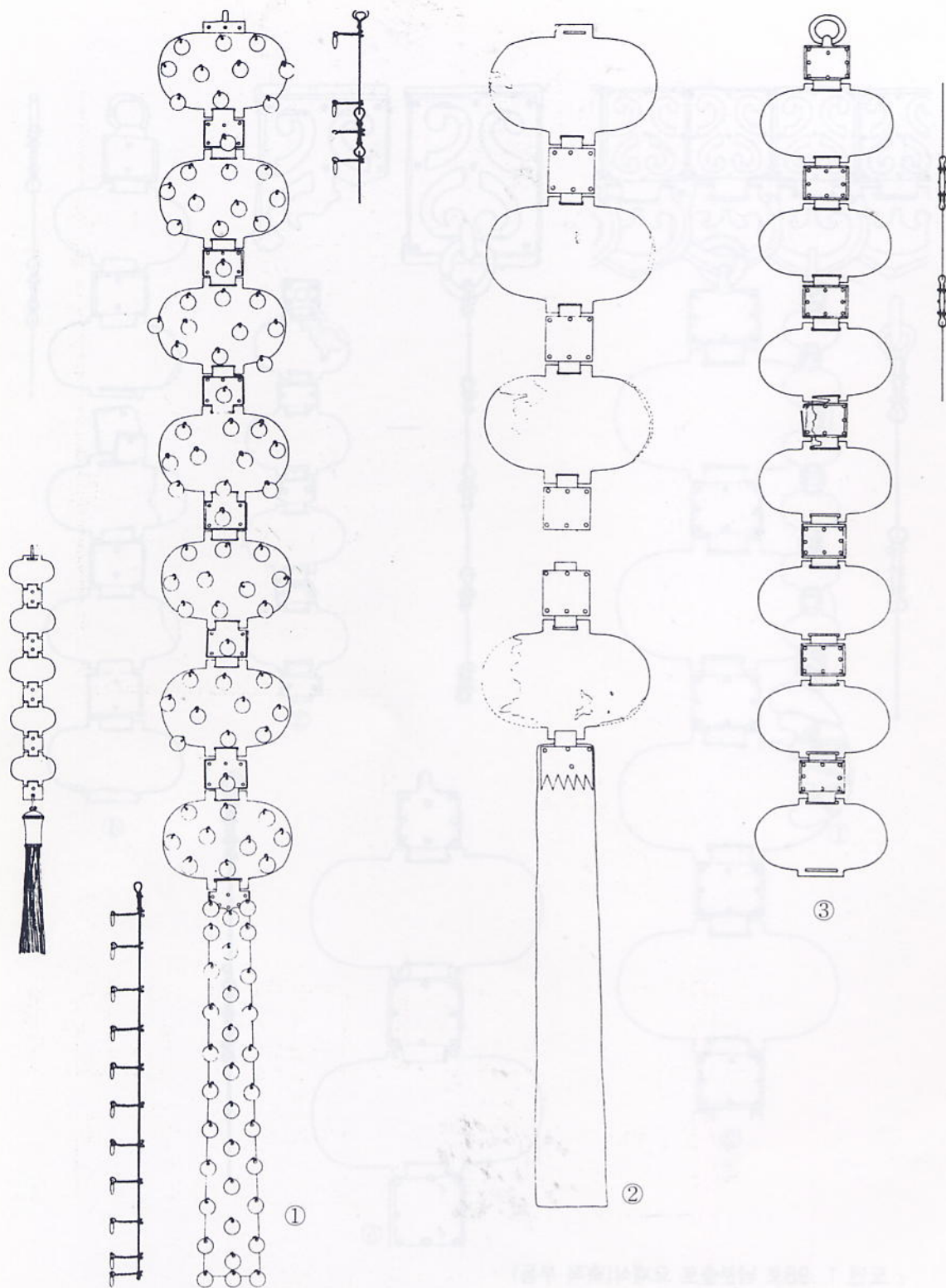
116) 삼국시대의 장제가 빈제였는지 수릉제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석목곽분의 구조상으로 보아 망자의 생시에 이러한 적석된 대형무덤을 만들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횡혈식의 경우에는 추가장이 가능한 무덤형태이기 때문에 수릉제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으나, 적

으로 생각되는데 조문과 관련된 지방 지배자로부터의 현상물이 무엇이었던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은 무덤축조에서의 의례적인 면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논외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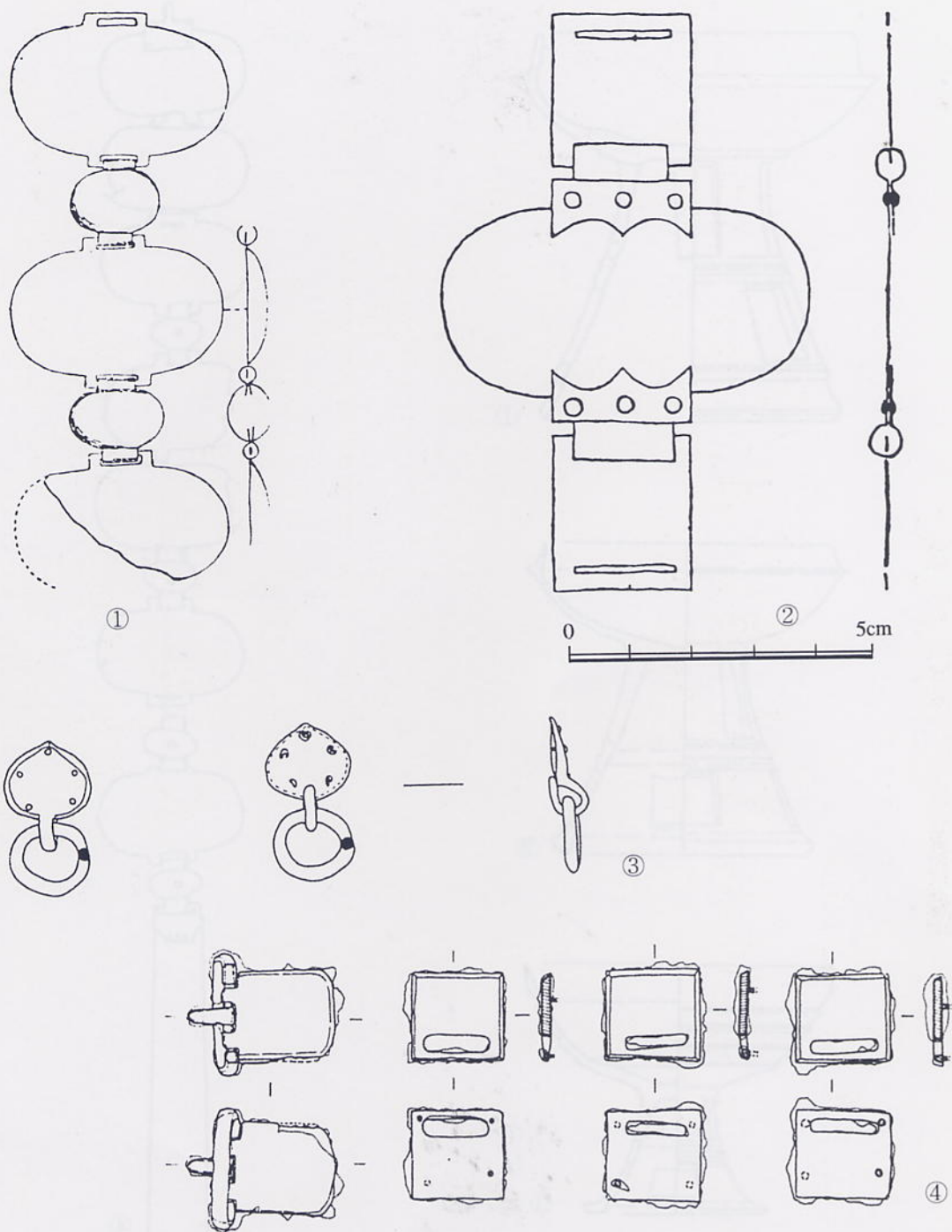
석목곽분이 중심인 5~6세기의 경주분지에서는 피장자의 죽음과 동시에 조묘활동이 시작되었을 것이며,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는 날까지 시신을 특별히 안치해 둘 수 있는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경주의 적석목곽분에는 殯制가 적용되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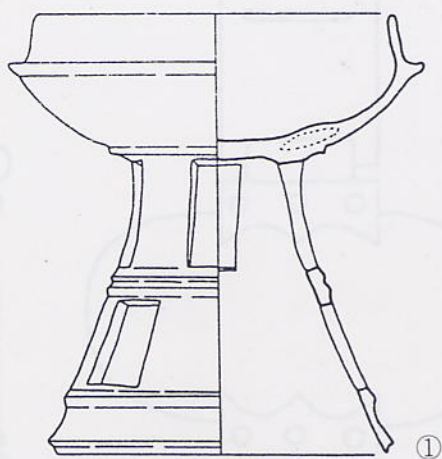
도면 1. 98호 남분출토 요패식(축적 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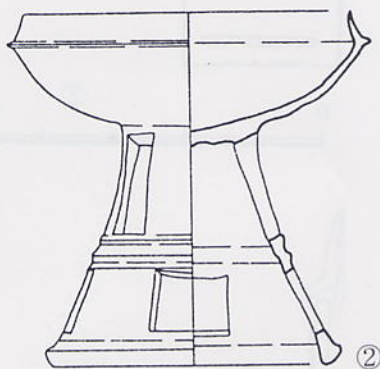
도면 2. 98호 북분출토 요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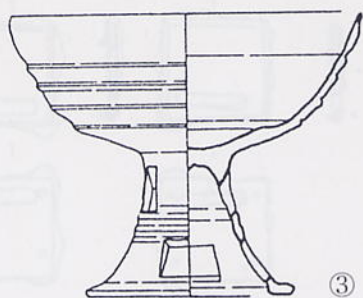
도면 3. 금관총(①), 황오동 4호분 요패식(②), 자인 복사리 1호(③),
합천 저포리 E지구 26호(④)출토 대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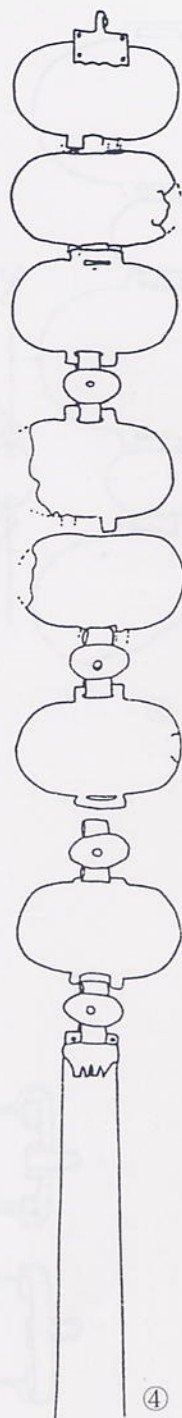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도면 4. 자인 북사리 1호 공반유물

丁若鏞의 技術發展論

趙 誠 乙*

目 次

- | | |
|---------------------|--------------------|
| 1. 머리말 | 3) 技術의 開發과 現實 適用 |
| 2. 自然觀과 人間觀 | 4. 後期의 技術 發展論 |
| 1) 朱子學的 自然觀의 解體 | 1) 農業生産力 發展論 |
| 2) 平等的 人間觀과 技藝人의 觀念 | 2) 手工業 및 鑛業 技術 發展論 |
| 3. 初期의 技術 發展論 | 3) 技術 發展을 위한 制度改革論 |
| 1) 農業生産力 發展論 | 5. 맺음말 |
| 2) 手工業 技術 發展論 | |

1. 머리말

실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 경제, 사회사상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북학과’ 및 정약용 단계에 이르면 실학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다. 이것은 그들이 당시 여러 제도적 모순의 개혁과 더불어 利用厚生을 주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 가운데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은 종래의 주자학과 다른 새로운 자연관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관념, 그리고 기예(기술)를 갖춘 점에서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는 관념 및 평등적 인간관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사상적 토대의 근본적 변화에 뒷받침되어 있다.

아울러 정약용은 북학파들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기술 발전론을 제기하였으며 실제로 기술을 개발하여 현실에 적용하여 보기도 하였다. 수원 화성의 축조에 기중기 등 여러 기술을 채용한 것이 그 실례라 하겠다. 그리고 후기에 이르러 그의 기술 발

* 亞州大學校 人文學部 史學專攻

전론은 전기에 비하여 보다 발전하였다.

본고에서는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과 관련하여 먼저 그의 자연관, 인간관을 살펴본 뒤, 기술 발전론을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결어에서는 그의 기술 발전론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위치, 현재적 의미 등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¹⁾

2. 自然觀과 人間觀

1) 朱子學的 自然觀의 解體

丁若鏞의 哲學思想은 근본적으로 朱子學과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朱子學이 天人合一에 基礎하여 自然과 人間에 一理로서의 太極이 관통하고 있다고 보았다면 丁若鏞은 天人 分離에 基礎하여 自然과 人間에는 각기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²⁾

주자는 “太極 天地萬物之理”라 하고³⁾ 또 《中庸》의 첫귀절 天命之謂性에 대한 주석에서,

性卽理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理亦賦焉 猶命令也 於是人物之生 因各得其所賦之理 以爲健順五常之德 所謂性也

1)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 및 자연관 등과 관련하여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리용태, <다산 정약용의 자연과학사상>, 《다산 정약용 탄생 200주년 기념논문집》, 1962.

박성래, <정약용의 과학사상>, 《다산학보》 1, 1978.

홍문화, <의학학자로서의 다산과 사상 및 업적>, 위의 책.

김영호, <정다산과 과학기술사상>, 《동양학》 19, 1989.

유초하, <정약용 철학의 과학 지향과 그 한계>, 《과학과 철학》 2, 1991.

정우열, <다산 정약용의 의학 사상>, 《한국과학사학회지》 14, 1992.

2) 朱子의 哲學에 대하여는 주로 守本順一郎, 《東洋政治思想史研究》, 1967, 未來社; 友枝龍太郎, 《朱子의 思想 形成》, 1969, 春秋社; 張立文, 《朱熹思想研究》, 1981, 中國社會科學 出版社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또 이범학, <宋代 朱子學의 成立과 發展>, 講座《中國史》 3, 지식산업사, 1989는 朱子學의 성립과 발전 및 그 哲學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논문이다.

3) 《朱子語類》 1, 淳錄.

라고 하였다.⁴⁾ 즉 太極이 바로 萬物의 理이고 人과 物에 모두 같이 理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된다. 문제는 理法인 太極을 基礎로 한 天人合一의 世界觀이 自然觀에 대하여 갖는 의미이다. 自然과 人間이 합일됨으로써 自然의 理法에 인간의 윤리적 색채가 가미되고 存在의 法則과 當爲의 法則이 혼효되었다. 이것은 자연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한편 朱子學에 있어서 天人合一의 思考는 陰陽五行的 思考와도 관련이 있다. 음양 오행적 사고는 선형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모든 이법에 내재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自然에 대하여 경험적 관찰에 입각하여 客觀的 法則을 定立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朱子와 달리 丁若鏞은 天人的 分離를 주장하였다. 그는 自然에는 存在의 법칙이 작용할 뿐이나 人間 세계에는 當爲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孟子要義에서,

後世之學 都把天地萬物……並歸之於一理 無復大小 主客 始於一理 中散爲萬殊 末復合於一理也 ……豈洙泗之舊觀哉

라고 비판하였다.⁵⁾

이런 비판에 基礎하여 그는 또 《孟子要義》에서,

道者人所由也……夫陰陽造化 金木水火之變動 非吾身之所得由 則豈吾道乎 若言一陽一陰 謂道 本之易傳 則是言天道 不是人道

라고 하였다.⁶⁾

이렇게 天道와 人道を 분리하는 것은 周易四箋에서 丁若鏞이 周易 64괘에 대하여 天地, 四時, 日月과 같은 自然을 상징한 14卦와 人間事의 變化를 상징한 50衍卦의 두 가지로 엄격히 나누고 있는 데에서도 인정된다.⁷⁾

한편 주자가 음양을 氣로서 구체적인 힘을 갖고 작용하는 실체로 파악한 것과 달리 정약용은 中庸講義補에서 그 실체성을 부정하여,

4) 《中庸章句大全》, p.769 면수는 《經書》, 성대 영인본에 따름.

5) 《與猶堂全書》 2, p.144, 이하 《全書》로 약칭.

6) 위의 책, pp.144~145.

7) 줄고, 〈정약용의 신분제 개혁론〉, 《동방학지》 51, 1986, p.90.

陰陽之名 起於日光之照掩 日所隱曰陰 日所映曰陽 本無體質 原不可以爲萬物之父母

라고 하였다.⁸⁾

이어 오행에 대하여도 ‘五行 不過萬物中五物 則同是物也 而五生萬物 亦難乎’라 하여 오행에서 만물이 생긴다는 것을 부정하였다.⁹⁾ 이렇게 자연을 당위와 독립된 객관적 존재로 인식하고 음양과 오행의 유사과학을 벗어남으로써 자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2) 平等的 人間觀과 技藝人의 觀念

이런 자연관의 변화는 인간관의 변화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약용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인간을 당위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바로 이 점을 그는 자연 또는 物과 인간의 차이로 보았다. 그는 《孟子要義》에서 荀子를 인용하여,

荀子曰 水火有氣而無生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有生有知 有義

라고 하였다.¹⁰⁾ 이것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水火(무생물) 有氣

草木(식 물) 有氣 有生

禽獸(동 물) 有氣 有生 有知

人 (사 랑) 有氣 有生 有知 有義

여기서 인간은 義를 가진 점에서 다른 모든 物과 구별되는데 이 義를 정약용은 道心이라고 해석하였다.¹¹⁾ 이 道心 즉 도덕성을 가진 점에서 그는 인간과 다른 物과 구별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도덕성을 기초로 하면서 이에서 나아가 인간 상호간의 평등

8) 위의 책, p.61.

9) 위의 책, p.62.

10) 위의 책, p.124.

11) 《孟子要義》에서 ‘人與禽獸 最相近....所異者 惟是一箇道心’(위의 책, p.124)라 하였다.

을 주장하였다. 그는 論語古今注에서 “性相近也 只是一等而已”라 하여 인간성의 평등을 주장하였다.¹²⁾ 이런 평등 관념은 그의 사회개혁론 전반이 소농민, 중소상공업자 등 소민 위주의 개혁론이 되게 한 것과 관련이 된다. 인간 평등을 생각하면 당연히 소민의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¹³⁾

한편 정약용은 技藝[기술]의 유무로 인간과 자연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그는 초기의 저작인 <技藝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¹⁴⁾ 여기서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千之於禽獸也 予之爪 予之角 予之硬蹄 予之齒 予之毒 使各得而獲其欲 而禦其所患 於人也 則裸然柔脆 若不可以濟其生……以其有知慮巧思 使之習爲技藝 以自給也

그는 인간이 기술을 가지므로 자연에 대하여 우월성을 갖고 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인식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가 인간과 物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데 더하여 자연계 속에서 인간을 보다 리얼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에서 유래한다. 기예를 갖추었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관념을 기초로 하여 정약용은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정약용은 <技藝論>에서 기술이 시대가 내려 옴에 따라 발전한다는 진보관을 제시하였다. 즉 “世彌降則其技藝彌工”이라 하여¹⁵⁾ 기예 즉 물질적인 측면은 후대로 내려 올 수록 發展하고 더욱 정교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世之不得不然者矣”라 하여 必然的 形勢로 인식하였다.¹⁶⁾ 이 역시 새로운 기술 발전론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기술과 같이 물질적인 것은 존재와 당위를 분리하는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윤리와 별개의 것이 된다. 따라서 당시 조선이 夷狄으로 간주하던 청나라에서 문물을

12) 위의 책, p.338.

13) 정약용은 인간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를 인정하였다(줄고, <정약용의 신분제 개혁론>, p.258). 정약용은 이런 능력의 차이에 따라 관직 선발 등에서 차이를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인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성의 평등에 기초한다면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평등을 생각하게 된다.

14) 《全書》1, p.226.

15) 위와 같음.

16) 위와 같음.

도입하여도 이것은 당위[윤리]를 해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 청나라를 夷狄視하여 배척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조선보다 발전된 청나라 문물의 도입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된다.

3. 初期의 技術 發展論

1) 農業生産力 發展論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全般的 社會 變動은 經濟 상의 變動에 의해 초래되고, 經濟 상의 變動의 밑바닥에는 農業 상의 變動이 있었다. 農業 상의 變動은 많은 農業 問題를 惹起하고 있었다. 당시 農業 상의 변동과 農業 問題는 기본적으로 農業 生産力 發展에 의해 招來되었다. 農業 生産力 發展의 問題는 技術的 側面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 生産力 發展의 主體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社會的 問題이기도 하였다. 農業 生産力 發展의 主體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發展의 結果를 누가享有하느냐가 정해진다.

丁若鏞의 農業 生産力 發展에 관한 논고는 드물다.¹⁷⁾ 사실 동 시기의 朴趾源, 朴齊家나 徐有篈가 農書를 가진 것과 달리 丁若鏞은 현존 자료에 관한 한 農書를 저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이하게도 畿湖 南人계 실학자에 공통되는 일로서 우리가 현재 아는 한 柳馨遠이나 李瀼에게도 農書가 없다. 이들은 生産力의 問題보다는 사회 제도의 問題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丁若鏞의 경우 農業 生産力 發展에 관심이 많았다. 田論을 著述하기 前 초기 그의 農業改革 思想의 핵심은 토지개혁보다는 오히려 農業 技術 問題에 있었다.¹⁸⁾ 이에 관한 관심은 晩年에까지 지속되었다.¹⁹⁾ 이런 관심은 물론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 관련된다.²⁰⁾ 여기에서는 그의 農業

17) 이에 대한 논고로는 金容燮, <18, 9세기의 農業 실정과 새로운 農業經營論>, 《韓國近代農業史研究》, 일조각, 1975 가운데 3. 1) “茶山의 初期農業論”; 金容燮, 《朝鮮後期 農學史 研究》, 일조각, 1988 가운데 제4장(18세기 말 정부의 農書 편찬 계획과 두 農學 思想의 대립)의 2.(實學派 農書의 農業論) 의 3) <應旨論農政疏> 참조.

18) 金容燮, 위의 논문 <18세기 農業 實情과 새로운 農業改革論>, p.89 참조.

19) 農業 生産力 發展論에 관련 자료로는 초기의 저작인 <農策>(정조 14, 1790), <應指進農書>(정조 22, 1798), <技藝論> 및 전기 말에 해당되는 <田論>(정조 23, 1799), 그리고 강진 시절 지은 <牧民心書> 戶典 勸農 조, 工典 山林 및 川澤 조 등이 있다. <田論>의 연대에는

生産力 發展論 가운데 初期의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初期의 저술 가운데 하나인 〈技藝論〉 2에서는 “農之技精 則其占地小 而得穀多 其用力輕 而穀美實”이라 하여 農業 技術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²¹⁾ 그러나 〈技藝論〉에서는 아직 農業 生産力 發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農策〉(1790)에서도 당시 農業 실정과 관련하여 農業 生産力 發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아직 “臣以爲 君子之重農 不過曰 定其經界 不脫農時”라고 하였다.²²⁾ 그러나

徐光啓 農政全書 占候之法 蒔種之方 治田引水之器 禦災救荒之術 以之百種蔬果之屬 機杼井臼之制 無不該載 節目詳備 制作精巧 功用所及 實爲千古(農書之宗)

이라 하였다.²³⁾ 農書 가운데 徐光啓의 《農政全書》를 으뜸으로 보며 구체적인 農業 기술을 이에 의존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년의 작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田論〉의 고증에 대하여는 金容燮, 위의 논문 〈18, 9세기 農業 실정과 새로운 農業 경영론, p.90 이하 및 줄고, 〈정약용 저작의 체계와 여유당집 잡문의 재구성〉, 《규장각》 8, 1984 참조. 줄고에서는 〈田論〉에 초기의 원작과 만년의 수정작이 있음을 밝혔다. 〈技藝論〉은 문체 상, 내용상으로 보아 매우 젊은 기백이 느껴진다.

- 20) 당시는 전 시기에 비해 農業 生産力이 한 단계 더 發展하는 시기이다. 당시의 農業 生産力 發展상의 주요 問題는 기술적인 것으로, 첫째 이양법의 일반화에 따른 水利 問題, 둘째 건무의 정리에 의한 경지의 효율적 이용, 셋째 시비법, 집약화에 따른 勞動力 確保, 넷째 農器具 개혁, 다섯째 新品種의 개발, 여섯째 開墾 問題가 있었다(김용섭, 《朝鮮後期 農業史研究》 1·2, 일조각, 1970·1971 ; 김용섭, 《朝鮮後期 農學史 研究》, 일조각, 1988 ; 김용섭(증보판) 《朝鮮後期 農業史研究》 2, 일조각, 1990 ; 《조선전사》 10·11·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등의 연구에서 農業 生産力 發展 부분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또 사회적인 問題로는 이를 둘러싸고 농민과 지주 사이에 어느 쪽이 그 주도가 되며 그 이익은 누가 차지하는가 하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조건 자체만으로는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여기에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1798년 당시 국왕인 정조가 農業 問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對策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것이 丁若鏞으로 하여금 農業 問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丁若鏞은 이 때 〈應旨進農政疏〉를 올렸다. 또 이에 앞서 쓴 〈農策〉(1790)도 국왕 정조의 策問에 대한 답변이다.

21) 《全書》, pp.1, 227.

22) 위의 책, p.176.

23) 〈農策〉, 위의 책, p.177.

당시 農業 실정과 관련하여 農業 生産力 發展을 처음 구체적으로 논한 것은 〈應旨進農政疏〉(1798)이다. 여기서 다룬 問題는 田畝의 改良, 擇種의 절저, 農器具 改良, 水利 改善 등으로 정리된다.²⁴⁾ 水利와 관련하여는 開墾 問題도 언급하였다.

첫째로 水利 問題에 대하여는 灌溉 水路의 疏鑿과 貯水池의 造成, 機具의 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²⁵⁾ 水路의 疏鑿에 대하여는 “審高下之勢 量疏鑿之費 灌溉之利 利則興之 害則停之 疑則嘗之”라 하여²⁶⁾ 灌溉 공사의 비용과 관개에서 오는 손익을 계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즉 農業 開發에서 經濟的 觀點이 도입된 것이다. 이것은 그 뒤에 商業的 農業論을 전개하는 發想의 端初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貯水池의 築造에 대하여는 灌溉하기 쉽도록 높은 곳에, 그리고 潮水의 충격 및 기후, 바람 등을 잘 고려하여 무너지지 않게 만들도록 하였다. 저수지를 높은 곳에 쌓는 것 역시 宜審 形勢量利 隄高田卑 則勢順而利博 隄與田平 則世闕而利鮮”라고 하듯이²⁷⁾ 이익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水利 問題의 해결은 移秧法이 보편적이 되는 당시의 農業 현실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다.

한편 水利는 제방 축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開墾 問題와도 관련된다. 개간을 권장하기 위하여 丁若鏞은 “有能防堰作田者 許令五六年免稅 則海澤之利興矣”라 하여²⁸⁾ 新開墾地에 대하여 관대한 免稅 조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비교적 經濟力이 약한 小農民은 開墾에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둘째로 田畝에 대하여 “今宜講正田制 畦闊幾尺 溝闊幾寸 隨穀異制 令其得中”이라 하여 곡식에 따라 견무의 폭이 곡식에 따라 정해진 규격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⁹⁾ 이런 田畝의 개량은 ‘息土而代墾’하는 낙후한 農業을 극복하려는 것이다.³⁰⁾ 또 이것은 견무의 폭이 일정하지 않아 넓은 공간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소면적의 農地를 集約的으로 경영하는 것이었다.³¹⁾ 이런 農地의 集約的 利用은 토지가 부족한 小農民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

24) 金容燮, 《朝鮮後期 農學史 研究》, 제4장 2. 實學派의 農業論, p.322.

25) 《全書》, p.1, 195.

26) 위와 같음.

27) 위와 같음.

28)위와 같음.

29) 위와 같음.

30) 金容燮, 《朝鮮後期 農學史 研究》, 제4장 3의 3) 〈應旨進農政疏〉, p.324.

31) 위의 논문, p.323.

셋째로 擇種에 대하여는 “甲年 選百而取一 乙年之種 選於甲 丙年之種 選於乙”의 방식으로 해마다 개선하여 갈 것을 생각하였다.³²⁾ 종자가 반이 부실하면 “萬頃而陳者五千頃也”라고 하였다.³³⁾ 이 역시 농지의 낭비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므로 小農民의 集約的 農法에 필요한 일이었다.

넷째로 농기구에 대하여는 소에 매어 흙덩이를 부수는데 사용하는 소 및 소에 매어 파종하는데 쓰는 누거, 새로운 방아의 사용을 주장하였다.³⁴⁾ 이들 모두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이다. 노동력 절감은 小農民의 集約的 勞動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한편 水利와 관련된 농기구로서 “水車之法……按書制器 未盡其法 故行之多敗……糜費千萬 雨潦輒崩”이라 하여 水車를 반대하고 대신 호남에서 통용되던 木甕의 사용을 주장하였다.³⁵⁾ 이것은 상류 높은 곳에서 물을 타고 오는 두개의 대흙통 교차 지점에 3가지의 나무를 물 속에 꼽아서 당기는 것이다.³⁶⁾ “數人 一日之役耳 以之防大川 灌大野”라 하므로³⁷⁾ 이 역시 노동력의 절감에 이바지한다. 또 水車에 비해 비용을 적게 들이고 만들 수 있다. 소농민이 당장에 사용하기에 유리하다. 체계적인 기술 개발이 없는 상황에서의 水車 사용은 위에서 보듯이 비용의 낭비만을 초래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초기의 農業 生産力 發展論은 기본적으로 小農民을 위한 것이었다.

2) 手工業 技術 發展論

18세기 말 19세기 초 우리나라는 手工業 가운데 鑪器業 등의 분야에서는 매뉴팩처어의 發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手工業의 모든 분야에서 매뉴팩처어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手工業의 機軸이라고 할 수 있는 綿業 등이 속한 織物 분야에서는 매뉴팩처어가 絹織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져 있었다.³⁸⁾ 中國은 이미 明末 清初期에 織物業 등에서 매뉴팩처어가 發展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中

32) 《全書》1, p.195.

33) 위와 같음.

34) 위와 같음.

35)위와 같음.

36) 위와 같음.

37) 위와 같음.

38) 이에 대하여는 김영호,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 형태>, 《19세기의 한국 사회》, 1972 ;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 <조선전사> 12 등의 관련 부분 참조.

國에 비해 技術的인 면에서 뒤지고 있었으며 당시 매뉴팩처어가 본격적으로 發展하려는 시점에서 中國으로부터의 發展된 技術을 導入할 必要가 컸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中國의 發展된 技術을 잘 도입하려 하지 않았다. 당시 淸나라가 지배하던 中國을 夷狄視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技術의 무조건적 도입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導入 主體가 문제된다. 만일 외국 자체가 주체가 된다면 이것은 침략의 출발이며 국내가 주체가 되더라도 만일 지주 대상인 층에 의해 주도된다면 국내의 모든 산업이 이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당시 小農民, 中小 商工業者 자신이 技術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계층을 위하여는 國家가 代身할 수 밖에 없었다. 國家는 이 밖에도 전반적으로 工業 發展을 위한 效率的 計劃과 保護 施策을 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工業이 發展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관념 즉 그것을 末業으로 보고 賤視하거나 抑制하려는 觀念[末業觀]이 拂拭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丁若鏞은 젊은 시절부터 技術 개발에 관심이 많았다. 丁若鏞은 초기의 〈技藝論〉2에서,

百工之技精 則凡所以製造宮室器用 以至城郭舟船車輿之制 而皆有以堅固便利矣 苟盡其法而力行之 則國可富也 兵可強也 民可裕而壽也

라고 하였다.³⁹⁾ 즉 技術이 發展할수록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이 많아지고 이 결과 富國強兵 및 民의 풍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技藝論〉1에서는 “人彌聚則其技藝彌精 世彌降則其技藝彌工”이라 하여⁴⁰⁾ 技術은 후대로 내려올수록 점점 發展하며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發展 정도가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당시 中國의 技術에 대하여 “中國之新式妙制 日增月衍 非復數百年以前之 中國”이라 하여 매우 발달된 것으로 보았다.⁴¹⁾ 그러나 당시 조선은 中國에 비해 技術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丁若鏞은 그 원인을 “我邦之有百工技藝 皆舊所學中國之法 數百年來 截然不復有往學中國之計……唯舊是安 何其賴也”라 하여⁴²⁾ 中國 즉 淸나라에서 선진 技術을 도입하지 않은데 있다고 보았다.

39) 《全書》1, p.227.

40) 위의 책, p.226.

41) 〈技藝論〉1, 위의 책, p.227.

42) 위와 같음.

이런 주장은 대체로 이른바 北學派의 주장과 일치하며 유형원이나 이익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丁若鏞의 이런 생각을 북학파의 영향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⁴³⁾ 그의 후기 저작인 《經世遺表》 등에서 보이는 朴趾源의 《熱河日記》나 朴齊家 등의 주장을 근거로 技術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젊은 시절 奎章閣에 있을 때 박제가의 집에 직접 가서 北學議를 보기도 하였으며 《經世遺表》 단계에서는 ‘北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技藝論〉 단계에서는 아직 북학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으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學中國之計”라거나 “利用厚生” 같은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북학파의 영향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학파의 영향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청년 시절 정약용 자신이 속하였던 星湖學派는 西學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 中國과 朝鮮에 들어온 西學은 天主教와 西洋 科學技術이 결합된 것이었다. 이익만 하여도 西洋의 科學技術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 따라서 성호학과 속에서 성장하여 西洋의 科學技術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中國의 發展된 技術에 관심을 가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에 처음 發展된 綿業 관련 기구를 갖고 온 것은 성호학파의 李基讓이다.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丁若鏞은 이 기구를 보급할 것을 《經世遺表》에서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초기 저작이라 여겨지는 軍器論에서 서양식 대포인 紅夷砲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⁴⁴⁾ 즉 星湖學派 특히 左派의 서양 技術에의 관심이 丁若鏞에게 技術 일반에의 관심 갖게 하고 그것이 북학파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런 관심의 밑바닥에는 매뉴팩처주의의 이행기인 당시 技術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던 현실적 상황이 기본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3) 技術의 開發과 現實 適用

丁若鏞은 技術 도입을 단지 주장한 것만이 아니다. 그는 水原城을 축조 사업에 직접 참여할 때 中國의 《奇器圖說》에 기초하여 起重架[거중기] 등 發展된 기구를 설계하고 실지 사용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약하기도 하였다.⁴⁵⁾ 이 밖에 성곽 축조와 관련지워 그가 지은 〈城說〉에서는 수원성 축조와 관련하여 기본 방안을 제시하였다.⁴⁶⁾

43) 지두환,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문제점과 방향〉, 《태동고전연구》 3, 1987.

44) 《全書》 1, p.226.

45) 〈기중도설〉(위의 책, p.212 이하) 및 〈총설〉(위의 책, p.214).

46) 위의 책, p.208.

여기서 성 내부에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고 수레의 설계도를 정밀하게 작성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甕城圖說〉 및 〈砲樓圖說〉에서는 각기 성의 방어를 위해 옹성을 축조하는 방안과 포대의 배치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⁴⁷⁾ 종래 화성 축조가 방어 시설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화력에 의한 성의 방어를 생각하였다. 수원성 건설은 새로운 도시 개념에 의해 가로를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각 지역별로 산업을 전문화시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아울러 이것은 종래의 산성 위주의 방어 개념과는 달리 거주지를 사수한다는 개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작업은 정조의 명에 의한 것으로 이전에 정약용이 한강에 舟橋를 설치한 경험을 높이 평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⁴⁸⁾ 水原城 造成의 경험은 그에게 技術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더욱 높여 이를 위한 制度的 裝置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한편 새로운 도시 계획에 대해 눈을 뜨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技藝論〉에서 다소 抽象的으로 생각하던 技術 導入論은 이런 實踐的 過程을 통해 더욱 成熟되었으며 後期에 주장하는 기술 발전과 관련된 여러 制度 改革論이나 都市 計劃論도 이런 과정 속에서 胚胎되었을 것이다.

4. 後期の 技術 發展論

1) 農業 生産力 發展論

後期の 《牧民心書》에서는 水利, 開墾 및 農器具의 改良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牧民心書》 工典 川澤 조에서는 관개 시설의 疏鑿을 주장하는 한편 “土豪貴族 擅其水利 專漑其田者 嚴禁”이라 하여⁴⁹⁾ 水利를 토호가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즉 水利 개발의 이익을 소농민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한편 川澤 조에서는 “川流經縣 鑿渠引水 以漑以灌 與作公田 以補民役 政之善”이라 하였다.⁵⁰⁾ 관개에 따른 개간의 이익을 소농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하겠다.

47) 위의 책, p.220 및 p.221.

48) 〈자찬묘지명〉, 위의 책, p.330.

49) 《全書》 5, p.562.

50) 위의 책, p.559.

둘째 《牧民心書》戶典 勸農 조에서는 西山筆談을 인용하여

徐玄扈 農器圖譜 所列農器 皆質朴易造 別無機牙 刻鏤之巧 而吾東之人有不講行..... 制皆至易 用則至要 牧宜按圖作器 以授民用

이라고 하였다.⁵¹⁾ 위에서 언급하듯이 용도는 중요하면서도 만들기도 지극히 쉬운 것들을 권장하였다. 즉 소농민을 위한 농기구 개량안이라 할 수 있다. “鋤鎌之等 其形狀多與我絕殊 宜亦試其便否 去俗而就華”라고 하므로⁵²⁾ 그의 농기구 도입론이 주체적, 현실적 입장에 선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徐玄扈는 徐光啓이다. 후기의 《牧民心書》에도 전기와 같이 徐光啓의 農學을 받아들이고 있다.⁵³⁾

농기구에 대한 언급은 《牧民心書》工典 공작 조에도 보인다. 여기서 水利와 관련된 기구인 龍尾, 玉衡, 虹吸, 鶴飲 등이 언급되며 노동력 절약이라는 각도에서 주장되었다.⁵⁴⁾ 풍구에 대하여도 노동력 절약이라는 각도에서 언급하였다.⁵⁵⁾ 한편 《牧民心書》工典 川澤 조에서는 “龍尾玉衡 凡水車之制 最是良法”이라 하였다.⁵⁶⁾ 그러나 申景濬이 만들었으나 효험이 없었던 예를 들면서 “必使百工技藝 精鍊入妙 而後此事可議 今姑略之”라고 하였다.⁵⁷⁾ 이것은 〈應旨進農政疏〉에서의 태도와 같다. 《牧民心書》는 지방관이 政治 운영의 개선을 꾀하는 단계이므로 정밀한 기술을 바로 쓸 능력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수로 개착에는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을 큰 돌을 쓰도록 하고 그 운반에는 《奇器圖說》에서 언급한 起重架와 游衡車[수레]와 같은 새 기구를 이용하라고 하였다.⁵⁸⁾ 이것은 이미 丁若鏞이 수원 화성 축조에서 실지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⁵⁹⁾

51) 위의 책, p.445.

52) 위의 책, p.445.

53) 명말에 저술된 것으로서 서두에 農本 항목을 두어 經과 史의 典故와 諸家의 雜論을 언급한 다음한 다음 바로 田制 항목을 두어 〈井田考〉를 쓰고 있다(農政全書總目, 《農政全書》1, 新文豐 출판공사, 1975, pp.69~70). 즉 그의 농서는 기본적으로 토지개혁을 전제로 한 農業技術(生産力)發展論이다. 따라서 農業 技術도 소농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다. 초기에는 아직 農業生産力 發展을 위한 제도적 개혁까지 생각하지는 못하였다.

54) 《全書》6, p.11.

55) 위와 같음.

56) 《全書》5, p.559.

57) 위와 같음.

58) 위와 같음.

한편 後期の《經世遺表》에서는 農業 生産力 發展을 뒷받침할 국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經世遺表》에서는 冬官 工曹에 利用監을 신설하도록 하였다.⁶⁰⁾ 利用監은 여러 방면의 기술을 중국에서 배워 오기 위한 기구로서 農器具 도입도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⁶¹⁾ 즉 소농민은 개별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 도입이 어려우므로 국가에서 이것을 대행하는 것이다.⁶²⁾ 이상에서 보면 《牧民心書》와 《經世遺表》의 農業生産力 發展論은 소농민 입장의 것이다. 따라서 丁若鏞의 農業生産力 發展論은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小農民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手工業 및 鑛業 技術 發展論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丁若鏞은 《牧民心書》 호전 권농조에서는 “作爲農器織器 以利民 用 以厚民生 亦民牧之攸務也”라 하고 徐光啓의 《農政全書》 가운데 織機圖譜에 열거된 攪車, 紡車, 撥車 등을 수령이 새로 만들어 보급하도록 하였다.⁶³⁾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農器織器圖說 載農政全書 今不具論”이라 하여 《農政全書》에 모두 실려 있으니 《牧民心書》에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⁶⁴⁾ 즉 織器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農政全書》 가운데 織器圖譜에 있다.⁶⁵⁾ 위의 織器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⁶⁾

攪車 : 목화씨를 발라내는 기구

撥車 : 실 감는 기구

59) 〈자찬 묘지명〉(집중본), 《全書》 1, p.330.

60) 《全書》 5, p.36.

61) 위의 책, p.37.

62) 《牧民心書》 川澤 조에서 말한 백공의 기예가 정밀하게 된 이후의 단계가 바로 이 이용감을 통해 중국의 發展된 기술이 도입된 단계라고 하겠다. 이 단계에서는 水利와 관련하여 水車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와 후기의 農業 生産力 發展論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국가의 신설 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려는 데에 있다. 물론 후기의 發展論에서도 《牧民心書》의 제1단계에서는 기술 發展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2단계의 《經世遺表》에서 행하도록 구상되었다.

63) 《全書》 5, pp.444~445.

64) 위의 책, p.445.

65) 《農政全書》 35·36.

66) 역주 《牧民心書》 3, 창작과 비평사, p.197, pp.120~127에 의거.

軋狀 : 방거의 일종으로 고치에서 실 뽑는 기구

蟠車 : 발거와 비슷

經車 : 실짚는 기구

繩車 : 실을 꼬아 노끈 만드는 기구

紉車 : 삼신, 발 등을 만들기 위해 노끈 엮는 기구

이상에서 보면 기구의 기능이 기능적 매우 분화되어 있다. 이런 기구를 결합하여 방직 작업을 할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分業的 協業을 構成하게 된다. 따라서 매뉴팩처 단계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丁若鏞이 이를 낙후한 당시 조선의 현실에 도입하려 한 것이다.

한편 攪車는 이미 실제로 李基讓이 청나라에 갔다가 1량을 구입하여 조정에 바친 적이 있다. 국왕 정조가 5군영에 명을 내려 각기 본떠 만들어 8도에 보급하도록 하여 그 製造는 마쳤으나 아직 보급하지는 않았을 때 마침 정조의 죽음으로 중지되었다.⁶⁷⁾ 이 교거의 능력에 대하여 丁若鏞은

其制朴陋不奇 然一人閑坐踏車 日剝綿二百斤 亦足以利紡織而通貨財

라고 하여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였다.⁶⁸⁾ 교거가 비교적 소박한 형태의 것이나 그 생산성은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小農民이 農村 手工業을 發展시키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牧民心書》 工典 공작 조에서는

朴趾源 熱河日記 云經車之制 爲大牙輪 如轉磨之法 經車兩頭亦爲牙輪 齟齬互當 不息自轉 經車者 大簍之盈數抱者 烹繭於數十步之外 而中間 設數十層架……我東抽經之法 惟知手汲 不識用車 人之運手 失天機自然之勢……其視經車之功用 敏鈍又何如也

67) 《經世遺表》 2, 동관 공조, 이용감 조, 《全書》 5, p.37.

68) 위와 같음.

《牧民心書》 공전 공작 조에서는 더욱 자세히 그 구조에 대해 언급하고 아직도 그 최측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집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교거에 대한 정약용의 관심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전서》 6, p.12).

라고 하여 朴趾源의 《熱河日記》를 인용해 소거의 구조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였다.⁶⁹⁾ 소거는 고치에서 실을 켜는 기계인데 당시 조선에서는 생산성이 낮고 품질이 좋지 못하였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이런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위의 《熱河日記》의 주장이다. 丁若鏞 자신이 이 대목을 길게 인용한 것은 여기에 공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밖에도 《牧民心書》 공전 공작조에서는 “作爲田車 以勸農務 作爲兵船 以設戎備 牧之職也” 라거나 “講燒甃之法 因亦陶瓦 使邑城之內 悉爲瓦屋 亦善政也”라 하여⁷⁰⁾ 수레를 만들어 사용할 것, 兵船의 제조, 벽돌(기와 및 도로에 사용)사용 등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수레와 병선의 제조는 교통과 운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商業의 發展과도 관련된다. 그는 병선과 관련하여 “李民秀爲海南水軍使 創造車輪船 送于備邊司”라 하여 輪船의 제조도 언급하였다.⁷¹⁾

광업 기술에 대하여 《牧民心書》에서 매우 발전된 것을 제시하였다. 광업 기술 가운데 정약용은 금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그는 火淘法이라는 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먼저 얼음 창고 형태와 같은 흙구덩이를 파고 헛간 수십 간을 세워 밑에는 따듯한 구들을 만든다. 100명이 흙을 파고 50명이 저서 흙구덩이에 실어다 넣는다. 감독자는 매일 수차례 그 흙을 한 짐씩 시험삼아 체질해서 금의 유무와 다과를 알아본다. 일체 일꾼들로 하여금 사사로이 체질하지 못하게 한다.

흙구덩이에 흙이 가득차면 차례로 따듯한 구들에 옮겨 건조시켜 습기를 제거하고 곧 맷돌로 세세하게 간 다음 성근 체와 고운 체 두가지로 체질하여 먼저 굵은 것을 줍는다. 다음은 車芝法으로 그 체 아래 흙을 버리고 또 篩蹄法으로 그 미세한 것을 취한다. 마지막에 木槽法으로 금가루를 취하면 마른 흙 속에 있는 금이 저절로 한 알의 누락도 없다. 한 구덩이의 흙도 하루가 다 못 가서 체질할 수 있다. 일꾼들은 다만 흙을 파게만 하고 금을 일지 못하게 하면 한 알의 금도 유실될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대저 모래를 일어서 금을 얻는 것은 비록 고금의 상례이나 만약 더운 계절이 아니면 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 농사를 방해하는 해가 오로지 이 때문이다. 점토는 응결되어 분해하기 어려워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모래흙은 비록 분해하기 쉽다고 하나 또한 인력을

69) 위와 같음. 원문에는 ‘烈河日記’라 되어 있으나 烈은 熱의 오식이다.

70) 위와 같음.

71) 위와 같음.

필요로 하니 티끌같은 금을 일기란 지극히 어렵다. 지금 이 화도법을 사용하면 물 대신 불을 사용하고 여름을 겨울로써 바꿀 수 있으니 진실로 더 없이 좋은 법이다.

라고 하였다.⁷²⁾ 이상에서 보면 이 技術은 제련 과정과 채굴 과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제련 과정에서도 물 대신 불을 사용하고 작업 과정이 車芝法, 篩蹄法, 木槽法으로 세분되어 있다. 여기서 이 技術이 노동력이 매우 절감되며 技術的 분업에 기초한 협업임을 알 수 있다. 즉 매뉴팩처어 단계에 해당하는 技術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鑛業에서 상당히 자본주의적 경영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 技術的으로도 單純協業이 아닌 技術的 分業에 기초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⁷³⁾ 이런 시대적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新技術을 導入하여 生産性を 높이려 한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鑛業에서 매뉴팩처어적 단계의 資本主義的 發展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이 火淘法은 《牧民心書》에서 제기되었지만 단지 그 단계에서만 이 技術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음 《經世遺表》의 제도개혁 단계 즉 國營 鑛山論 단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牧民心書》 공전 산림조 말미에서 “既欲火淘 則樵軍須有十餘名方可以繼柴樵也 餘見鑛探考 今姑略” 이라고 하였다.⁷⁴⁾ 여기서의 〈鑛探考〉란 《經世遺表》의 속의 저작으로 계획되었을 것이다. 《牧民心書》의 技術 發展論이 《經世遺表》에도 그대로 계승되는 점에서도 《牧民心書》와 《經世遺表》의 연결성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技術 發展 導入 자체는 丁若鏞의 改革論 가운데 첫단계에 해당한다. 이것은 制度改革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며 制度 改革 없이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은 제도 개혁을 통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에서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3) 技術 發展을 위한 制度改革論

制度改革的 次元의 문제는 주로 《經世遺表》에서 언급하였다. 《經世遺表》 동관 공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技術을 도입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구를 마련하는 등

72) 《牧民心書》 공전 산림조, 《全書》 5, p.558(한문 원문을 번역한 것).

73) 유승주, 〈조선후기 광업사에 관한 일 시론〉,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연구 입문》, 1991 ; 〈조선전사〉 12의 제4장 제3절 “광업에서 공장제 수공업의 형성” 및 제3장 제1절 “광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장성” 참조.

74) 《全書》 5, p.558.

공조의 기구를 대폭 개편하였다. 技術과 관련된 기구는 利用監, 典軌司, 典艦司, 甄瓦署, 燔瓷監, 織染局, 造紙署 등이다.⁷⁵⁾ 이 가운데 핵심은 이용감이다. 丁若鏞은 기구 숫자에 통제를 두는데 공조에는 신설 기구가 많다. 工業 發展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기구 신설에 대해 국가가 가난한데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대해 오히려 국가가 가난하므로 이런 기구를 신설한다고 하였다.⁷⁶⁾ 생산을 중시하는 태도라 하겠다.

정약용은 이용감의 신설을 강력하여 주장하였다. 이 이용감에서 중국에 사람을 파견하여 여러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배워 오며 발달된 기구를 사오도록 하였다. 이용감은 다른 기술 관련 기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각 기술 관련 기구에 선진 기술이 보급되도록 하였다.⁷⁷⁾

典軌司도 신설을 주장하는 기구로서 그 근거는 考工記의 輪人, 輿人, 輶人條 및 車人 기록에 두었다. 전례사 항목에서는 “凡公私所用 悉自典軌司製之 計其工費 定其恒價 令其萬民 輪其家而受其車 其或私造者 嚴禁之可也”라 하여⁷⁸⁾公私 간의 수레는 모두 여기에서 만들어 보급하도록 하되 민간에는 工費를 계산하여 매매하도록 하였다. 그 技術은 “自利用監 北學車制”라 하여 이용감을 통해 中國에서 배워오도록 하였다.⁷⁹⁾ 官에서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은 수레의 규격 통일을 위해서이며 이 수레 규격에 맞춰 도로를 닦도록 하였다.⁸⁰⁾

다음 典艦司의 경우 “三代建國 必據天下之中……故舟艦之制不見考工記”라 하여⁸¹⁾三代적에는 천하 한복판에 있어 고공기에 언급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經世遺表》에서는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가 周禮 또는 考工記를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결과이다. 전함사에서 모든 배를 만들지는 않으나 역시 배의 규격을 9등급으로 통일하였다.⁸²⁾ 한편 전함사에서 만든 배를 漕運船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배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되, 빌려주어 생긴 비용은 배 보수나 건설에 충

75) 《經世遺表》2, 동관 공조, 《全書》5, p.35 이하에서 언급하였다.

76) 위의 책, p.37.

77) 위의 책, p.36.

78) 위의 책, p.39.

79) 위와 같음.

80) 위의 책, pp.39~40.

81) 위의 책, p.40.

82) 위의 책, pp.40~41.

당하도록 하였다.⁸³⁾ 이것은 전함사 자체로는 이윤 추구 행위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다만 당시 舟橋司에서 사방에 배를 빌려주어 과도한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 임대는 지방관아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다.⁸⁴⁾

전함사의 배를 조운선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배가 민간 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 만드는 技術은 이용감이 中國에서 배워 올 수 없으므로 中國이나 日本 배가 난파할 때 가서 조선법을 조사하도록 하였다.⁸⁵⁾ 中國, 日本 배가 표류한 것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서양 배에 대해서도 배울 것을 고려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甄瓦署 역시,

燒瓦之法 燒甃之法 宜自利用監 北學中國 頒其法于甄瓦署 使之燒進 又自本署 頒其法于十二省 使各建廠燒造 以給民用 收其稅于本署 以補公用

이라 하여 利用監을 통해 中國에서 技術을 배워 공장을 설치하고 民需用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 세를 받아 공용에 보충하도록 하였다.⁸⁶⁾ 공용에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윤이 남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燔瓷監은 원래 司饗院의 분원이었는데 이용감을 통해 유리 제조법을 새로이 배우도록 하였다.⁸⁷⁾ 종래의 濟用監도 織染局으로 개편하여 역시 이용감을 통해 새 技術을 中國에서 배우도록 하였다.⁸⁸⁾

宜自利用監 北學中國 以其良法 頒于本局 ‘募工織造’ 而供內用 乃以其法 頒于諸路 以教萬民 於是 錦繡綾緞 皆取用於國中 而金銀諸山 可無悽愴之色 斯亦國計之至深者

라 하여⁸⁹⁾ 공인을 모집하여 직조하여 內用에 공상하며 技術을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83) 위의 책, p.41.

84) 위와 같음.

85) 《全書》 5, p.40.

86) 위의 책, p.41.

87) 위와 같음.

88) 위와 같음.

89) 《全書》 5, p.42.

하였다.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은 위에서 보듯이 그들로 하여금 직조업을 하게 하여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게 함으로써, 비단 등의 구입으로 금이 해외에 유출되던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제용감은 염색만을 주관했으나 직염국에서는 모든 방직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⁹⁰⁾ 造紙署도 이용감을 통해 中國에서 제지법을 배우도록 하였다.⁹¹⁾

대체로 공조에는 신설되거나 다른 부서에서 옮겨오는 기구가 많다. 생산을 중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통일하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丁若鏞은 국가 기구인 공조의 제 기구를 工業 發展의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선조까지 國役に 의한 官匠制 手工業이 존재하였으며 조선 후기는 이런 관장제 手工業이 해체되고 私匠制가 發展하는 시기이었다.⁹²⁾

그러면 丁若鏞의 改革案은 후퇴인가, 혹은 봉건 체제의 재건인가. 첫째 典鑑司, 甄瓦署에서 보듯이 국영 산업의 경영이 이윤이 남도록 하며 織染局에 관한 앞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募工織造”라 하듯이 노동력은 募集 즉 雇用 勞動이며 丁若鏞의 租稅改革을 통해 부역 노동을 소멸시키려 한다.⁹³⁾ 따라서 공조의 각 기구에서의 工業은 고용 노동일 수 밖에 없다. 한편 국가가 하는 것은 전제사나 전합사에서 보듯이 국가의 기간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즉 주요 산업에 관련되는 것은 국가가 통제 또는 관장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國營 産業만을 위해 이상의 공조의 기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직염국에서 보았듯이 발전된 기술을 민간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직염국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利用監에서 技術을 導入하는 자체가 國家 次元에서 全國에 普及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용감 항목의 말미에서 이기양의 교거를 정조가 軍門을 통해 제조하여 전국에 반포하려 한 것을 언급한 데에서도 알 수 있으며⁹⁴⁾ 견와서, 직조국 항에서 보았듯이 이용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을 다시 전국에 보급하려 하였다. 보급 방식은 이용감이 중심이 되어 發展된 技術을 도입하고 이것을 관련 각 기구나 지방 관아에게 전해 주어 이들을 통해 민에게 보급하는 방식을 구상하였을 것이다. 위 織造局 항에서 보았듯이 이용감이 中國에서 배운 技術을 직조국에 전해 주고 직조

90) 위의 책, p.41.

91) 위의 책, p.42.

92) 강만길, 《조선후기 상공업사연구》, 1984 ; 송찬식, 《이조 수공업에 관한 연구》, 1973 참조.

93) 이에 대하여는 줄고, 〈정약용의 조세 개혁론〉, 《인문논총》 7, 아주대인문과학 연구소, 1986. 12, 참조.

94) 《全書》 5, p.37.

국이 다시 전국의 민에게 반포하도록 하였다.

공조의 각 기구는 발전된 기술을 국가가 도입하여 유치한 技術 단계에 있는 민에 보급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小手工業者의 경우 새로운 技術을 습득하거나 기구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에서 이것을 도와주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⁹⁵⁾

한편 丁若鏞은 모든 工人層을 都市에 集中하려 하였다. 이는 《尙書》와 《周禮》의 새로운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周代에 土와 상공 계층은 모두 도시에 집중되고 농민만이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⁹⁶⁾ 이것은 그의 직업관과도 관련이 있다. 九職에 관한 논의에서는 모든 직업이 독립적이고 대등하며 전문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⁹⁷⁾ 따라서 土農工商의 철저한 분리를 생각하면서 농촌에는 농민만이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⁹⁸⁾ 이는 工商을 각기 독립적으로 하여야 산업이 전문화되어 技術이 發展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도시에 工人層을 집중할 경우 이것은 결국 工團이 形成되는 결과가 되어 工業을 더욱 發展시키게 된다. 한 군데 모으면 비록 개별 공장이라도 한 공장에 모으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당시 실제로 店村이라 하여 專門 手工業 地域이 形成되고 있던 현실 상황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丁若鏞의 도시 계획에서 工業 지역이 도시의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지 않다. 현존 사료는 동관 공조 부분이 결여되어 단편적인 기록인 匠人 營國圖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工業 지역에 대한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⁹⁹⁾ 그러나 그의 교육 및 과거제에 대한 改革 논의를 보면 “先王之法 土與土居 工與工居 欲其藝之精專也”라 하여 공인 계층을 위한 별도의 구역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하였다.¹⁰⁰⁾ 또 이것은 後市 지역과 관련지어 만들 것을 구상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工業 제품은 商業과 유기적으로

95) 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을 때 국가가 그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적 기업의 발전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는 소상품 생산자를 위하여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때 기간 산업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는 국가 주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위의 전례나 전함사같은 기구는 그런 각도에서 볼 수 있다.

96) 졸고, 〈정약용의 지방제도 개혁론〉, 《동방학지》 77·78·79합, 1993.6, p.575 이하 참조.

97) 《全書》 5, p.83.

98) 《經世遺表》, 田制 10, 井田議 2, 《全書》 5, p.145.

99) “장인 영국도”와 그에 대한 해설은 《全書》 5, pp.54~59에 수록.

100) 《經世遺表》 지관 수제 “教民之法”, 위의 책, p.254.

관련되고, 後市 지역에는 이용감을 비롯한 공조의 각 기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工業 지역을 도시에 모으려는 것은 지방관의 수탈 등에서부터 手工業을 보호하는 결과도 된다. 당시 농촌 手工業 지역인 점촌에 대하여는 지방관과 아전의 수탈이 많았다. 手工業을 완전히 獨立的으로 하려 한 것도 일종의 保護 措置이다. 당시 手工業이 상인 특히 대상인에 의하여 많이 지배되어 가고 있었는데 手工業을 독립적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大商人의 收奪에서 保護될 수 있다. 丁若鏞의 都市 計劃論은 농촌과 완전히 분리된 專業的 商工業 都市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다음 工業의 發展을 위해서는 규격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는 세금 징수에도 편리하다. 또 척도 및 도량형의 불균등은 수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丁若鏞은 이 때문에 “昔者 有虞氏之巡方也 其大事之首先行之者 曰同律度量衡”이라 하여 도량형을 통일하는 조치를 초기부터 주장하였다.¹⁰¹⁾ 여기서는 도량형을 十進法으로 통일할 것을 생각하였다. 또 《經世遺表》공조의 전례사, 전함사 항목에 보면 수레, 배 등도 9등급으로 통일하고¹⁰²⁾ 度量衡을 관장하는 기구 量衡司를 刑曹에 두어 도량형을 속이는 자에게 極律을 쓰도록 하고 “度量衡者 刑禁之首”라고까지 하였다.¹⁰³⁾

量衡司에서는 해마다 표준척도를 만들어 각 도에 내려보내고 각도에서 이를 기준으로 다시 本司에 보내어 검사를 받고 본사에서 수만개 만들어 민간에 팔도록 하였다.¹⁰⁴⁾ 여기에는 모두 도장, 標識을 하여 사사로이 만든 것을 돈의 私鑄와 같이 간주하도록 하였다. 즉 官印 척도만 쓰게 하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정약용의 과학기술 발전론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그의 기술 발전론 토대에는 주자학적 자연관의 해체, 즉 자연과 인간의 분리와 음양오행론의 부정, 인간 평등관 및 기술적 인간관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전개가 있었다.

둘째 기예론에서 단초적으로 제기된 그의 기술 발전론을 이후 농업, 수공업, 광업

101) <도량형의>, 《全書》1, p.183.

102) 《全書》5, pp.39~40.

103) 《經世遺表》추관 형조 도량형 항목, 위의 책, pp.33~34.

104) 위와 같음.

발전론 등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經世遺表》에서의 이용감 설립 주장 등 제도 개혁론으로 체계화되었다.

셋째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은 초기에는 농본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었으나 후기에 이르러 이를 극복하게 된다.

넷째 그의 수공업, 광업 발전론에서 제시된 신기술은 매뉴팩추어를 지향하는 발전된 것이었다.

다섯째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은 소농민, 중소 상공업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여섯째 그는 기술 발전을 국가 주도를 통해 달성하려 하였으며 새로운 도시 계획과 건설을 통해 상공업을 전업적으로 육성하려 하였다.

일곱째 정약용은 단지 기술 발전론을 제기한 것만이 아니라 주교 설치 및 수원 화성 축조 등에 실지로 참여, 그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의 역사적 위치 및 의의와 현재적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실학자의 기술 발전론은 이익 단계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며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북학과 단계에 이르러 청조 문물 도입론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 정약용은 이런 이익과 북학파의 두 흐름을 계승하는 위에 이를 보다 발전시켜 기술론 자체를 보다 체계화하는 한편 기술의 발전을 국가 기구의 개혁을 통해 적극화하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은 수원 화성 축성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특히 국가 기구의 개혁을 달성하려는 그의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왜 북학파나 정약용의 주장과 같은 기술 발전론이 당시 사회에서 채용되지 않았는지가 문제된다. 그것은 우선 당시 지배층에 입장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는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은 기본적으로 소농민, 중소상공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므로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이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보다 그들의 식민지가 된 궁극적 원인은 과학과 기술의 낙후성에 있다. 일본의 경우 화란 등 서양과 직접 연결 통로가 있는 등 유리한 외부적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분권화된 각 번의 경쟁 체제라든가, 주자학적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이 없는 점 등 일본의 내부적 조건이 우리보다 유리하였던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경우 당시 국내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전체적으

로 기술 발전의 도입을 어렵게 한 것이다. 정약용의 기술 발전론은 국가 제도 전체에 그의 총체적 개혁론의 일부로 제기된 것으로 이런 전면적 개혁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체와 분리하여 그 자체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사회 세력들 사이의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상충, 사회의 적극적 인식과 수용 태세 등이 관련되는 것이다.¹⁰⁵⁾ 즉 사회 전체의 개혁 및 그 개혁을 추진해 갈 새로운 계층의 대두 및 육성과 더불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조선후기 정조대에 정약용 등의 신기술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우리는 수원 화성과 같은 훌륭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세도 정권기 이후 정약용이 기구 신설과 개혁 등을 통해 이룩하려한 것과 같은 적극적인 과학과 기술 발전 및 현실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낙후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생존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지금은 우리 모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속히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그것을 그 자체로서만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105) 이런 문제와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의 저서가 참고된다.

ROBERT E. MCGIN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Prentice Hall, Englewood, New Jersey, 1991.

평택 원정리 유적 발굴조사 개요

1. 머리말

본 유적은 아산국가공단 조성사업의 일환인 (주)기호물류 평택터미널 건설공사로 인하여 1994년 아주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이 일대에 패총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아주대학교 박물관(A지구)과 서울대학교 조사단(B지구) 공동으로 정식의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유적의 위치와 입지

유적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산 109-430번지 일대에 속하며 서해상의 아산만과 남양만이 갈라지는 돌출부에 위치한 해발 49m의 잔구성 야산의 남사면 谷間地帶에 형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패총의 바로 아래로는 바다 쪽으로 약 5m 높이의 낭떠러지이며 해안에는 모래톱과 자갈을 많이 포함한 갯벌과 암초들이 펼쳐져 있다. 조수 간만의 차이는 현재 약 6~7m이며 최대 간조시 100m 정도의 간석지가 드러나는데, 이 패총은 그러한 암초를 포함한 갯벌에서 서식하는 풍부한 어패류를 대상으로 한 생산활동의 결과로써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본 유적의 입지는 수산자원이 풍부한 해안과 방풍에 유리한 활동공간이 어우러져, 생산활동과 거주라는 측면에서 適所였다고 할 수 있겠다.

3. 조사내용

가. 유적의 형성과정 및 층위

패총은 최고 해발 49m인 잔구성 야산의 남사면 谷間地帶에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26m 정도에서 부터 시작되는 구릉 상부의 패각층은 매우 얇게 잔존해 있으나 구릉 아래로 내려 오면서 패각층은 2m 이상까지 두터워지는데, 패각은 이 구릉 일대 1,000여 평의 범위에 분포한다.

A지구에서는 일부 지점에서 고토양층이 확인되었고, 출토량이 많지는 않지만 구석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을 인간이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후기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며 고토양층 상부에 신석기시대 생활면으로 추정되는 흑갈색 점토층이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홀로세(Holocene) 이전에 이곳의 지형은 고토양층의 잔존 양상과 전반적인 토양퇴적상태로 보아, 구릉 정상부와 골짜기가 현재의 표고보다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홀로세에 접어들면서 해수면의 상승과 더불어 海水의 영향에 의한 구릉 하단부의 침식으로 구릉 내부의 침식도 부수적으로 활발해 짐으로써 골짜기가 형성되었으리라 추측된다.

A지구에서는 교란되지 않은 신석기시대 패층이 부분적으로 얇게 분포하고 있지만, 이 상부의 패층은 잘게 부스러진 파쇄패각으로 형성된 층으로 재퇴적 또는 교란이 극심하여 층위에 따른 출토유물의 맥락을 밝히는 데에 유효한 정보를 줄 수 없을 정도이다. 즉, 파쇄패각층에서 즐문토기, 점토대토기, 타날문토기편 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자기편·기와편 등이 일정한 층서를 이루지 않은 채로 출토된 것이다.

한편, B지구의 패층은 대부분 재퇴적 결과 교란되었다. 조사 당시 구분되는 층위는 가까운 과거(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조선시대)의 퇴적과정을 보여줄 뿐, 폐기 당시의 퇴적순서를 보여 주는 패층이나 패각 무더기는 잔존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집자리는 적색 점토면을 파고 건축되었는데, 집자리 바닥을 고르는 과정에서 패각과 점토면을 깔아 다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집자리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패층이 존재하였음과 집 건축과정에서 패층의 상당한 교란, 그리고 집의 폐기 이후에 패각들의 재퇴적을 시사한다. 또 최근 군부대의 여러 공사로 교란이 가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유적은 구석기시대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거점으로 이용하면서 형성되었으나 각각의 시기들 이후에 지속적이지아 빈번하게 이 지역이 점유됨으로써 그

리고 자연 침식된 결과로써 앞 시기의 유구들은 파괴·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패총과 그 윗부분, 구릉 상단부의 토양 퇴적상황은 이곳 지형이 기본적으로 침식 및 퇴적 활동이 비교적 왕성하였음을 보여 준다.

나. 유구

1) 야외노지

A지구 파쇄패각층 아래 황갈색 점토층 위에서 검출되었다. 노지는 길이 8~20cm 정도의 크고 작은 할석을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배치해 만들었으며 내부 바닥시설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할석들은 불 먹은 흔적이 있으며 노지 사용에 의한 숯들이 집중되어 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며 숯의 집중 분포범위는 30cm×30cm 정도이다.

2) 온돌 집자리

온돌 집자리는 A지구에서 1기, B지구에서 28기 모두 29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온돌 난방체계를 갖춘 주택의 하부구조로서 방과 부엌으로 구성된다. 아궁이는 방보다 한 단 낮은 부엌 바닥을 파고 들어가 방바닥 방향으로 장타원형으로 뻗어 고래들과 만나는 구조이다.

부뚜막은 아궁이와 결합된 방식의 취사시설로서, 아궁이 재결르개의 바깥쪽, 부엌에 위치하는데, 진흙과 점토, 패각을 섞어 솔을 놓을 수 있도록 터널형 솔받침 시설을 한 것으로 그 아래에 움푹 패인 부분은 재아궁이 구실을 한다.

벽체시설은 그 기초가 돌과 패각과 점토를 섞어 쌓은 것이 확인되었으나 기둥과 지붕 등의 상부구조는 그 증거가 잔존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방의 규모는 약 1~2평 사이로 비교적 작는데, 이는 이들 집들이 일상의 복합 생활 공간이라기 보다는 단순 침식전용 주택이었음을 시사한다. 총 29기의 집자리 가운데 중복된 집자리의 수는 19기로, 중복이 매우 심한 편이다. 이것은 이들 집들이 장기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던 공간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들의 중복양상은 이곳 주민들이 손쉽게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경향을 잘 보여준다. 기존의 집에 중복시켜서 또는 인접하여 집을 지을 때의 잇점은 기존의 구조와 재료를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과 소요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복된

집들 사이에서 먼저 지어진 집은 구들돌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반면, 나중에 지어진 집은 구들돌이 잘 남아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 온돌 집자리의 축조시기는 14호 집자리에서 상평통보(1678년 이후 주조) 한 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이다. 실제로 상평통보가 일반인들에게 보급 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18세기 이후부터 건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출토유물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자연유물은 패류뿐이었다. 魚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패류는 굴이 거의 대부분이고 소라와 대합이 약간 확인되었다.

구석기시대 유물로는 밀개, 굽개, 톱니날 등의 석영제 석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유물들을 포함한 토양은 구릉 상부에서 흘러 내려온 재퇴적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는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신석기시대 토기의 태토는 기본적으로 점토질에 사립이 섞인 것들로서 사립의 굵기와 양은 다양하다. 표면의 색깔도 황적색, 회흑색, 갈색 계열로 다양하나 태토와 색깔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문양은 아가리와 몸체 부분이 시문수법과 문양요소에서 차이가 난다. 구연부의 문양은 거의가 시문구로 찍어눌러 새긴 것으로 문양요소는 단사선문인 반면, 몸체 부분의 문양은 거의가 그어 새긴 것으로 문양요소는 어골문이 가장 보편적이며 마름모 요소도 보인다. 저부는 수습된 수가 적어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나 외형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그리고 아가리의 외형은 대체로 곧은 아가리에 입술을 직선 처리한 것들이나, 소위 '금강식'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입술이 외반된 것도 한 점 출토되었다. 석기로는 석착과 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유적의 빗살무늬토기들은 기존에 보고된 서해안 지방의 것들과 문양 및 외형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유물 구성은 신석기시대에 비해 좀 더 다양해 진다. 무문토기는 굵은 사립이 많이 섞여 조잡한 것과 상대적으로 정선된 것이 있으며 태토 만으로는 신석기시대 토기와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수 있다. 출토된 무문토기는 원형 및 삼각형 점토대토기의 구연부편과 축약된 외형의 저부편들이 있다. 석기로는 타제의 팽이머리,

마제석부, 석축, 돌낫 파편, 숫돌 등이 출토되었다.

타날문토크편들은 대체로 적갈색 연질에 격자타날이 가해 진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승문타날에 침선이 돌려진 동체부편도 출토되었다. 기종은 대개가 심발형에다 소형호가 소수 보이며 경질토크도 소량 보이는데, 연질과 경질의 정도 차이는 심하지 않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는 것도 간혹 있으나 사립이 약간씩은 혼합되어 있고 정선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

조선시대 유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백자이다. 이 시대의 유물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기종은 접시류, 잔류, 대접류 등 다양하다. 그 밖에 숫돌 및 옹기편 다수와 기와류도 약간 출토하였다. 이와 같은 유물들은 조선시대에서도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집자리의 축조연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자료로 상평통보가 집자리 내부퇴적토와 교란된 패각층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5. 유적의 성격과 조사의의

원정리 유적은 구석기시대부터 인간이 점유하기 시작하여 각각의 시기들 이후에 지속적이지 빈번하게 점유됨으로써, 그리고 자연 침식된 결과로써 앞 시기의 유구들이 파괴·유실되어 신석기시대 야외노지와 조선시대 온돌 집자리들이 잔존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집 건축행위는 기존의 유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패총과 그 윗부분, 구릉 상단부 토양의 퇴적양상은 이곳 지형이 기본적으로 침식 및 퇴적활동이 비교적 왕성하였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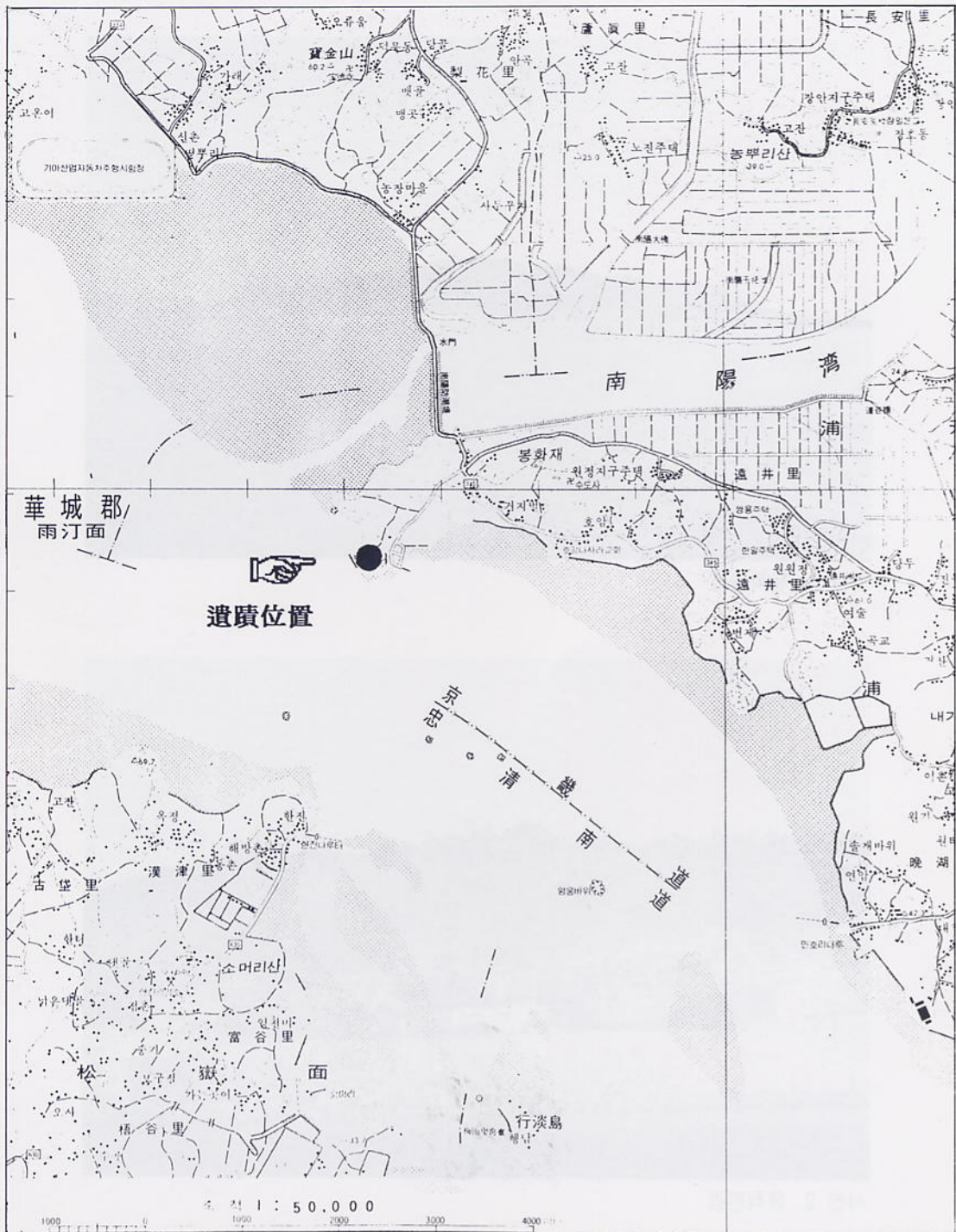
패각층은 부분적으로 잔존하는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퇴적 또는 후대의 인위적인 파괴에 의해 심하게 교란되었기 때문에, 유물과 유구의 맥락을 밝히는데 많은 정보를 줄 수 없을 정도이나 고고학 유적의 형성과정과 잔존과정에 대한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온돌 집자리들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경제 생산에 조응하는, 장기 거주 협력공동체 성격의 마을유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족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집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점, 작업공간이나 외양간, 공동우물터 따위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집자리 개개

의 본질적 성격이 단순한 보온공간으로만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들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유적의 조선시대 온돌 집자리들은 유물상에서 근거를 제시해 줄 만한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규정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전문화되고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집단 내지 계층의 숙소 전용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타지역 자료가 누적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 이 글은 발굴조사 종료 후,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한 약보고를 근거로 한 것임. —



도면 1. 유적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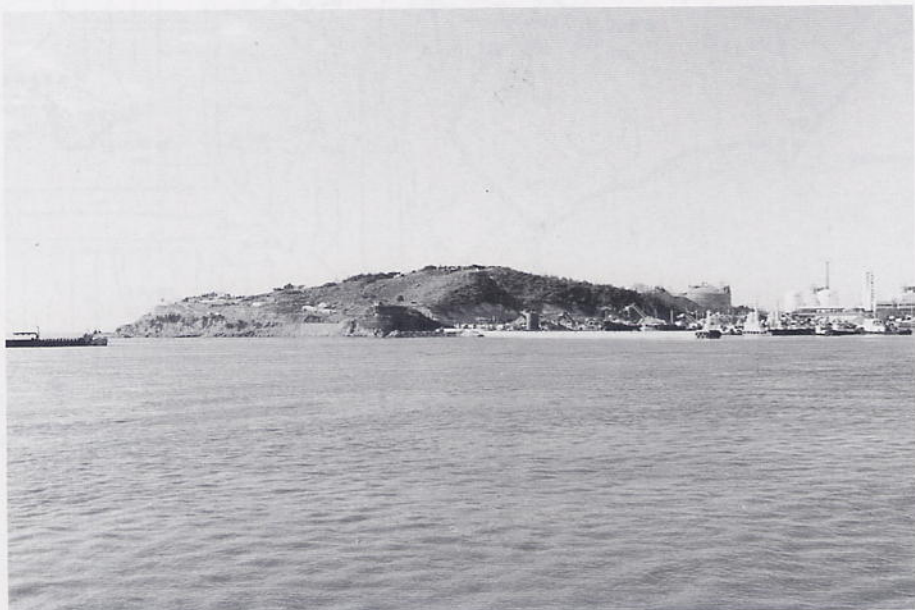


사진 1. 유적원경



사진 2. 유적전경



사진 3. 야외노지



사진 4. A지구 온돌 집자리



사진 5. B지구 1, 2호 온돌 집자리



사진 6. 구석기



사진 7. 신석기시대 토기편



사진 8. 신석기시대 석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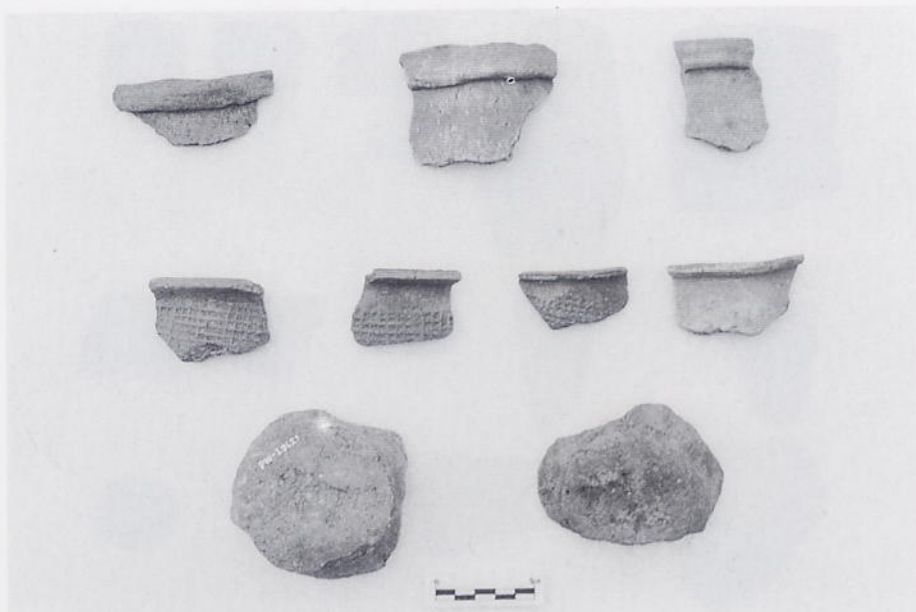


사진 9. 점토대토기 구연(上), 저부편(下), 타날문토기편(中)



사진 10. 청동기시대 석기류 각종



사진 11. 조선시대 백자류



사진 12. 조선시대 기와 및 숫돌



①



②

사진 13. 상평통보

박물관 소식

1. 연구 조사활동
2. 학술강연회
3. 특별전시
4. 絲田 허동화 刺繡博物館長
본교 박물관에 작품 기증

1. 연구 조사활동

1) 평택 원정리 유적 발굴조사 (1995년 11월 - 1996년 6월)



사진 1. 평택 원정리 유적 발굴조사 광경
(Trench method와 Isolated Block method를 통한 貝殼層조사)



사진 2. 평택 원정리 유적 발굴조사시 노출된 貝殼層과 조선시대 집자리

2)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996년 3월 - 10월)



사진 3. 경기도 광주군 분원리 조선시대 백자요지 白磁片



사진 4. 남한산성 성벽 전경

2. 학술강연회

본교 박물관에서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연 2회 학술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도에는 숫자의 발달과정을 고고학적으로 살펴 본 고고학에서의 수학의 역할이란 제목의 강연과 국내외 유적, 유물을 사례로 살펴 본 고고학과 민족주의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학술강연회는 관심있는 교직원과 학생, 외부인사들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실시되었다.

1. 고고학에서 수학의 역할

일시 : 1996년 5월 28일 16시

장소 : 다산관 213호

강사 : 방승진 (아주대학교 기초과학부 교수)

2. 고고학과 민족주의

일시 : 1996년 10월 30일 16시

장소 : 을곡관 527호

강사 : 추연식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3. 특별 전시

아주대학교를 찾는 외부인과 본교생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 사전(絲田) 허동화 선생이 기증한 작품 70점 중 일부가 아주대학병원 1층과 2층, 본교 을곡관 2층에 특별 전시되고 있다.

본교 박물관에 작품을 기증하신 絲田 허동화 선생은 빗바랜 옛 보자기와 刺繡品들에서 美와 價値를 찾아내어 우리의 刺繡제품을 격조 높은 예술품으로 승화시킨 우리 자수 문화의 권위자로, 현재 絲田 刺繡博物館을 통하여 우리 刺繡文化의 보존에 애쓰고 계시는 한편, 우리들에게서 멀어져가고 있는 조상의 손때가 묻은 각종 농기구와 생활용품들을 서로 어울리게 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재창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특별 전시 중인 작품은 조상들의 손때가 묻은 농기구와 농촌 생활용품들을 조합, 재구성한 오브제로, 전통 농구에 대한 이해와 조상들의 일상에서 베어나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4. 絲田 허동화 刺繡 博物館長 본교 박물관에 작품 기증



1) 絲田 허동화先生 약력

1926년 생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사전자수연구소 소장

사전자수박물관 관장

사)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저서

한국의 자수(국문판/1978년)

한국의 고자수(일어판/1982년)

규중공예(한.영문판/1988년)

전시도록 20권 집필

전시

개인전(갤러리 시우터, 서울)

(한림 갤러리, 대전)

수상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한국의자수/ 1979년)

한국출판문화상, 제작상(옛보자기/ 1989년)

2) 작품 설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즐거움, 만나는 기쁨

모든 농기구나 가재도구들은 필요성에 의해 태어나며, 인간은 잠시 자연에서 빌어와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래서일까 그것은 무의식중에, 만드는 이가 늘 보아 온 자연을 닮아 있다. 또 실용적이고 공을 들여 만드는 동안 자연이라는 신과 교감하게 된다. 늘 곁에 있어서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미학적 면모가 실용성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제 실용성을 잃어버린 것들이 내 손에서 다시 구성되고 보니 그것이 지녔던 본래의 아름다운 면모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뿐인가. 나는 곧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가는 환각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렇게 만든 작품이 어느새 60여점이 넘었다. 거의 대부분 애당초 생긴 그대로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 조금이라도 원형을 훼손시켜 무엇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신만은 철저하게 지켰다. 버려질 운명에 있었던 가재 도구들이 내 손을 거쳐 군학, 새, 신랑신부, 우물가 이야기 등의 이름을 달고 세상 사람 앞에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

평생 우리 것의 아름다움 속에 살아오면서 어느덧 우리 것의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대화할 수 있는 눈을 지니게 되었고, 조상의 정성과 생각을 읽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의 뜻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미적 감흥에 젖어 작품에 몰입했을 뿐이다. 조상과 자연과 나의 합작인 셈이다.

- 사전(絲田) 허동화 -

〈絲田 허동화 寄贈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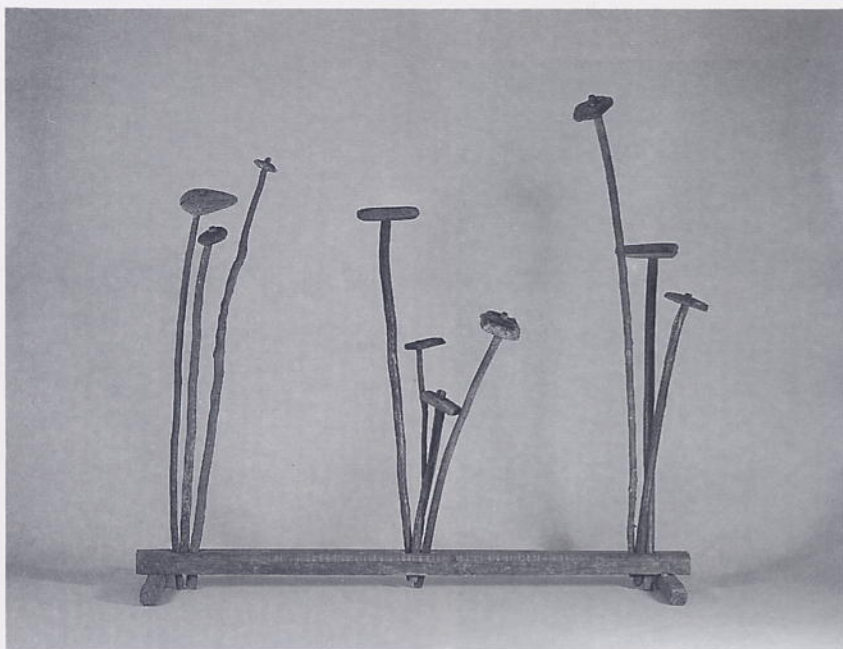


생각하는 공작새 I

47 * 27 * 67cm

새모양의 낙지 잡는 도구 손잡이 쪽에 맞춘 자그마한 쇠갈퀴리를 꼽았다. 그것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그럴 수 없이 어울렸다. 새 한마리가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자세로 가지에 앉아 기분이 좋은 지 꼬리를 흔드는 듯했다. 이 쇠갈퀴리는 우물에 빠진 두레박을 건져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

- 사진(絲田) 허동화 -



고무래버섯
145 * 50 * 135

고무래는 우리 시골과 어머니의 고된 삶과 내 생활의 상징이다. 신새벽, 초가집의 노천 부엌에서 어머니는 나무를 때서 밥을 짓고 남은 것은 질화로에 담아 방안에 밀어 놓곤 했다. 그러면 아침은 어느덧 다독거려진 불씨처럼 훈훈하고 웅글졌다. 긴 막대기에 손바닥만한 나무조각을 댄 고무래는 불덩이를 긁어내거나 재를 덮을 때 사용한다. 희고 긴 나뭇가지에 닿아서 개피떡 만한 나무 조각이 붙은 고무래를 서너개씩 가마니를 양쪽 구멍에 꿰었다. 막 고개를 든 새순 같기도 하고 웅기종기 모인 버섯처럼 보이기도 했다.

- 사전(絲田) 허동화 -

〈絲田 허동화 寄贈 作品 目錄〉

소장품번호	작품명	작품크기 (장 * 폭 * 고 cm)
139	내가 살던 고향	96 * 37 * 45
140	수다 I	37 * 27 * 25
141	수다 II	33 * 27 * 25
142	수다 III	36 * 22 * 23
143	보부상	24 * 16 * 30
144	야사	42 * 10 * 17
145	소풍	77 * 32
146	황해도	58 * 37
147	단오절	85 * 38
148	장터	105 * 46 * 25
149	고무래버섯	145 * 50 * 135
150	홍학군무 I	120 * 60 * 75
151	장생초	92 * 30 * 70
152	홍학군무 II	200 * 27 * 140
153	연못과 새와 고기	180 * 37 * 85
154	우리집 마당	180 * 20 * 45
155	기러기 나홀로	120 * 60
156	가냘픈 여우	155 * 95
157	타조 I	60 * 20 * 55
158	타조 II	77 * 22 * 40
159	화합	지름 35, 높이 45
160	방울새	80 * 20 * 45
161	꼬리달린 두루미	100 * 30 * 100
162	낮꼬리새	102 * 70
163	생각하는 공작새 II	1)120 * 120 2)120 * 130
164	족새	30 * 23
165	투계	43 * 8 * 33
166	물새	35 * 10 * 21
167	곰보미인	46 * 27 * 170
168	심술맞은 새	27 * 18 * 45
169	물새	20 * 58
170	수탉	43 * 8 * 70

소장품번호	작품명	작품크기(장 * 폭 * 고 cm)
172	허수아비	46 * 63 * 172
173	난초	54 * 12 * 38
174	줄꽃	지름 15, 높이 44
175	우직한 꽃	21.5 ~ 22 * 58
176	우직한 꽃	지름 12, 높이 34, 36, 36
177	용두사미	47 * 90
178	야생초	지름 18, 높이 37
179	생각하는 공작새 I	47 * 27 * 67
180	새가 된 나무	56 * 28 * 59
181	방울꽃 II	1) 지름 10, 높이 30 2) 지름 11, 높이 45
182	등지	110 * 80 * 170
183	초야	31 * 8 * 28
184	이상한 꽃	지름 13.8, 높이 36
185	등잔꽃	지름 25, 높이 63.5
186	비천	지름 12, 높이 54
187	공해	지름 13, 높이 42
188	함박꽃	12 * 7.5 * 44
189	生과 死	118 * 40.5 * 54
190	피보토끼	70 * 19 * 115
19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3 * 41 * 88
192	나사렛 예수	67 * 23 * 42
193	자화상	24.5 * 88
194	만물상	86.5 * 46 * 49
195	물방울 등잔	지름 8, 높이 69
196	달밤	46 * 150
197	거북이들의 무도회	38 * 111
198	대패의 결혼식	80 * 32 * 58
199	갈대밭의 사람들	118 * 49 * 189
200	시골 봉화	81 * 17 * 107
201	새장	1) 22 * 56 2) 25 * 59
202	여린 생명	35 * 113
203	저 높은 곳을 향하여 II	48 * 30.5 * 101

소장품번호	작품명	작품크기(장 * 폭 * 고 cm)
204	스님	지름 48, 높이 80
205	환희	50 - 66 * 84
206	아파트	1)20 * 133 2)17 * 145
207	코쟁이 미인(신랑 신부)	18 * 11 * 42
208	무제	35 * 130

〈受贈圖書目錄〉

所藏番號	圖 書 名	寄 贈 機 關	受贈日字
207	金海 德山里遺蹟	경남대학교박물관	1996. 1.10
208	扶蘇山城發掘調査中間報告書	부여문화재연구소	"
209	禪雲寺東佛庵發掘 및 磨崖佛實測調査報告書	"	"
210	驪州 梅龍里 용강골 古墳群 發掘報告書	한림대학교박물관	1996. 1.17
211	驪州 梅龍里 용강골 古墳群Ⅱ 發掘報告書	"	"
212	楊州 大母山城 發掘報告書	"	"
213	泗川 柳川里 기와가마터	경상대학교박물관	"
214	陝川 玉田 古墳群 V	"	"
215	한국도기전	연세대학교박물관	1996. 2. 7
216	한국도기전	"	"
217	한국의 기와	"	"
218	연장(전통공예공구)	"	"
219	한국의 금속기	"	"
220	한국인의 신앙전통	"	"
221	생활사 중심의 신수품전	"	"
222	한국의 전통의약	"	"
223	Chosun Dynasty in KOREA THE SPACE of Man & Woman	국립중앙박물관	1996. 3.26
224	三佛文庫圖書目錄	서울대학교박물관	"
225	國立博物館의 役割과 位相	국립중앙박물관	"
226	개발과 보존	한국토지개발공사	"
227	淸堂洞 II	국립중앙박물관	"
228	利川 孝養山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호암미술관	"
229	朝鮮時代名品展	한신대학교박물관	"
230	龍仁 水枝2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	"
231	牙山國家工團遺蹟發掘調査報告書	"	"
232	충주 미륵리 백자가가마터	충북대학교박물관	"

所藏番號	圖 書 名	寄 贈 機 關	受贈日字
233	淸州 新鳳洞 古墳群	충북대학교박물관	1996. 3.26
234	年報 4	"	"
235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23) 服飾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236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22) 廣州 分院里窯 靑畫白磁	"	"
237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21)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	"
238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20) 韓國書蹟	"	"
239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19) 近代作家 20人展	"	"
240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18) 螺鈿漆器・華角工藝	"	"
241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17) 文房具 100選	"	"
241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16) 통일신라・고려 질그릇	"	"
243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14) 조선 백자 항아리	"	"
244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13) 粉靑沙器 附：扶安 牛東里窯 出土品	"	"
245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12) 扶安 柳川里 高麗陶瓷	"	"
246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11) 소반	"	"
247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10) 高麗陶瓷	"	"
248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9) 木工家具	"	"
249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8) 조선시대의 그림	"	"

所藏番號	圖 書 名	寄 贈 機 關	受贈日字
250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7) 명기와 묘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6. 3.26
251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6) 木工小品	"	"
252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5) 耆社契帖	"	"
253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4) 文房具(2) 필통과 필가	"	"
254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3) 文房具(1) 벼루와 연적	"	"
255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特別展 圖錄(2) 古墳壁畫	"	"
256	韓國大學博物館協會創立 30周年紀念 제28회 연합전시회도록 한국의 장신구	"	"
257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00주년 기념 博物館所藏品目錄	"	"
258	水原 靈通 高麗遺蹟發掘報告書	한신대학교박물관	"
259	陝川댐水沒地區地表調査報告書	경상남도	"
260	釜山女子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5輯 加德島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부산여대박물관	"
261	釜山女子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6輯 山淸郡 文化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부산여대박물관	"
262	釜山女子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1輯 昌原三東洞甕棺墓	"	"
263	釜山女子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第2輯 居昌壬佛里天德寺址	"	"
264	第1回 國際印刷出版文化 學術會議 世界속의 韓國印刷文化 出版文化	청주고인쇄박물관	"
265	古印刷文化	"	"
266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 표준화 방안	국립중앙박물관	"
267	遺蹟調査報告書 第18輯 鎭川郡 文化遺蹟	청주대학교박물관	1996. 4.15

所藏番號	圖 書 名	寄 贈 機 關	受贈日字
268	淸州大學校 博物館報 第8輯	청주대학교박물관	1996. 4.15
269	釜山廣域市立博物館年報 第18輯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6. 5.17
270	博物館研究論輯 4	"	"
271	京畿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查報告書(上)(下)	경기도	"
272	韓國古美術史料展	한국고미술협회	"
273	鎭海龍阮遺蹟(第1·2次 合輯)本文, 圖版, 附錄	한국토지공사 동아대학교박물관	"
274	考古歷史學志 第10輯	동아대학교박물관	"
275	巨濟市 城址調查報告書	"	"
276	古蹟調查報告 第二十三冊 金海德山里民墓群	"	"
277	博物館誌	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6. 3
278	善山 洛山洞 古墳群	효성여자대학교박물관 선산군	"
279	효성여자대학교 창립40주년 博物館圖錄	효성여자대학교박물관	"
280	전라남도 농업 박물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
281	順天大學校博物館 地方文化資料叢書 第五 迦智山 寶林寺精密地表調査	순천대학교박물관 가지산 보림사	"
282	誠信女子大學校 博物館圖錄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
283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
284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	"
285	京畿道 半月地域 安東金氏墳墓 發掘調査報告書	"	"
286	民俗博物館의 世界	"	"
287	韓國服飾 제14호	단국대학교부속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	1996. 6.20
288	韓國服飾 제15호	"	"
289	年譜 1995	창원문화재단연구소	"
290	예학명과 중국 양자강 유역 석각	연세대학교박물관	"
291	馬韓百濟文化 제7집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所藏番號	圖 書 名	寄 贈 機 關	受贈日字
292	馬韓百濟文化 제8집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6. 6.20
293	馬韓百濟文化 제9집	"	"
294	馬韓百濟文化 제11집	"	"
295	馬韓百濟文化 제12집	"	"
296	馬韓百濟文化 제13집	"	"
297	博物館圖錄	원광대학교박물관	"
298	화성 건건리·팔곡리·둔대리유적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
299	박물관회보 제6호	"	"
300	保寧 鳴川洞 百濟古墳群 - 1995년도 발굴조사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공주대학교박물관	"
301	忠州 - 水安堡間 國道 4次線 擴張區間 文化遺蹟地表調査略報告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산업대학교박물관	"
302	忠州山城 2次發掘調査報告書	충주산업대학교박물관 충주시	"
303	韓國上古史學報 第21號	한국상고사학회	"
304	韓國考古學報 34	한국고고학회	"
305	경남대학교박물관소장 테라우찌문고 특별전도록	경남대학교박물관	"
306	安東地域 傳統 服飾	안동대학교박물관	"
307	年報 제5집	광주광역시립박물관	1996. 9.30
308	古文書資料集(Ⅰ)	광주민속박물관	"
309	安東의 書院 享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1996. 6.20
310	가마와 소반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
311	館山, 館倉遺蹟 周邊의 歷史와 文化	고려대학교 매장문화 연구소·(주)대우	1996. 6.28
312	館山里 遺蹟	"	"
313	특별전, 《한국, 100개의 자화상》 자료집	국립청주박물관	1996. 7. 3
314	박물관년보(1) 공주대학교 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1996. 7. 8
315	君德里住居遺蹟	"	"
316	所斤鎭城	"	"

所藏番號	圖 書 名	寄 贈 機 關	受贈日字
317	新羅伽耶文化圈遺蹟精密地表調查報告 (咸安郡의 先史, 古代遺蹟)	창원문화재연구소 창원대학교박물관	1996. 7. 8
318	박물관연보 제5호	대구교육대학교박물관	1996. 7. 9
319	백제 금동향로와 석조 사리감	국립대구 박물관	1996. 7.16
320	이화명품전 1. 옛가구의 아름다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321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박물관	1996. 7.29
322	考古美術史論 4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323	韓國史研究彙報 제93호	국사편찬위원회	1996. 7.30
324	Museums and Art Museums of KOREA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1996. 8. 6
325	穩穩寺 발굴조사보고서	과천시 수원대학교박물관	"
326	漢陽大學校 博物館 收藏 遺物選	한양대학교박물관	"
327	《直指》活字 復元 報告書	청주고인쇄박물관	1996. 9.30
328	《直指》	"	"
329	澗松文華50 開館25周年紀念眞景時代展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6. 8.16
330	華城行宮址 제1차 발굴조사보고서	수원시 · 한양대학교 · 수원대학교	"
331	加羅文化 제12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6. 8.20
332	慶州市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 경주시	"
333	金泉市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 경주시	"
334	下鳳里 I	국립공주박물관	1996. 8.26
335	河南省 校山洞一帶 文化遺蹟	세종연구원	"
336	國立慶州博物館年報 1995년도	국립경주박물관	1996.10. 9
337	天安長山里遺蹟	충남대학교박물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338	神衿城	충남대학교박물관	"

所藏番號	圖 書 名	寄 贈 機 關	受贈日字
339	大田~唐津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考古遺蹟地表調査・民俗調査報告書 (大田~西公州, 禮山~唐津)	충남대학교박물관 한국도로공사	1996.10. 9
340	牙山國家工團 忠南富谷地區 考古・民俗調査報告書	충남대학교박물관 한국토지공사	"
341	牙山國家工業團地造成豫定地域 文化遺蹟確認調査報告書	충남대학교박물관	"
342	牙浦・咸昌間의 文化遺蹟 中部內陸高速道路 豫定區間의 地表調査	영남대학교박물관 한국도로공사	"
343	唐津郡 埋葬文化財 分布調査	당진군·고려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
344	조선시대 매매거래 문서	국민대학교박물관	1996. 10.14
345	발한동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강원고고학연구소	1996. 11. 2
346	古文書 特別展(I)	충주박물관	1996. 10.14
347	錫杖洞遺蹟	동국대경주캠퍼스박물관	"
348	수원정자지구 및 매탄 4지구 문화유적	수원대학교박물관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	1996. 10.17
349	韓國考古學報 35	한국고고학회	1996. 10.18
350	甘浦觀光團地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경주관광개발공사 동국대경주캠퍼스박물관	"
351	다보성 고미술 명품전	多寶城 古美術 展示館	"
352	先史文化 4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6. 10.22
353	한국의 유기	광주민속박물관	"
354	韓國史研究彙報 제94호	국사편찬위원회	1996.10.29
355	서울大學校博物館 年報 7	서울대학교박물관	1996.11.11
356	창학 90주년 기념특별전 숙명 90년 발자취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
357	영흥도화력건설사업지구 문화재지표조사결과보고서	한국전력공사 인하대학교박물관	1996.11.14
358	韓國上古史學報 第22號	한국상고사학회	"

所藏番號	圖 書 名	寄 贈 機 關	受贈日字
359	尙州 青里遺蹟 發掘調査 概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11.25
360	貨幣博物館	한국조폐공사	"
361	韓國貨幣全史	"	"
362	咸安岩刻畫古墳	창원문화재연구소	1996.12.10
363	澗松文華「11月の 文化人物 澗松」追慕特輯 51	한국민족미술연구소	"
364	조선왕실그림	궁중유물전시관	1996.12.23
365	홍천 북방지구 공업단지 조성 사업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조선맥주주식회사 강원대학교	1996.12.24
366	島嶼文化 제13집 - 莞島郡 古今島 調査報告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6.12.30
367	韓國史研究彙報 제9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6.12.30

科技考古研究 第2號

1997년 2월 23일 인쇄

1997년 2월 28일 발행

편집/발행 아주대학교 박물관

京畿道 水原市 八達區 遠川洞 山5番地

TEL (0331)219 - 2907, 2908

FAX (0331)219 - 2906

인쇄 서경문화사 ☎ (02)743 - 8210, 765 - 7145

표지 : 靑銅銀入絲蒲柳水禽紋淨瓶

(高麗時代. 國寶 92號, 國立中央博物館所藏)